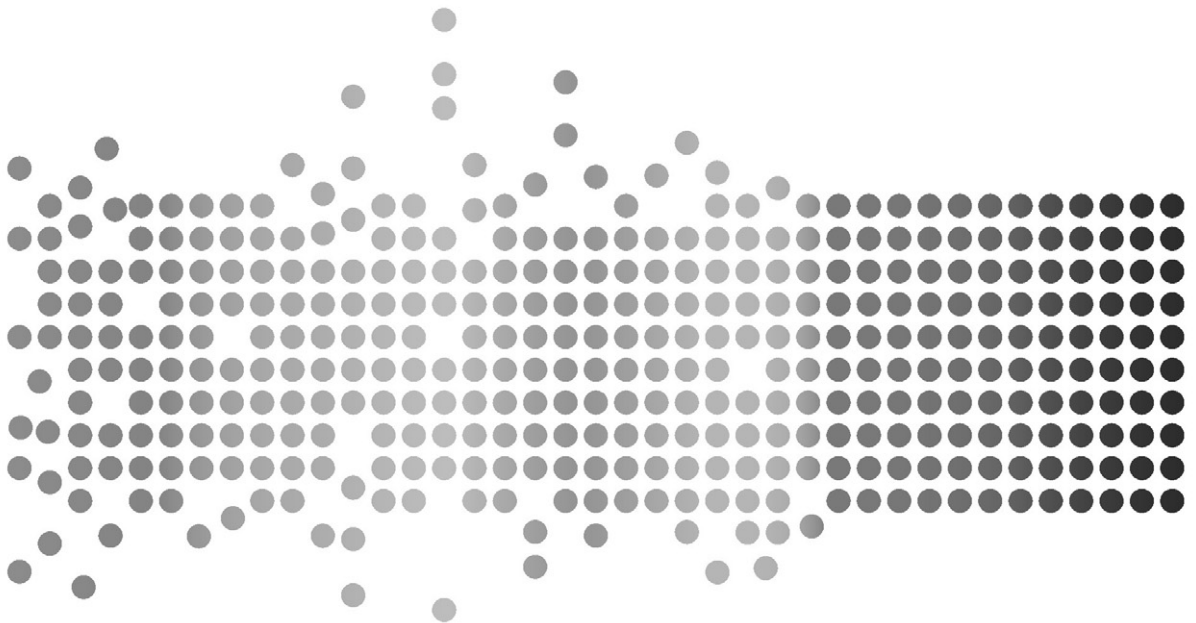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Policy Challenges posed by Emerging 'New Class of Older Persons'

정경희 · 손창균 · 박보미



연구보고서 20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발행일	2010년 12월
저자	정경희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15-6 93330



머리말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특징은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인구가 갖는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정리될 수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노인세대는 현세대 노인의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코호트)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은 현재의 노인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정책의 범위와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볼 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세대 노인과는 다른 경험과 욕구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신노년층에 대한 관심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작을 시작으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신노년층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노년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그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및 정책방안 도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신노년층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신노년층의 출현이 노인복지정책에 갖는 의의와 신노년층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손창균 부연구위원, 박보미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

를 검독 해주신 본 원의 강혜규 연구위원과 염지혜 부연구위원,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진은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본원 보건복지통계정보실 조사패널팀의 이연희 팀장 및 팀원 일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2장 조사개요	17
제1절 조사방법	17
제2절 표본설계 개요	18
제3절 조사표 개요	25
제4절 조사진행 및 자료처리	30
제3장 일반특성 및 가족·사회관계	35
제1절 일반 특성	35
제2절 가족 현황	38
제3절 부모와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40
제4절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51
제5절 사회관계	57
제4장 건강 및 경제상태	63
제1절 건강상태	63
제2절 경제상태	71

제5장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81
제1절 경제활동	81
제2절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94
제6장 노후 가치관 및 정책인지도	109
제1절 노후 가치관	109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욕구	116
제3절 장례 및 죽음에 대한 태도	120
제7장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125
제1절 신노년층의 특징	125
제2절 정책과제	126
참고문헌	133
부 록	139

표 목차

〈표 2- 1〉 2010년 만 46세~59세의 연앙 인구 분포(연앙인구) ..	19
〈표 2- 2〉 2010년 만 46세~59세의 연앙 인구 분포 (2005 센센스 활용)	20
〈표 2- 3〉 층 분류기준	21
〈표 2- 4〉 표본 배분	21
〈표 2- 5〉 조사 주요 내용	29
〈표 3-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37
〈표 3- 2〉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38
〈표 3- 3〉 응답자의 제특성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39
〈표 3- 4〉 응답자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	40
〈표 3- 5〉 응답자의 제특성별 본인 부모의 생존 및 건강상태, 접촉 실태 ..	42
〈표 3- 6〉 응답자의 제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생존 및 건강상태, 접촉 실태	43
〈표 3- 7〉 응답자의 본인의 비동거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	46
〈표 3- 8〉 응답자의 배우자 비동거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	47
〈표 3- 9〉 응답자의 본인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	48
〈표 3-10〉 응답자의 배우자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	49
〈표 3-11〉 응답자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친밀감 정도	50
〈표 3-12〉 응답자의 제특성별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친밀감 비교	51
〈표 3-13〉 응답자의 제특성별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52
〈표 3-14〉 응답자의 제특성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 및 자주 접촉하는 별거자녀의 특성	53

〈표 3-15〉 응답자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54
〈표 3-16〉 응답자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	55
〈표 3-17〉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감	55
〈표 3-18〉 응답자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친밀감을 느끼는 자녀의 특성	56
〈표 3-19〉 응답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	57
〈표 3-20〉 응답자의 친구와의 접촉 빈도	58
〈표 3-21〉 응답자가 자주 접촉하는 지인	58
〈표 3-22〉 응답자가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59
〈표 4- 1〉 응답자의 흡연습관 및 음주습관	64
〈표 4- 2〉 응답자의 평소의 운동습관 및 주당 운동 횟수/운동시설 유형	65
〈표 4- 3〉 응답자가 운동하지 않는 이유	66
〈표 4- 4〉 응답자의 식품섭취의 다양성여부 및 건강식품의 섭취여부	67
〈표 4- 5〉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진여부 실태	68
〈표 4- 6〉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69
〈표 4- 7〉 응답자의 만성질환 진단여부 및 우울증상 여부	70
〈표 4- 8〉 응답자의 갱년기증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여부	70
〈표 4- 9〉 응답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	71
〈표 4-10〉 응답자의 경제 상태	72
〈표 4-11〉 응답자의 저축 및 민간보험 가입률 현황	74
〈표 4-12〉 응답자의 계층 지각/청소년 시절 경제생활 수준/10년 후 경제생활 수준 예측	76
〈표 4-13〉 응답자의 소비 행태	77
〈표 4-14〉 응답자의 소비트렌드	78

〈표 5- 1〉 응답자의 경제활동 경험 여부 및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 40대 이후 일을 그만둔 경험	83
〈표 5- 2〉 응답자의 최장종사 직종 관련	85
〈표 5- 3〉 응답자의 현재 종사 직종 관련	87
〈표 5- 4〉 응답자의 현재 일에 대한 생각	88
〈표 5- 5〉 응답자의 현재 일을 그만둘 경우 대비책	89
〈표 5- 6〉 응답자의 일을 그만 둔 후의 가족관계 및 생활만족도 변화	91
〈표 5- 7〉 응답자의 노후의 경제활동 관련 욕구 및 태도	93
〈표 5- 8〉 응답자의 노후의 일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94
〈표 5- 9〉 응답자의 여가활동 실태(1순위)	95
〈표 5-10〉 응답자의 여가활동 빈도 및 동행인(1순위)	96
〈표 5-11〉 응답자의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1순위)	97
〈표 5-12〉 응답자가 생각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	98
〈표 5-13〉 응답자의 자원봉사단체 활동 참여 여부, 기간, 빈도, 참여경로 및 참여 이유	100
〈표 5-14〉 응답자의 자원봉사단체 활동 노후참여의사	101
〈표 5-15〉 응답자의 정치사회단체 활동 참여 실태 및 노후참여의사	102
〈표 5-16〉 응답자의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	102
〈표 5-17〉 응답자가 선호하는 노후교육	103
〈표 5-18〉 응답자의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의향 및 지불가능비용	104
〈표 5-19〉 평생교육 실시기관의 조건	105
〈표 5-20〉 응답자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여부	106
〈표 6- 1〉 응답자의 경제적 부양 의무 인식 및 노후 생활비 마련 방식 ..	110

〈표 6- 2〉 응답자의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 주거지 선택조건, 동거 희망자	111
〈표 6- 3〉 응답자의 부모의 자녀 부양 시기에 대한 태도	112
〈표 6- 4〉 베이비붐 세대가 바라는 노후 생활	113
〈표 6- 5〉 응답자의 주요 관심사	113
〈표 6- 6〉 응답자가 예측하는 노후 생활의 어려움	114
〈표 6- 7〉 응답자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15
〈표 6- 8〉 응답자의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및 인식 실태	117
〈표 6- 9〉 응답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118
〈표 6-10〉 응답자의 국민건강보험의 충분성에 대한 태도	119
〈표 6-11〉 응답자가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	119
〈표 6-12〉 응답자가 생각하는 제사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장례 방법	121
〈표 6-13〉 응답자가 생각하는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장기 기증 의향	121
〈표 6-14〉 응답자의 죽음준비에 관한 교육에 대한 의향	122

부표 목차

〈부표 1〉 응답자의 제특성별 본인의 형제·자매 순위	159
〈부표 2〉 응답자의 제특성별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	160
〈부표 3〉 응답자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161
〈부표 4〉 부양 내용별 주 제공자·수혜자의 특성	162
〈부표 5〉 응답자의 여가활동(2순위, 3순위)	163
〈부표 6〉 응답자의 여가활동 빈도 및 동행인(2순위, 3순위)	165
〈부표 7〉 응답자의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2순위, 3순위)	166

〈부표 8〉 응답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서비스 종류	168
---	-----

그림 목차

[그림 2-1]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30
----------------------------	----



Abstract

Policy Challenges posed by Emerging 'New Class of Older Persons'

Because of the rapid socio-economic changes in their early years, the so-called 'new class of older persons' who will become older persons in the near future have differ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om the current class of older persons. A clear picture of this clas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s critical in discuss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policy options. For this purpose, a national survey of 4,050 persons who are 46 to 59 years old was conducted from July 5 to August 15, 2010.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sampling process and introduces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The second part illustrates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The third part reviews baby boomers' social networks, focusing on their family relations and exchanges of various suppor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fourth part illustrates their health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related policy demands. The fifth part reviews baby boomer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The sixth part illustrates their attitudes to later life and policies related to it. In

the seventh and the last part, the survey's main findings are illustrated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illustrated.

요약

1. 연구의 목적

- 중년층(베이비 붐 세대와 50대 후반)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령자 또는 노인이 되었을 때의 가족관계, 여가활용실태, 노동에 대한 태도 및 행태, 노후소득의 구성과 규모, 건강상태, 가치관 등은 현 노인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46~59세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중년층에 대한 복지욕구의 파악에 초점을 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5년 인구센서스 90%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표본추출 한 200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여 2010년 7월 5일 ~ 2010년 8월 15일(6주) 기간 중 조사가 이루어짐.
 - 총 조사대상자는 4,050명으로 이중 베이비 붐 세대는 3,027(전기 1,633명 후기 1,395명) 55~59세인 전후세대는 1,022명임.

2. 주요 연구 내용

-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 전후세대의 평균자녀수는 2.3명임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는 1.9명

으로 차이가 큼.

-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하여 전후세대는 부모생존율은 낮고 손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아 세대구성의 차이가 있음.
- 전후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는 부모에게 수발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가사일 도움은 베이비 부머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으며, 부부관계 만족도도 71.1%로 전후세대의 64.7%보다 높음.
-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자녀로부터 가사도움을 받는 비율은 낮은 반면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베이비 붐 세대가 50.8%로 전후세대의 31.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 자주 접촉하는 지인은 베이비 붐 세대가 좀 더 동창이나 직장동료 중심이라면, 전후세대는 지역주민 중심적임.

□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흡연에 있어서는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와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음주에 있어서는 마신다는 응답이 62.8%로 전후세대의 53.0%에 비하여 더 높음.
-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는 모두 약 70%가 운동을 하고 있으나 매일 운동하는 경우는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적음.
 - 이용하는 운동시설도 전후세대보다 베이비 붐 세대가 좀 더 민간 상업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편임.
- 만성질환진단율은 베이비 붐 세대가 27.1%로 전후세대의 39.9%로 큰 차이를 보임.
 -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22.9%로 전기 베이비 부머의 30.6%에 비하여 낮음.
- 베이비 붐 세대뿐만 아니라 전후세대의 40%정도가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필요한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음.

□ 경제상태

- 소득수준은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많지만 자산규모는 비슷함.
 - － 베이비 붐 세대의 월 평균가구소득이 448만 원으로 전후세대의 361만 원보다 높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467만 원임.
 - －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 규모는 3억 6,450만 원으로 전후세대의 3억 5970만 원과 비슷함.
- 부채 규모는 베이비 붐 세대가 4,870만 원으로 전후세대의 3,570만 원에 비하여 많은 편임.
- 본인이나 자신을 위한 교육비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2만 2천 원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후세대의 8천 원에 비해서는 약 3배 수준임.
 - － 베이비 붐 세대(월 약 83만 원)는 전후세대(월 약 75만 원)보다 저축, 적금, 저축성 보험료 등을 많이 지출하고 있음.
- 건강, 요양위험과 관련된 민간보험 가입률, 사망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 노후소득보장관련, 목독마련의 경우 모두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가입률이 낮음.
- 베이비 붐 세대보다 전후세대의 10년 후의 경제생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하는 비율이 높음(18.7%와 27.3%).

□ 경제활동

- 전후세대의 은퇴 경험자의 비율이 41.1%로 베이비 부머 보다 더 높으며, 동 비율은 전기 베이비 부머가 후기 베이비 부머보다 높음.
- 농림어업 숙련직 비율이 전후 세대에서 가장 높고 전기 베이비 부머, 후기 베이비 부머의 순서임.
- 베이비 부머와 전후세대 모두 대부분이 일을 그만 둘 경우에 대비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음.

□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운동, 친목모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등 활동내용이 다양하지 않음.
- 베이비 부모와 전후세대 모두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선택했으며, 다음은 등산임.
- 베이비 부모(69.4%)와 전후세대(65.9%)의 다수가 여가활동이 현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 여가활동이 노후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은 베이비 부모 세대와 전후세대에게서 모두 이보다 더 높으며(83.7%와 78.8%) 전기 베이비 부모보다 후기 베이비 부모에게서 높음.
-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베이비 부모 전체 7.3%(후기 5.9%, 전기 8.6%), 전후세대 5.6%로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약 절반 정도가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있음.
- 베이비 부모의 43.9%가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으며, 이는 전후세대의 응답(36.5%)보다 높은 수준임.
 - 베이비 부모 그룹 내에서는 후기 베이비 부모가 전기 베이비 부모보다 받겠다는 응답이 높았음(각각 후기 45.5%, 전기 42.6%).
 - 그러나 대부분 무료서비스나 저렴한 비용을 희망하고 있음.
- 평생교육기관의 접근성, 비용, 강사의 질, 교육수준에 있어서 베이비 부모와 전후세대, 전기베이비 부모와 후기 베이비 부모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80%대로 나타남.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능력에 있어 전후세대와 베이비 부모 간의 차이가 큼.
 - 전후세대의 49.6%가 전혀 사용할 줄 모르나, 동비율이 전기 베이비 부모는 31.8%, 후기 베이비 부모는 17.6%로 큰 차이를 보임.

□ 가치관

- 경제적 부양과 관련하여 자녀 및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베이비 붐 세대가 51.7%로 전후세대의 59.0%보다 약간 낮은 대신 연금 등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은 19.1%로 전후세대의 12.4%보다 높음.
-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으로 농어촌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후 주거지 중요조건으로 베이비 붐 세대는 자연환경(47.3%)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사회적 소통(16.0%), 보건의료시설(15.9%)임.
 - －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전기 베이비 부머(8.8%)나 전후세대(7.9%)에 비하여 문화여가시설을 언급하는 비율이 높음(12.5%)
- 부모의 자녀부양시기는 베이비 붐 세대의 41.5%가 결혼할 때까지, 29.6%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23.9%가 직장이 생길 때까지로 응답
 - －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이 전후세대의 19.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은 전후세대의 50.6%에 비하여 낮음.
- 베이비 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경우 취미생활을 하면서가 압도적으로 1순위(42.3%)를 차지하고, 다음이 소득창출(18.8%), 자원봉사(16.8%)인데, 이는 전후세대와 동일한 순위임.
 - －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는 전후세대에 비하여 소득창출보다 자원봉사를 지향
- 전후세대와 전기 및 후기 베이비 부머 사이에 주요 관심사의 차이가 발견됨.
 - － 베이비 붐 세대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의 취업/결혼으로 33.8%이며, 다음으로는 자녀의 교육(25.6%), 본인의 건강(18.7%)임.
 - 전기 베이비 부머는 자녀의 취업/결혼(40.6%)이 가장 큰 관심사인 반면,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는 자녀의 교육이 주요관심사(39.0%)임.
 - 전후세대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35.0%)과 자녀의 취업/결혼(34.8%)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함.

- 베이비 붐 세대나 전후세대 모두 건강 및 기능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노후생활의 어려움으로 예상하고 있음.
 - － 전후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건강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음.
- 정책 인식도가 높아, 베이비 붐 세대의 85.2%와 전후세대의 80.3%가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85.9%와 83.5%가 인식하고 있음.
 - － 베이비 붐 세대의 23.0%와 전후세대의 17.9%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 －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 모두 약 70%가 공식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음.
- 전후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 모두 약 50%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 베이비 붐 세대의 50%정도가 공적 연금을 납입중이며, 12.3%와 11.4%가 가입을 하였으나 납입을 못하고 있으며, 35.8%와 37.0%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국민건강보험의 충분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약 절반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 모두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이며, 다음이 노후소득소득보장, 고용연장/기회 확대의 순서로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고 있음.
 - －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전기 베이비 부머가,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서는 전후세대에게서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라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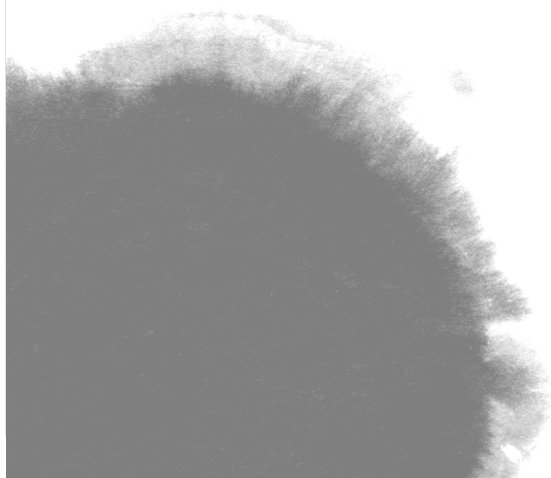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신노년층의 출현이 우리사회의 정책기조 변화의 계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관심 제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기조로의 변화
 -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변화

-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 생산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 －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른 숙련단절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제로 전환
 - －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
 - － 자원봉사의 활성화
 -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노후소득 준비가 가능한 정책적 대안 마련
 - －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활성화
 - 다각적인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
 - －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
 -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01

서론



제1장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특징은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인구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정리될 수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노인세대는 현세대 노인과는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장경섭, 2009) 속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코호트)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은 현재의 노인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머지않은 시점에 60대에 접어든다고 하는 인구학적 현실이 현재의 노인과는 다른 경험과 욕구를 갖고 노년기에 진입한 미래의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정책의 범위와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볼 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압축적 경제성장’ ‘압축적 사회변동’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미래의 노인들은 현세대 노인과는 다른 경험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노년층이라고 볼 수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층을

1) 이는 현세대 노인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 집합적 존재로서의 개념으로,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독립성과 생산성, 개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칭하는 ‘신노년 문화’에서 논의되는 가치개입적인 개념이 아님. 신노년문화와 관련해서는 한경혜(2000)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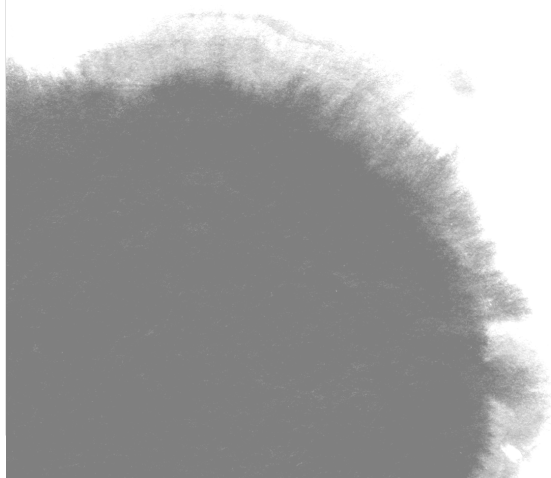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현재는 60대 이전이지만 노년기를 삶의 한 단계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는 중년기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를 시작으로 촉발된 신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노년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그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및 정책방안 도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조사를 실시하여 신노년층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신노년층의 출현이 노인복지정책에 갖는 의의와 신노년층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²⁾.

2) 본 보고서는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총괄 분석보고서로 조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결과와 정책방안에 대한 제언만을 담고 있음.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분석과, 일과 여가, 건강, 소비활동 등의 영역별 심층연구 보고서가 별도로 발간되었음.

02

조서개요



제2장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이 전국조사 실시라는 점에서, 조사의 근간이 된 표본설계개요와 조사내용을 소개하고 자료 처리과정 및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1 절 조사방법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베이비 붐 세대와 50대 후반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 연령층의 상한선은 2008년에 실시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60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곧 노년기에 접어들 50대 후반연령층의 제특성과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노년기로 접어들 때 예견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대상의 하한선은 베이비 붐 세대의 정의에 기초하여 설정되었다. 1963~1955년 사이에 출생한 사회구성원을 일컫는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즉,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50대 후반연령층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와 50대 후반 연령층의 특징을 비교검토하며, 베이비 붐 세대 안에서도 후기와 전기 베이비 부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길지 않는 기간 내에 60대에 진입하여 노년기를 경험하게 될 전

후세대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55~59세를 전후세대로, 그 외는 베이비 붐 세대로 칭하고자 한다. 또한 매우 급속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노년층 내에서도 세대를 나누어 비교해보고자 한다³⁾.

제2절 표본설계 개요

본 절에서는 중년층(베이비 부머 세대)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이들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동에 따른 가구의 다양한 변화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중년층의 중장기적인 정책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확률표본에 근거하기 위한 표본설계를 다루고자 한다⁴⁾.

1. 모집단 및 총화

가. 모집단

2010년 중년층 조사의 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때 연령기준이 되는 중년층세대는 2010년 기준 만 46~59세 사이의 개인으로 한다.

-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2010년 현재 만 46~59세인 개인
-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중 보통 및 아파트조사구에 거주하는 2010년 기준 만 46~59세 개인

3) 베이비 붐 세대는 통상 전후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급상승한 1955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하는 베이비 부머와 전 후에 태어난 1950년~1954년까지를 전후세대로 구분할 수 있음. 세대를 나누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손양민(2010)의 분류에 따라 1950~1954년까지는 전후세대, 1955~1959년생은 전기 베이비 부머, 1960~1963년생까지는 후기 베이비 부머로 칭하고자 함.

4) 표본설계에 기초가 된 문헌은 참고문헌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표본설계의 기본방향은 첫째, 전국 만 46~59세 사이의 중년층에 대한 연령대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이들 인구집단의 현재 복지인식과 향후 노후대비를 위한 복지욕구를 파악하며, 둘째,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을 3개 층(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층화하고, 인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2010년 연앙 인구에 의한 만 46~59세 사이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해보면 전체 중년세대 인구는 약 10,905천명에 이르며, 이들의 남녀 성별 비율은 각각 50.3%대 49.7%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전체의 2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이 서울지역으로 20.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지역별 인구수에 따른 표본배분 시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전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표본을 배분하도록 고려하였다.

〈표 2-1〉 2010년 만 46세~59세의 연앙 인구 분포(연앙인구)

(단위: 명)

	계	남	여
전국	10,904,904	5,486,488	5,418,416
서울	2,228,492	1,078,683	1,149,809
부산	867,931	418,826	449,105
대구	568,289	280,512	287,777
인천	614,827	313,139	301,688
광주	291,122	144,494	146,628
대전	325,052	162,597	162,455
울산	263,792	136,696	127,096
경기	2,485,285	1,285,001	1,200,284
강원	343,155	175,435	167,720
충북	333,160	171,600	161,560
충남	419,149	217,810	201,339
전북	371,932	186,493	185,439
전남	382,230	195,510	186,720
경북	585,681	295,438	290,243
경남	711,999	366,354	345,645
제주	112,808	57,900	54,908

조사모집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2005년 센서스자료는 인구조사자료를 기반으로 2010년 현재 만 5세를 2005년 연령자료에 더하여 2010년 기준의 연령 분포를 파악하였다.

〈표 2-2〉 2010년 만 46세~59세의 연앙 인구 분포(2005 센선스 활용)

(단위: 명)

구분	2005년 총 인구수	2010년 46~59세 인구
전국	46,587,281	10,111,380
서울	9,680,111	2,133,943
부산	3,468,503	840,251
대구	2,424,986	549,619
인천	2,493,033	571,049
광주	1,395,909	278,612
대전	1,421,094	306,448
울산	1,033,698	244,502
경기	10,278,414	2,198,634
강원	1,439,225	318,923
충북	1,437,484	303,689
충남	1,862,711	367,902
전북	1,756,182	351,875
전남	1,792,041	354,404
경북	2,569,105	534,912
경남	3,010,487	653,607
제주	524,298	103,010

나. 표본규모 산정

표본규모는 층별 46세~59세 사이 인구수에 따라, 중년층 비율 $p=0.5$ 로 가정하여 목표오차 $\pm 1.58\%$ 내외로 단순임의 추출 하에서 전국 표본규모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다.

$$n = z^2 \frac{p(1-p)}{e^2} = 4,000 \text{명}$$

총 조사대상자 수를 기반으로 개별 조사구당 조사 대상인구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조사구당 20명씩 고려하면, 전체 조사구 규모는 200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 규모로 산정할 수 있다.

다. 층화

중년층 생활실태및 복지욕구조사의 층은 표본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16개 특광역시를 층화기준으로 고려할 경우 표본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은 3개층(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 하도록 하였다. 이때, 대도시는 서울을 비롯한 6개 특광역시이며, 중소도시는 나머지 경기도를 비롯한 도지역의 동부를 포함하고, 농어촌은 도지역의 읍면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2-3〉 층 분류기준

층구분	분류지표	표본수
3개 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연령대(5세단위) 성별	4,000명(200개 조사구)

라. 표본배분

위와 같이 3개 층화기준을 토대로 하고, 표본배분은 16개 특광역시와 성별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표 2-4〉 표본배분

지역	표본대상자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조사구당 가구 추출률
	계	남	여			
서울	492	248	244	307	25	1/12
부산	307	149	158	218	15	1/15
대구	248	120	128	169	12	1/14
인천	258	127	131	173	13	1/13
광주	178	91	87	106	9	1/12
대전	188	93	95	116	9	1/13
울산	170	85	85	122	8	1/15

(단위: 명, 가구, 개)

지역	표본대상자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조사구당 가구 추출률
	계	남	여			
경기	519	269	250	332	26	1/13
강원	193	100	93	123	10	1/12
충북	190	97	93	119	10	1/12
충남	213	110	103	125	11	1/11
전북	200	104	96	119	10	1/12
전남	204	102	102	119	10	1/12
경북	252	129	123	152	13	1/12
경남	278	140	138	177	14	1/13
제주	110	57	53	65	6	1/11
계	4,000	2,021	1,979	2,542	200	

이와 같이 분류한 이유는 16개 특광역시 지역이 골고루 포함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출단계에서 지역을 안배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추정단계에서는 3개 층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표본배분 방법은 지역별 인구수 차이에 덜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 제곱근 비례 방법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전체 조사구는 200개이며, 이중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5개, 26개로 가장 많고, 부산 및 울산을 비롯한 경남권이 37개 조사구, 대구를 비롯한 경북권은 25개, 대전 등을 비롯한 충청권은 30개 조사구, 제주를 비롯한 호남권은 35개 조사구가 배분되었다. 이와 같이 표본으로 배분된 조사구 내에서 표본가구의 선정은 서울,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조사구당 가구의 추출확률을 1/12로 하고, 부산 및 울산은 1/15, 대구는 1/14 등으로 부여하여 추출하도록 하였다.

마. 표본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법

본 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기 보다는 중년층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위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구내 표본가구의 선정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구당 추출물에 따라 표본가구를 계통추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년층이 속한 가구를 먼저 표본으로 선정하고, 다음으로 해당가구의 가구원 중 중년층에 속한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구주 및 배우자 또는 그의 자녀 까지 중년층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조사하도록 하였다. 만일 가구주와 배우자 중 가구주만 해당될 경우에는 가구주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2. 추정산식

가. 가중치

지역별 조사구 추출확률을 기본가중치로 고려하고, 조사구 당 조사 완료된 46~59세의 인구분포를 고려한 무응답 조정가중치 및 성별, 연령 분포를 고려한 사후조정 가중치를 모두 고려한다.

① 기본가중치

먼저 조사구당 중년층이 추출될 확률의 역수가 다음과 같은 기본가중치가 된다.

$$w_1 = \frac{N_h}{n_h} \times \frac{M_h}{m_h} \times \frac{K_h}{20}$$

여기서 N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 는 h 층의 표본조사구수이며, M_h 는 h 층의 모집단 가구수, m_h 는 h 층의 표본가구수, K_h 는 h 층의 중년층 총 수, k_h 는 h 층의 표본조사 대상 중년층 수이다. 이 경우 조사구당 평균 20명의 중년층을 조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k_h = 20$ 이다.

② 무응답 조정 가중치

다음으로 무응답 조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w_2 = w_1 \times \frac{m_h}{r_h} \times \frac{20}{o_h} = \frac{N_h}{n_h} \frac{M_h}{r_h} \frac{K_h}{o_h}$$

여기서 r_h 는 h 층의 표본가구중 응답가구수이며, o_h 는 h 층의 응답자수이다.

③ 사후 조정 가중치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분포와 조정된 가중치의 층별 합계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w_3 = w_1 \times w_2 \times PF_h$$

여기서 PF_h 는 h 층의 사후조정인자(poststratification factor)이다.

나. 추정산식

① 전국 추정

전국의 46~59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복지욕구에 대한 비율을 추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고려한다.

$$\text{— 비율 추정식 : } \hat{\bar{Y}}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 \sum \sum \sum w_{hij}, \quad ,$$

$$L=1,2,3$$

단, $y_{hij}=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

$$\text{— 분산추정식 : } var(\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text{— 상대표준오차 : } RSE = \frac{\sqrt{v(\hat{\bar{Y}})}}{\hat{\bar{Y}}} \times 100$$

② 층별 추정

16개 특광역시 지역을 3개 층으로 재분류하여 층별 베이비 부머의 복지 욕구에 대한 비율을 추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정산식을 고려할 수 있다.

$$\text{— 층별 비율 추정식 : } \hat{Y}_h =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 \sum \sum w_{hij},$$

단, $y_{hij}=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

$$\text{— 층별 분산 추정식 : } var(\hat{Y}_h)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text{— 상대표준오차 : } RSE_h = \frac{\sqrt{v(\hat{Y}_h)}}{\hat{Y}_h} \times 100$$

제3절 조사표 개요

본 조사 내용은 크게 가구원 및 일반사항,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가구원 및 일반사항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과 관련하여 가구원 수, 가구원별 연령·성·결혼상태·교육수준·가구주와의 관계·경제활동 참여여부·동거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추가적으로 비동거 자녀의 여부, 손자녀 여부, 종교 여부 및 활동빈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가구형태도 조사하였다.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영역에서는 중년층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양까지 맡고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윗세대(부모)와 아랫세대(자녀)에 대한 부양의 교환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부

5) 설문구성에 기초가 된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경희 외(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참고할 것.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표 개요만을 제시하고자 함. 단, 참고가 된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는 참고문헌에 제시하였음.

계제에서 양계제로의 변화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친구 및 이웃과의 네트워킹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순위를 조사하였고, 부모세대와의 접촉 및 교환을 보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 건강상태, 동거여부, 접촉여부를 보았으며,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일 도움의 교환, 경제적 도움의 교환, 손자녀 돌봄 도움에 대한 교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자녀세대와의 접촉 및 교환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빈도, 집안일·경제적 도움의 교환, 손자녀 돌봄 도움의 교환 등을 살펴보았다. 학비 외에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본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여부, 동거여부, 경제적 도움의 내용)과 생활비 지원으로 인해 느끼는 부담 수준도 조사되었다. 자녀와의 친밀감과 관련하여 자녀관계만족도 및 가장 친밀한 자녀도 조사되었다. 부부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부관계만족도, 노후에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중요도가 조사되었으며, 친구 및 이웃과의 네트워킹과 관련하여서는 친밀한 친구 여부 및 접촉빈도 등이 조사되었다.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행위와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령층은 제외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상태에 대한 평가 항목은 배제하고 갱년기 증상과 같은 중년층에 특성화된 건강행태 및 상태를 파악했다는 점을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행위와 관련하여, 담배 및 술의 경험 여부, 운동 여부 및 운동 횟수·장소·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고른 영양 섭취 정도, 건강식품 섭취 여부를 조사하였다.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경험 및 건강검진을 통한 관리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희망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만성질환 및 우울증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갱년기 증상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에서는 수입, 자산, 부채, 가구의 지출수준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소비스타일도 조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 소비·지출액, 자산, 부채 등을 조사하였으며, 월평균 여행·외식·교육·저축에 드는 가구지출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저축 여부, 민간보험 가입여부가 조사되었다. 객관적 수치 외에 주관적인 부분을 보기 위한 주관적 경제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경제적 히스토리를 위하여 과거의 경제상태와 예상하는 미래의 경제상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응답자들의 소비행태가 추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소비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소비스타일 및 소비트렌드를 조사하였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뿐만 아니라 노후(65세 이후) 경제활동 참여 욕구 역시 파악했으며, 응답자들이 은퇴를 경험 했을 수도 있으므로 은퇴에 따른 생활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자세히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여부·일자리 유형·종사상 지위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에 관련된 만족도, 안정성, 지속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퇴직 준비 활동 여부, 퇴직 경험 여부,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후의 부모·자녀·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및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들의 추후 경제활동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 경제활동 참여 희망여부 및 구직 시 우선순위, 노후 일의 중요도 등을 조사하였다.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현재의 여가 및 사회참여 실태 뿐 아니라 노후의 여가 및 사회참여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노후 변화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교육 및 노후설계 컨설팅 과 관련된 욕구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여가활동의 우선순위·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빈도·함께 하고 있는 대상·여가활동의 중요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노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및 노후에 있어서 여가활동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사회활동 참여여부·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 기간 및 빈도·만족도와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의 중요도를 조사하였으며, 사회참여 역시 노후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 중요도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노후설계교육을 희망하는지, 희망한다면 얼마정도의 액수이길 바라는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평생교육기관 선택 요인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정도 및 그 이용 목적을 조사하였다.

노후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영역에서는 크게 부모 및 자식에 대한 부양관, 각종 제도(역모기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적연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가치관과 관련하여서는 노부모 경제적 부양 여부, 노후 거주지 및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희망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녀는 언제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노후의 생활과 관련하여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최근 관심사, 예상되는 노후생활의 어려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조건 등을 조사하였다. 각종 정책 인지도 및 태도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는, 역모기지와 관련하여 역모기지 제도 인식 여부 및 활용의사를 조사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인식 여부, 이용 여부, 향후 이용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수혜 가능성 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공적연금과 관련하여서는 공적연금 가입 여부, 수혜금액 인식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노후 국가사회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였다. 장례 및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사의 필요성, 바람직한 장례방법, 존엄사 허용 여부, 장기기증 여부, 죽음에 대한 교육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삶의 만족도 영역은 Tobin에 의해 개발되어진 Life Satisfaction Index(LS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2-5>에 제시하였다.

〈표 2-5〉 조사 주요 내용

항목분류	조사 내용
가족·사회 관계 및 부양의 교환	- 부모 및 자녀와의 접촉 빈도 - 부모 및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신체적, 경제적) -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 친밀도/만족도 - 부부관계 만족도 - 양가(친가/배우자)가족과의 접촉빈도 및 친밀도 - 친구와 접촉/연락 빈도 - 최다빈도 사적 네트워킹 대상 - 기대되는 노후의 중요한 관계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흡연, 음주 행위 - 운동 여부 및 이용하는 운동시설 - 건강식품 섭취 여부 -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주관적 건강상태 - 만성질환, 우울증 경험여부 - 갱년기 증상 경험 여부 및 정도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 가구 소득, 자산, 부채, 월평균 소비지출 - 주요 항목(여행, 교육, 외식) 지출 수준 - 저축, 민간보험 가입여부 - 소비행태 및 소비경향(지표 조사)
경제활동	- 경제활동 여부 및 최장종사직종, 직위, 근무기간 - 현재 하는 일의 직종, 지위, 기간, 만족도 - 은퇴 준비 여부 및 방법 - 은퇴 경험 여부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족관계 변화 여부 - 노후(65세 이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이유, 근로조건 및 유형
사회참여	- 여가활동 빈도 및 함께 즐기는 사람 - 노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 및 여가활동의 중요도 - 자원봉사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및 빈도, 참여 이유 - 노후 자원봉사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 현재/노후의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비용 수준 - 노후 생활을 위한 교육내용, 교육 참여시 고려하는 조건 - 인터넷 사용 정도
노후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 노부모의 부양자 및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 노후 주거지역, 주거지 선택시 우선 사항 -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정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조건 - 역모기지/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 및 이용여부 - 공적연금 가입 여부 - 제사 및 바람직한 장례 방법 - 존엄사/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삶의 만족도	- 12개 문항으로 측정

제4절 조사진행 및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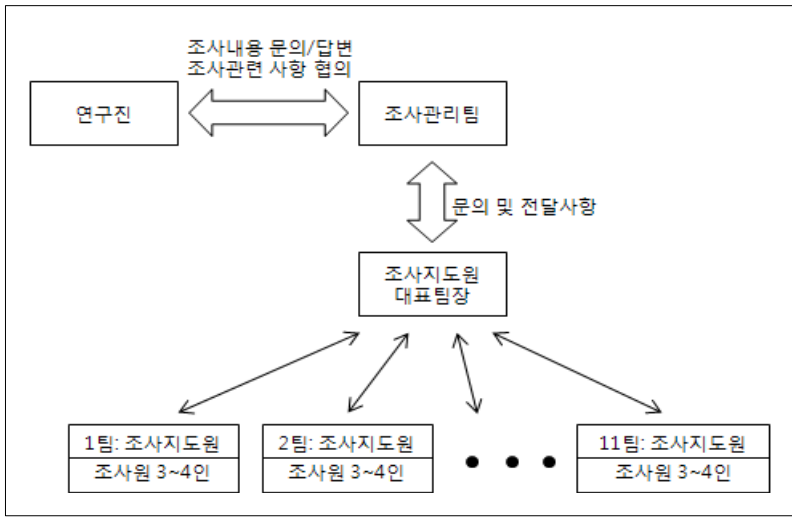
1. 조사진행

본 연구원의 조사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리팀에 의하여 모집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7월 2일에 본 연구원 대강당에서 본 연구진에 의해 조사원 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 내용은 조사 배경 및 목적, 조사 내용(조사표) 설명, 조사 개요 및 현지조사 실시 요령, 요도 및 가구명부 설명, 조사팀별 예행연습 및 질의응답이었다.

조사는 2010년 7월 5일~2010년 8우리 15일(6주)기간중 전국 200개 조사구에 조사지도원 1인과 일반조사원 3인으로 구성된 11팀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진행은 조사지도원 대표팀장을 지정하여 각 팀별 문의 및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조사관리팀과 연구진의 협의 후 해결 방안을 일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진행 중 전달체계를 단일통로를 유지함으로써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림 2-1]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한편 조사의 충실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사진행 과정에서 중간점검 및 실사지도가 이루어졌다. 조사 시작 후 2주째(7월 19일)에 실시된 중간점검 회의에는 각 조사팀의 조사지도원, 조사관리팀,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논의 내용은 조사내용, 현지조사 방법, 기타 진행사항 등 조사 실시 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질의 및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사가 완료된 조사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가구, 조사완료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표 내 질의사항, 표기 문제 등 예기치 않았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한편, 실사지도가 조사 중반(7월 말~8월초)에 연구진이 각 조사팀에 방문하여 조사 진행 상황 점검 및 조사 원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표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에디팅 작업이 실시되었다. 1차 에디팅작업은 조사팀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팀원들의 조사표의 로직체크, 무응답 검토 등을 현 조사지역에서 실시, 재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한 추가보완 및 수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일정 완료후 2차 에디팅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조사팀장에 의해 통일된 지침에 의한 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문항 응답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2차에 걸친 에디팅 작업 후에는 전산입력 및 에러체킹이 실시되었다. 전산입력 후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수정을 위하여 에러체킹 프로그램(올트라 에디터)을 통한 입력에서 발생하는 에러체킹 작업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SPSS, SAS 등의 통계패키지를 통한 주제별 연구결과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주요목적은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일차적으로 백분율 및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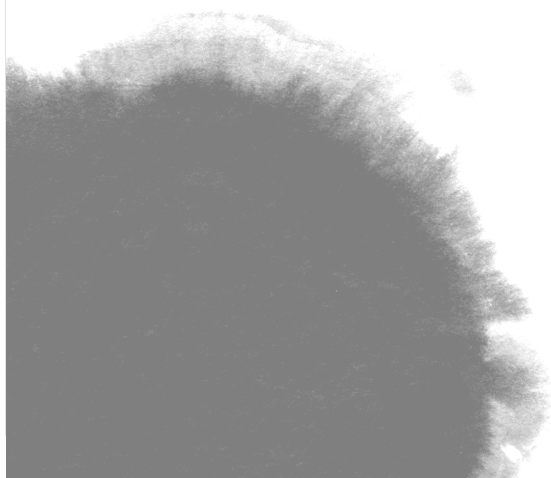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서는 각 실사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조사구에 따라 다르고, 각 조사구의 조사완료율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조사구별 승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표본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전체 ‘계’의 수치가 ‘소계’의 합과 차이를 보이거나, 각 행(column)의 ‘계’의 수치가 각 행의 개별 수치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구별 승수의 소수점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문항분석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의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과 반올림 관계로 백분율의 합계가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하였다.

03

일반특성 및 가족사회관계



제3장 일반특성 및 가족·사회관계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의 일반특성과 가족 및 사회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경우 주요 관심사는 가족의 규모 및 가족의 접촉 실태 및 부양의 교환실태이다. 조사대상자인 중년층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는 생애주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접촉 및 부양의 교환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절 일반 특성

조사대상 중 50대 후반인 전후세대는 1,022명이며, 베이비 붐 세대는 총 3,027명이다. 베이비 붐 세대 중 1955~1959년에 출생한 전기 베이비 부모는 베이비 붐 세대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17.7%인데 이는 50대 후반에 있는 전후세대의 21.9%에 비하여 낮은 것이다. 이를 전기와 후기 베이비 부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의 경우 18.6%, 후기 16.8%로 최근 코호트에 올수록 농어촌 거주 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성별 구성비를 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여성의 비율이 52.7%로 전후세대의 48.9%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 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약 70%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24.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후세대의 경

우 동 비율이 45.2%와 13.0%인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상승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상응하여 교육수준의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교육수준의 상승은 베이비 붐 세대 내부에서도 교육수준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기 베이비 부머 중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19.1%인 것에 비하여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동 비율이 31.4%에 달하고 있어 교육수준의 향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상태를 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85.6%가 유배우 상태로 전후세대의 83.8%보다 약간 높지만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의 차이도 거의 없다. 가구형태의 경우 미혼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핵가족이 다수여서 74.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전후세대의 경우는 동 비율이 54.0%로 낮고 대신 부부가족의 비율이 28.4%로 나타나 전후세대 10명중 3명은 빈둥우리 시기에 들어섰음을 볼 수 있다. 확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비율에는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에서 핵가족화가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75.9%가 일을 하고 있어, 전후세대의 68.0%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하여 전후세대가 낮아 노년기에 가까워지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

특성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지역					
동부	81.2	78.1	82.3	81.4	83.2
읍면부	18.8	21.9	17.7	18.6	16.8
출생년도					
1955~1959년	40.3	-	53.9	100.0	-
1960~1963년	34.4	-	46.1	-	100.0
성					
남자	48.3	51.1	47.3	47.5	47.2
여자	51.7	48.9	52.7	52.5	52.8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14.7	26.9	10.5	14.1	6.4
중학교	22.5	27.8	20.7	24.0	16.8
고등학교	41.0	32.2	44.0	42.8	45.4
전문대학 이상	21.8	13.0	24.8	19.1	31.4
결혼상태					
유배우	85.2	83.8	85.6	85.8	85.4
무배우	14.8	16.2	14.4	14.2	14.6
가구유형					
1인 가구	5.8	6.6	5.5	5.7	5.2
부부가족	14.2	28.4	9.4	13.1	5.1
부/모+미혼자녀	69.0	54.0	74.1	70.3	78.5
확대가족	10.9	10.7	10.9	10.8	11.0
기타가족	0.2	0.3	0.1	0.1	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73.9	68.0	75.9	73.9	78.4
미취업	26.1	32.0	24.1	26.1	21.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6.6	50.4	32.0	35.9	27.4
300~500만원 미만	32.9	27.7	34.7	33.8	35.6
500만원 이상	30.4	21.8	33.3	30.3	3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신노년층의 주관적인 특성으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60점 만점에 34.49점으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 수준의 점수이며 세대 간의 큰 차이는 없지만 전후세대는 34.38점, 전기 베이비 부머는 34.49점, 후기 베이비 부머는 34.58점으로 노년기에 가까운 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 명, %)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세대	세대
평균점수 (표준편차)	34.49 (3.385)	34.38 (3.438)	34.53 (3.366)	34.49 (3.415)	34.58 (3.309)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제2절 가족 현황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을 전후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베이비 붐 세대의 5.1%는 자녀가 없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4.0%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편 평균 자녀수는 1.9명으로 전후세대의 2.3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하여 출산수준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혼자녀 1.7명 기혼자녀 0.2명으로 자녀 중 결혼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후세대에 비하여 낮다. 즉 가족주기상 자녀의 결혼이 시작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동거율에 있어서도 베이비 붐 세대는 82.7%이지만 전후세대는 60.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가치관의 변화라기보다는 가족주기상의 변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결혼과 함께 독립 가구를 형성하면서 전후세대의 자녀동거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보면 분명하게 들어나는데, 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 자녀동거율이 78.8%이며 미혼자녀가 1.0명이지만 후기 베이비 부모는 자녀동거율이 87.3%이며 미혼자녀의 수가 1.8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의 11.8%는 손자녀가 있는데 이 비율은 전후세대의 47.1%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이며, 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는 3.2%에 불과하여 이 시기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3〉 응답자의 제특성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무자녀율(%)	4.8	4.0	5.1	4.9	5.3
총자녀수	2.0	2.3	1.9	2.0	1.9
자녀동거율(%)	77.1	60.7	82.7	78.8	87.3
동거 자녀수	1.3	0.9	1.4	1.3	1.6
비동거자녀수	0.7	1.4	0.5	0.7	0.3
미혼자녀수	1.5	1.3	1.7	1.6	1.8
기혼자녀수	0.4	1.0	0.2	0.4	0.1
손자녀가 있는 비율(%)	20.7	47.1	11.8	19.1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형제자매수를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평균 형제자매수는 5.1명으로 전후세대의 5.2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베이비 붐 세대 중 전기는 5.2명 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 5.0명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 세대는 모두 많은 형제자매 속에서 성장했으나 자신들은 2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생

식가족(family of orientation)과 방위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크기의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표 3-4〉 응답자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세대	세대
본인					
형제·자매수 (평균)	5.1	5.2	5.1	5.2	5.0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19.8	22.1	19.1	19.5	18.6
차남이하	28.1	28.5	28.0	28.0	28.1
장녀/외동딸	19.4	19.9	19.2	19.9	18.4
차녀 이하	32.6	29.5	33.7	32.6	34.9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배우자 ¹⁾					
형제·자매수 (평균)	5.0	5.2	5.0	5.1	4.9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22.8	25.1	22.0	22.9	20.9
차남이하	28.9	24.0	30.5	29.6	31.5
장녀/외동딸	19.0	19.9	18.7	18.7	18.7
차녀 이하	29.4	31.1	28.8	28.8	28.9
계 (명)	100.0 (3,451)	100.0 (858)	100.0 (2,592)	100.0 (1,401)	100.0 (1,191)

주: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는 제외

제3절 부모와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베이비 붐 세대의 약 1/3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약 2/3는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생존해 있어 성인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는 경우는 17.8%이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관계로 어머니만 생존해있는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전후세대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비율이 60.2%로 매우 높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46.7%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29.7%로 이 비율이 낮다. 즉 예비 노인층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는 자녀세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화해가는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한 세대인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신체적 저하가 급격이 이루어지는 80대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전후세대의 80%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베이비 붐 세대 중에서도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80대의 부모를 둔 비중이 30%대로 매우 낮다. 즉 전후세대는 자신의 노후와 더불어 연로한 부모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는 부모의 생존율이 높지만 비교적 독립적일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다는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며, 그러한 현상은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본인의 부모에 관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유사하다.

한편 비동거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접촉 빈도와 부양의 교환행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부모와 비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약 1/3은 다른 자녀와 동거하고 있고, 약 절반 정도는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비동거 부모의 약 절반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이다.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주 2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이 32.3%로 전후세대의 30.7%에 비하여 낮다. 반면 월 1회 미만이라는 응답은 9.8%로 전후세대의 15.2%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후기 베이비 부머가 좀 더 부모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본인 부모에 비하여 접촉 빈도는 낮지만, 세대 간의 차이점은 유사하다.

〈표 3-5〉 응답자의 제특성별 본인 부모의 생존 및 건강상태, 접촉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세대	세대
부모의 생존 실태					
부모 모두 생존	15.2	7.3	17.8	13.0	23.5
아버지만 생존	3.2	2.5	3.4	2.7	4.2
어머니만 생존	37.4	30.0	39.9	37.6	42.6
부모 모두 사망	44.2	60.2	38.8	46.7	29.7
부의 연령					
70세 미만	1.6	0.0	1.8	0.0	3.0
70~75세 미만	13.6	2.1	15.4	7.4	20.7
75~80세 미만	34.7	17.8	37.4	29.7	42.5
80~85세 미만	36.2	52.6	33.6	45.9	25.4
85세 이상	14.0	27.5	11.9	17.1	8.5
모의 연령					
70세 미만	3.9	0.4	4.6	1.6	7.3
70~75세 미만	21.3	4.8	24.9	14.8	34.0
75~80세 미만	33.5	24.0	35.5	36.7	34.5
80~85세 미만	25.3	37.1	22.7	29.1	17.0
85세 이상	16.1	33.8	12.2	17.7	7.3
부모의 건강상태 ¹⁾					
(모두) 건강	54.6	49.9	55.6	50.4	60.2
아버지(만) 비건강	5.9	4.5	6.2	5.4	6.9
어머니(만) 비건강	33.4	40.9	31.8	38.0	26.2
부모 모두 비건강	6.1	4.7	6.4	6.2	6.7
부모와의 동거 실태					
부/모와 동거	11.3	11.5	11.2	11.9	10.6
부/모와 비동거	88.7	88.5	88.8	88.1	89.4
비동거 부모의 거주형태 ²⁾					
독거	32.1	29.6	32.7	30.9	34.3
부부가구	21.3	15.4	22.6	19.6	25.2
자녀동거	40.0	45.4	33.8	41.7	36.2
기타	6.6	9.5	5.9	7.8	4.3
접촉 빈도 ³⁾					
주 2회 이상	32.0	30.7	32.3	29.4	34.9
주 1회	22.6	18.1	23.6	24.2	23.1
주 1회 미만 ~ 월 1회	34.6	36.1	34.3	35.7	33.0
월 1회 미만	10.7	15.2	9.8	10.7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주: 1)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외

2) 부모와 비동거중인 경우만 질문. 부모가 모두 사향하거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제외

3)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제외

〈표 3-6〉 응답자의 제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생존 및 건강상태, 접촉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부모의 생존 실태					
부모 모두 생존	15.8	6.4	18.9	15.7	22.7
아버지만 생존	2.8	1.9	3.1	2.6	3.8
어머니만 생존	36.6	31.6	38.2	35.5	41.4
부모 모두 사망	44.8	60.1	39.8	46.3	32.2
부의 연령					
70세 미만	4.8	0.8	5.2	1.8	8.1
70~75세 미만	18.7	5.2	20.4	16.8	23.3
75~80세 미만	34.7	28.5	35.5	32.5	38.0
80~85세 미만	30.8	42.1	29.4	37.5	22.8
85세 이상	11.0	23.5	9.4	11.4	7.9
모의 연령					
70세 미만	8.8	0.6	10.6	5.7	15.1
70~75세 미만	21.6	10.8	23.9	19.4	28.2
75~80세 미만	32.1	30.5	32.4	33.1	31.9
80~85세 미만	22.8	35.1	20.1	25.4	15.1
85세 이상	14.8	23.1	13.0	16.5	9.7
부모의 건강상태 ¹⁾					
(모두) 건강	58.0	52.2	59.2	55.8	62.5
아버지(만) 비건강	5.7	4.5	6.0	7.0	5.0
어머니(만) 비건강	30.4	38.8	28.5	31.3	25.9
부모 모두 비건강	6.0	4.5	6.3	6.0	6.6
부모와의 동거 실태					
부/모와 동거	8.8	7.9	9.1	7.6	10.5
부/모와 비동거	91.2	92.1	90.9	92.4	89.5
비동거 부모의 거주형태 ²⁾					
독거	32.1	36.7	31.1	30.9	31.3
부부가구	22.8	14.5	24.6	21.8	27.4
자녀동거	38.7	41.0	38.2	39.2	37.3
기타	6.3	7.8	6.0	8.1	4.0
접촉 빈도 ³⁾					
주 2회 이상	20.9	22.1	20.6	19.7	22.4
주 1회	16.5	11.6	17.6	18.8	16.5
주 1회 미만 ~ 월 1회	38.2	37.3	38.4	38.4	39.5
월 1회 미만	24.4	29.0	23.3	24.1	2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451)	(858)	(2,592)	(1,401)	(1,191)

주: 1)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외

2) 부모와 비동거중인 경우만 질문. 부모가 모두 사향하거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제외

3)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제외

도구적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부모에 대한 집안일 제공률이 72.4%인데 이는 전후세대의 58.5%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모로부터 베이비 붐 세대에게 집안일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26.7%만이 도움을 받고 있어 제공률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전후세대의 경우는 15.3%에 불과하다.

또한 간병이나 수발 도움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의 34.2%가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후세대의 경우 동 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35.2%이다. 즉 전후세대의 경우 부모에 대한 가사지원은 적지만 수발 및 간병 서비스의 수준은 베이비 붐 세대와 유사한 것이다. 수발이나 간병서비스를 부모로부터 받는 대상자는 소수이다. 이러한 도구적 교환에서 나타난 특징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전후세대에 비하여 집안일 도움을 부모에게 더 빈번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러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 전후세대에 비하여 활발한 교환실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와의 부양교환실태를 살펴보면 집안일 제공률이 65.5%로 본인의 부모의 72.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전후세대의 경우는 58.2%로 본인의 부모의 58.4%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부모에게 가사 도움을 줄 일이 많으면서 배우자 부모보다는 자신의 부모에게 좀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집안일 도움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27.2%로 본인의 부모의 경우 26.7%와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전후세대의 경우는 동 비율이 17.4%로 본인 부모의 15.3%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즉 부모로부터의 도움에 있어 전후세대부터 발생해온 집안일 도움의 양계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간병이나 수발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의 23.4%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 부모의 경우 34.2%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이다. 전후세대의 경우 27.5%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간병이나 수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 부모의 35.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또한 베

이비 붐 세대가 전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본인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게 수발 도움을 제공하되 약간 본인 부모를 중심으로 수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경제적 부양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의 66.5%가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26.1%가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등, 전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후세대의 9.1%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여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비 붐 세대가 전후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고 부모의 소득수준의 감소가 좀 더 확연하게 들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보여진다. 이러한 유형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적 부양으로 인한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8.2%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5.2%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도 있다. 베이비 붐 세대의 15.7%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약 20%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어 전후세대의 13.5%에 비하여 조금 높다. 또한 생활물품 구매지원을 받거나 비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도 전기·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 각각 5.6%와 8.7%로 전후세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베이비 붐 세대의 14.2%가 전후세대의 9.6%가 도움을 받고 있다. 즉,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도움 수혜율의 차이에 비하여 전후세대에게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양가로부터 비슷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양계제로의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 도움을 도움의 제공 유무만으로는 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의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양의 교환을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음, 도움을 주는 편, 도움을 받는 편, 비슷한 정도의 도움을 주고받음의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베이비 붐 세대의 87.1%가 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에는 전후세대와의 차이가 거의 없

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도움을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87.4%로 전후세대의 83.5%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또한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로 전후세대의 10.0%보다 낮다. 이러한 결과는 전후세대와 유사하게 다수의 베이비 붐 세대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7〉 응답자의 본인의 비동거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집안일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1.3	1.9	1.2	1.2	1.2
주 2~3회	2.1	2.6	2.0	0.8	3.1
주 1회	5.6	6.1	5.5	4.6	6.3
2주에 1회	5.7	5.7	5.7	5.9	5.6
월 1회	14.5	11.8	15.1	14.0	16.0
3개월에 1회	21.5	14.1	23.1	20.6	25.2
6개월에 1회	13.0	10.7	13.5	15.7	11.7
연 1회 이하	6.2	5.6	6.3	6.4	6.2
미제공	30.1	41.6	27.6	30.9	24.7
집안일 도움 수혜					
주 4회 이상	0.2	0.0	0.2	0.3	0.1
주 2~3회	0.4	0.2	0.4	0.2	0.5
주 1회	0.4	0.0	0.5	0.4	0.7
2주에 1회	0.8	0.2	1.0	0.9	1.0
월 1회	2.4	2.5	2.4	1.6	3.1
3개월에 1회	6.1	3.1	6.7	4.8	8.4
6개월에 1회	6.3	3.5	6.9	5.4	8.3
연 1회 이하	8.1	5.8	8.6	7.6	9.4
미제공	75.3	84.9	73.3	78.7	68.5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0.6	0.7	0.6	1.0	0.3
주 2~3회	1.4	2.2	1.2	1.0	1.4
주 1회	1.5	1.6	1.5	2.1	1.0
2주에 1회	2.3	2.0	2.3	3.1	1.6
월 1회	5.3	5.6	5.2	5.6	4.9
3개월에 1회	8.6	8.9	8.5	8.1	8.8
6개월에 1회	6.0	7.1	5.8	5.9	5.8
연 1회 이하	8.7	7.1	9.1	7.4	10.5
미제공	65.7	64.8	65.8	66.0	65.7
간병이나 수발 도움 수혜					
수혜	1.2	1.8	1.0	1.4	0.7
미수혜	98.8	98.2	99.0	98.6	99.3
계 (명) ¹⁾	100.0 (2,017)	100.0 (361)	100.0 (1,656)	100.0 (772)	100.0 (885)

주: 1) 부모와 비동거중인 경우만 질문. 항목별 무응답 제외

〈표 3-8〉 응답자의 배우자 비동거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집안일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0.8	2.7	0.4	0.2	0.6
주 2~3회	1.8	2.3	1.7	1.4	2.0
주 1회	3.4	3.7	3.3	3.3	3.3
2주에 1회	5.2	2.9	5.7	6.1	5.4
월 1회	13.3	10.9	13.9	11.8	15.9
3개월에 1회	19.4	14.3	20.5	20.1	21.0
6개월에 1회	13.5	13.3	13.6	14.9	12.3
연 1회 이하	6.7	8.2	6.4	6.9	5.8
미제공	35.8	41.8	34.5	35.4	33.7
집안일 도움 수여					
주 4회 이상	0.2	0.0	0.2	0.2	0.2
주 2~3회	0.1	0.2	0.1	0.2	0.1
주 1회	0.6	0.1	0.7	1.1	0.3
2주에 1회	0.7	0.9	0.6	0.0	1.1
월 1회	2.5	0.8	2.9	3.1	2.8
3개월에 1회	6.3	3.4	6.9	6.0	7.7
6개월에 1회	6.8	3.9	7.4	6.6	8.2
연 1회 이하	8.3	8.1	8.4	7.4	9.3
미제공	74.6	82.7	72.8	75.4	70.4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0.2	0.1	0.2	0.2	0.3
주 2~3회	0.6	0.7	0.6	0.6	0.7
주 1회	1.0	1.4	0.9	0.8	1.0
2주에 1회	1.7	2/2	1.6	2.0	1.3
월 1회	4.1	4.6	4.0	4.8	3.3
3개월에 1회	5.6	7.5	5.2	5.5	4.9
6개월에 1회	4.8	4.1	5.0	5.6	4.4
연 1회 이하	6.1	7.1	5.9	6.9	5.0
미제공	75.8	72.3	76.5	73.7	79.2
간병이나 수발 도움 수여					
수혜	0.6	0.5	0.6	0.7	0.6
미수혜	99.4	99.5	99.4	99.3	99.4
계 (명) ¹²⁾	100.0 (1,762)	100.0 (319)	100.0 (1,443)	100.0 (700)	100.0 (743)

주: 1)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제외
2) 배우자의 부모와 비동거중인 경우만 질문. 항목별 무응답 제외

〈표 3-9〉 응답자의 본인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경제적 도움 제공 내용					
전혀 제공 않음	6.4	9.1	5.8	6.0	5.6
정기적인 용돈·생활비지원	25.4	22.3	26.1	23.2	28.7
비정기적 용돈·생활비지원	66.4	66.3	66.5	69.0	64.3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0.1	0.4	0.1	0.0	0.1
생활물품 구매 지원	1.6	1.9	1.6	1.8	1.3
경제적 도움제공의 부담감					
매우 부담스럽다	1.2	1.7	7.8	2.0	0.2
부담스럽다	14.9	14.6	38.7	16.2	13.8
보통이다	25.0	27.8	25.0	24.8	24.0
부담스럽지 않다	51.9	49.2	25.4	51.3	53.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7.1	6.6	3.0	5.8	8.4
경제적 도움 수혜 내용					
전혀 받지 않음	84.7	86.5	84.3	88.8	80.4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0.1	0.0	0.1	0.3	0.0
비정기적 용돈·생활비 지원	6.6	3.5	7.3	5.6	8.7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0.6	0.6	0.6	0.5	0.7
생활물품 구매 지원	8.0	9.4	7.7	4.8	10.2
경제적 도움 제공 유형					
전혀 도움 주고 받지 않음	5.5	7.4	5.1	6.0	4.3
도움을 주는편	86.7	85.3	87.1	88.9	85.5
도움을 받는편	2.9	2.2	3.1	2.0	4.1
비슷한 정도의 도움 주고받음	4.8	5.0	4.8	3.2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2,017)	(361)	(1,656)	(772)	(885)

주: 1) 부모와 비동거중인 경우만 질문. 항목별 무응답 제외

〈표 3-10〉 응답자의 배우자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경제적 도움 제공 내용					
전혀 제공 않음	7.6	11.7	6.7	7.3	6.1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22.6	16.6	23.9	24.2	23.8
비정기적 용돈·생활비 지원	68.5	68.5	68.5	67.6	69.3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0.1	0.2	0.1	0.0	0.1
생활물품 구매 지원	1.2	3.0	0.8	0.9	0.7
경제적 도움제공의 부담감					
매우 부담스럽다	1.4	1.6	1.3	1.1	1.5
부담스럽다	13.4	13.2	13.4	15.8	11.2
보통이다	26.7	26.7	26.8	27.9	25.7
부담스럽지 않다	51.4	50.2	51.6	50.4	52.7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7.2	8.3	6.9	4.8	8.9
경제적 도움 수혜 내용					
전혀 받지 않음	86.6	90.5	85.8	84.3	87.2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0.2	0.0	0.3	0.4	0.2
비정기적 용돈·생활비 지원	5.1	1.7	5.9	5.5	6.2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0.5	0.7	0.4	0.6	0.2
생활물품 구매 지원	7.6	7.2	7.7	9.2	6.3
경제적 도움 제공 유형					
전혀 도움 주고 받지 않음	6.7	10.0	6.0	6.0	6.1
도움을 주는편	86.7	83.5	87.4	87.3	87.5
도움을 받는편	2.5	2.7	2.4	2.8	2.0
비슷한 정도의 도움 주고받음	4.2	3.9	4.2	4.0	4.4
계 (명) ¹⁾²⁾	100.0 (1,762)	100.0 (319)	100.0 (1,443)	100.0 (700)	100.0 (743)

주: 1)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제외
2) 배우자의 부모와 비동거중인 경우만 질문, 항목별 무응답 제외

본인 부모에 대한 친밀감에 있어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전후세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9.9%, 그렇다가 56.2%인 반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는 26.7%와 55.5%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4.0%로 전후세대의 56.2%보다 높다. 이

러한 결과는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변화와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의 수준이 높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11〉 응답자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친밀감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본인 부모					
매우 그렇다	25.5	19.9	26.7	23.7	29.4
그렇다	55.6	56.2	55.5	56.6	54.5
보통이다	16.8	20.6	16.0	18.0	14.2
그렇지 않다	1.2	1.8	1.0	1.0	1.0
전혀 그렇지 않다	0.9	1.6	0.7	0.6	0.8
계 (명) ¹⁾	100.0 (2,258)	100.0 (407)	100.0 (1,851)	100.0 (871)	100.0 (980)
배우자 부모					
매우 그렇다	10.2	9.8	10.3	7.6	12.8
그렇다	52.4	46.4	53.7	53.4	54.1
보통이다	34.0	38.3	33.0	36.7	29.6
그렇지 않다	2.5	4.5	2.1	1.4	2.7
전혀 그렇지 않다	0.9	1.0	0.9	0.9	0.8
계 (명) ²⁾³⁾	100.0 (1,903)	100.0 (341)	100.0 (1,680)	100.0 (753)	100.0 (809)

주: 1)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외

2)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제외

3) 배우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제외.

부모보다 그 폭을 넓혀 본인의 가족과 배우자 가족과의 상대적인 접촉빈도와 친밀감을 비교해보면 전후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모두 절반 정도가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도 28%대로 나타났다. 친밀감의 경우 친가와 더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률이 빈도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밀감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응답도 29% 내외로 세대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세대를 불문하고 본인

의 가족과 더 빈번히 접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12〉 응답자의 제특성별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친밀감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접촉 빈도					
친가와 더 자주 접촉	47.7	47.0	47.9	49.9	45.7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	24.0	24.3	23.9	23.6	24.3
비슷함	28.3	28.6	28.1	26.5	30.0
친밀감					
친가와 더 친밀	57.9	57.5	58.1	58.9	57.2
배우자 가족과 더 친밀	12.5	13.8	12.1	12.7	11.3
비슷함	29.6	28.8	29.8	28.4	31.5
계 (명) ¹⁾	100.0 (3,449)	100.0 (857)	100.0 (2,593)	100.0 (1,401)	100.0 (1,192)

주: 1) 친가와 배우자 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제4절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1.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베이비 붐 세대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71.1%로 전후세대의 64.7%보다 높다.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전기 베이비 부머는 동 비율이 67.8%인데 비하여 후기 베이비 부머는 74.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 세대일수록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는 전후세대의 경우 4.7%로 베이비 붐 세대의 2.7%보다 높다. 따라서 신노년층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베이비 붐 세대

가 전후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차이가 세대 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빈둥우리 시기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변화인지는 향후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응답자의 제특성별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매우 만족	8.6	7.1	9.1	7.6	10.8
만족	60.9	57.6	62.0	60.2	64.1
보통	27.4	30.6	26.3	28.8	23.4
만족하지 않음	2.9	4.1	2.5	3.2	1.6
전혀 만족하지 않음	0.3	0.6	0.2	0.3	0.1
계 (명) ¹⁾	100.0 (3,449)	100.0 (857)	100.0 (2,593)	100.0 (1,401)	100.0 (1,192)

주: 1)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제외

2. 자녀와의 접촉 실태

현재 베이비 붐 세대의 약 1/3인 35.2%만이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있으며,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의 접촉 빈도는 주 1회 이상 접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후세대의 78.5%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72.2%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주4회 이상 접촉한다는 비율은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에게서 조금 낮고, 특히 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 24.7%로 낮아지고 있어 중년기 후반부로 갈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로는 장남과 장녀가 가장 높는데 이는 이들 세대가 평균 자녀를 1.9명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남에 비하여 장녀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점에서 아들보다는 딸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3-14〉 응답자의 제특성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 및 자주 접촉하는 별거자녀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접촉 실태					
주 4회 이상	30.1	32.7	28.2	29.8	24.7
주 2~3회	22.4	21.0	23.4	24.2	21.3
주 1회	22.3	24.8	20.6	20.0	21.9
2주에 1회	10.7	8.6	12.1	11.9	12.6
월 1회	8.6	9.4	8.0	7.0	10.4
3개월에 1회	2.4	0.5	3.7	4.0	3.1
6개월에 1회	1.5	1.2	1.7	1.2	3.0
연 1회 이하	0.2	0.3	0.1	0.0	0.2
미제공	1.9	1.5	2.2	2.0	2.7
별거자녀의 특성					
장남	39.8	35.7	42.6	39.6	49.6
기타 아들	7.1	7.8	6.6	7.1	5.2
장녀	44.7	45.5	44.1	45.1	41.7
기타 딸	8.5	11.0	6.8	8.2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 2)}	(1,794)	(727)	(1,066)	(746)	(321)

주: 1) 별거자녀가 없는 경우 제외
2) 별거자녀의 특성에 대한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3.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57.7%로 전후세대의 56.1%와 비슷하지만 도움을 받는 비율은 52.8%로 전후세대의 65.5%에 비하여 낮다. 이는 전후세대가 생애주기상 의존성이 증대하기 시작하여 자녀로부터 도구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손자녀 돌보기 도움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76.5%가 제공하고 있고 전후세대의 경우 74.6%가 제공하는 등 큰 차이가 없다.

한편, 경제적 도움의 경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68.5%로 전후세대의 88.4%에 비하여 낮다. 특히 전후세대의 경우 비정기적인 생활비나 용돈을 받는 비율이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하여 훨씬 높다 (74.5%와 59.6%). 이는 결혼과 더불어 부모에게 용돈의 형식으로 자녀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게서 높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50.2%가 20세 이상의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31.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46.5%가 그러한 경제적 지원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베이비 붐 세대는 생애주기상 학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였으나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부담이 큰 집단이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부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5〉 응답자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세대	세대
집안일 도움 제공률	57.1	56.1	57.7	57.6	57.9
집안일 도움 수혜율	57.9	65.5	52.8	57.4	41.8
손자녀 돌보기 도움 제공률	75.4	74.6 ²⁾	76.5	77.0	73.0
(명) ¹⁾	(1,794)	(727)	(1,066)	(746)	(321)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경우만 질문. 항목별 무응답 제외

2) 별거 손자녀가 있는 345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한 34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3-16〉 응답자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경제적 도움 수혜					
전혀 도움 받지 않음	23.3	11.5	31.4	23.1	50.7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8.8	11.7	6.7	8.2	3.2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65.7	74.5	59.6	66.1	44.6
주택 등 부동산 구매 시 지원	0.1	0.3	0.0	0.0	0.0
생활물품 구매 지원	2.1	1.9	2.2	2.5	1.5
계 (명) ¹⁾	100.0 (1,794)	100.0 (727)	100.0 (1,066)	100.0 (746)	100.0 (321)
경제적 도움 제공					
없음	54.6	68.7	49.2	47.5	51.2
1명	32.9	23.9	36.3	37.5	35.0
2명 이상	12.6	7.4	14.5	15.0	13.8
계 (명) ²⁾	100.0 (3,848)	100.0 (982)	100.0 (2,867)	100.0 (1,554)	100.0 (1,313)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경우만 질문. 2) 자녀가 있는 경우만 질문.

〈표 3-17〉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감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부담스럽다	48.0	54.8	46.5	44.8	48.7
보통이다	24.4	21.8	25.0	26.4	23.2
부담스럽지 않다	27.6	23.5	28.5	28.8	28.1
계 (명) ¹⁾	100.0 (1,765)	100.0 (307)	100.0 (1,458)	100.0 (816)	100.0 (642)

주: 1)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별거자녀가 있는 경우만 질문.

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세대와의 도구적인 관계 외에 정서적인 측면을 만족도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베이비 붐 세대가 83.8%로 전후세대의 77.9%에 비하여 높으며,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8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신노년층은 기혼자녀와 동거율은 낮지만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교환의 수준도 높고, 자녀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높다.

〈표 3-18〉 응답자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친밀감을 느끼는 자녀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0.1	16.0	21.5	18.7	24.9
만족한다	62.2	61.9	62.3	62.1	62.6
보통이다	15.0	16.6	13.1	15.4	10.4
만족하지 않는다	3.6	5.4	3.0	3.8	2.1
자녀의 특성					
없음	0.7	1.2	0.6	0.8	0.4
장남	38.4	37.6	38.7	39.3	37.9
기타 아들	8.1	8.8	7.9	8.4	7.3
장녀	34.9	33.8	35.3	35.2	35.4
기타 딸	7.6	8.3	7.3	7.1	7.5
동일	10.3	10.3	10.3	9.3	1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3,856)	(982)	(3,027)	(1,633)	(1,395)

주: 1) 자녀가 있는 경우만 질문.

제5절 사회관계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베이비 붐 세대는 7.6%로 전후세대의 10.6%에 비하여 낮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6.7%로 더 낮다. 친한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비교해보면 세대의 차이가 거의 없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는데 이것이 생애주기상 여러 가지 역할이 요구되는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세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지는 향후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응답자에게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가장 자주 접촉하는 지인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지역주민이 31.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동창으로 25.7%, 직장동료가 27.9%인 반면, 전후세대의 경우 지역주민이 43.5%로 월등히 높고 다음이 동창 22.5%, 직장동료가 18.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지역주민이라는 응답이 27.0%로 직장동료라는 응답 34.2%에 비하여 훨씬 낮다. 이를 통하여 은퇴에 따라 직장동료 중심에서 지역단위의 사회적 관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9〉 응답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없음	8.4	10.6	7.6	8.5	6.7
1명	11.4	13.0	10.9	12.1	9.5
2명	31.0	31.8	30.7	30.7	30.8
3명	23.9	20.4	25.1	23.1	27.3
4-5명	19.7	19.4	19.8	19.4	20.2
6명 이상	5.7	4.8	6.0	6.3	5.6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표 3-20〉 응답자의 친구와의 접촉 빈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주 4회 이상	18.1	19.9	17.5	16.7	18.4
주 2~3회	24.4	23.0	24.9	26.6	23.0
주 1회	19.2	18.1	19.6	19.3	20.0
2주 1회	12.5	12.1	12.6	13.0	12.1
월 1회	19.9	22.1	19.1	19.0	19.3
3개월 1회	4.0	3.5	4.2	3.7	4.8
6개월 1회	1.6	1.0	1.8	1.6	2.0
연 1회 이하	0.3	0.3	0.3	0.2	0.5
계 (명) ¹⁾	100.0 (3,710)	100.0 (914)	100.0 (2,796)	100.0 (1,4965)	100.0 (1,302)

주: 1) 문제가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제외

〈표 3-21〉 응답자가 자주 접촉하는 지인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동창	25.1	22.5	25.7	26.5	25.3
직장동료	25.6	18.0	27.9	22.9	34.2
종교 관련 교우	10.5	12.9	9.6	10.5	8.7
지역주민	34.5	43.5	31.2	35.2	27.0
기타 ¹⁾	4.4	3.1	5.6	4.9	4.8
계 (명) ²⁾	100.0 (4,008)	100.0 (1,004)	100.0 (3,003)	100.0 (1,621)	100.0 (1,382)

주: 1) 자녀관련 학부형(1.6%), 동호회관련 지인(3.2%)를 포함한 결과임.

2) 무응답 42명을 제외한 결과임.

한편, 응답자가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70%대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자녀인데 배우자라는 응답과의 차이가 매우 크며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에게 있어 자녀라는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각각 13.5%와 10.4%이다. 이러한 변화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게 됨에 따라 노후생활에 있어 배우자가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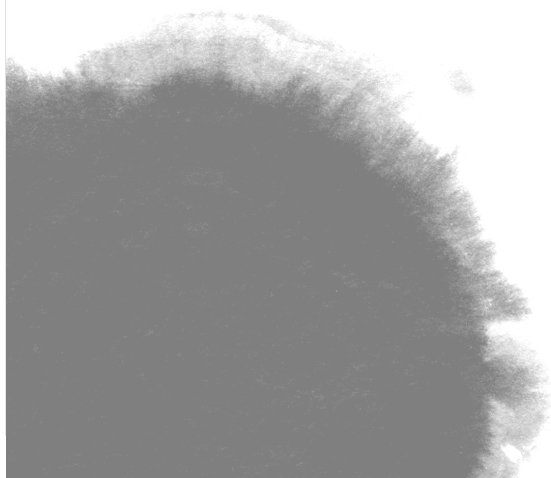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표 3-22〉 응답자가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배우자	77.8	76.1	78.4	78.9	77.9
자녀	11.2	13.5	10.4	10.4	10.5
형제·자매	3.8	3.9	3.7	3.1	4.4
친구	7.0	6.3	7.2	7.3	7.1
기타	0.2	0.1	0.3	0.3	0.2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04

건강 및 경제상태



제4장 건강 및 경제상태

본 장에서는 신노년층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 및 경제상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 건강행위 및 관련 욕구를, 경제상태와 관련해서는 소득, 재산, 부채, 소비 행태 및 지출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건강상태

1. 건강행위

건강행위와 관련하여, 흡연과 음주 여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와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전후세대의 경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안 피운다는 응답이 22.1%이며, 전기 베이비 부머는 동 비율이 18.2%, 후기 베이비 부머는 14.9%로 점점 흡연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흡연자도 금연을 시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음주의 경우 현재 마신다는 응답은 평균 60%대로 흡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음주율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62.8%로 전후세대의 53.0%에 비하여 더 높다.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후기 베이비 부머의 음주율이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높다.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

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하여 전후세대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의 흡연습관 및 음주습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세대	세대
흡연					
피운 적 없음	58.8	56.8	59.5	58.5	60.6
과거흡연/현재는 안 피움	18.0	22.1	16.7	18.2	14.9
피움	23.2	21.1	23.8	23.3	24.4
음주					
마신 적 없음	29.7	35.3	27.8	30.0	25.2
과거음주/현재는 안 마심	10.0	11.7	9.4	10.8	7.9
마심	60.3	53.0	62.8	59.2	67.0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68.5%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69.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경우 매일 운동하는 경우는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적고, 이용하는 운동시설도 베이비 붐 세대 세대는 민간/상업스포츠 시설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17.3%로 전후세대의 11.0%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6.3%, 3.4%로 전후세대의 4.7%와 2.8%에 비하여 조금씩 높은 편이다. 더불어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7.2%)과 민간/상업스포츠시설 이용(19.8%)로 높은 편이다. 반면 집주변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전후세대가 77.6%로 베이비 붐 세대 67.9%에 비하여 높다. 베이비 붐 세대들은 비교적 편의시설이 좋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집주변에서 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응답률이 높는데,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59.7%로 전후세대의 경우 53.4%인 것에 비하여 약간 높으며,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동 비율이 62.2%로 매우 높다. 즉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운동실천율이 높지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바쁜 생활로 인하여 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 바빠서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4-2〉 응답자의 평소의 운동습관 및 주당 운동 횟수/운동시설 유형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운동습관					
운동하지 않음	31.2	30.1	31.5	32.5	30.4
운동함	68.8	69.9	68.5	67.5	69.6
주당 운동 횟수 ¹⁾					
0일	3.3	3.0	3.4	3.8	2.9
1일	10.5	8.8	11.0	10.2	12.0
2일	16.5	14.1	17.4	16.4	18.5
3일	27.3	26.4	27.7	28.8	26.4
4일	15.0	14.7	15.1	15.4	14.8
5일	13.8	14.9	13.4	14.0	12.8
6일	4.9	5.8	4.6	4.4	4.8
7일	8.7	12.3	7.5	7.2	7.7
운동시설 유형 ¹⁾					
공공체육시설	5.9	4.7	6.3	5.4	7.2
학교체육시설	3.2	2.8	3.4	3.2	3.6
민간/상업스포츠시설	15.7	11.0	17.3	15.0	19.8
민간 비영리/복지시설	1.9	2.4	1.8	2.4	1.1
집주변	70.4	77.6	67.9	70.2	65.3
집안	2.6	1.5	2.9	3.3	2.5
기타	0.4	0.0	0.5	0.5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주: 1)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표 4-3〉 응답자가 운동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세대	세대
바쁘고 시간 없어서	58.2	53.4	59.7	57.7	62.2
경제적여유가 없어서	4.0	4.5	3.8	3.6	4.2
주위 운동 여건 한계	0.3	0.0	0.4	0.5	0.3
정보가 부족해서	-	-	-	-	-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1.5	1.4	1.6	2.0	1.0
몸이 약해서	8.4	10.2	7.7	10.2	4.9
관심이 없어서	11.2	13.8	10.4	10.2	10.5
게을러서	16.2	16.4	16.1	15.5	17.0
기타	0.3	0.5	0.2	0.4	0.0
계 (명) ¹⁾	100.0 (1,262)	100.0 (308)	100.0 (954)	100.0 (531)	100.0 (424)

주: 1) 운동을 하는 응답자 대상

다음으로 식품 및 건강식품의 섭취실태를 살펴보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70%를 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약 7%대이다. 식품 및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데 베이비 붐 세대는 본 응답이 6.9%인 반면 전후세대에게서는 8.6%로 약간 높은 편이다. 한편, 약 60%가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세대 간 차이는 거의 없다.

〈표 4-4〉 응답자의 식품섭취의 다양성여부 및 건강식품(종합비타민, 칼슘제, 보약 등)의 섭취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다양성 여부					
매우 그렇다	17.2	17.1	17.3	17.0	17.6
그렇다	59.4	60.7	58.9	58.0	60.0
보통이다	16.0	13.7	16.8	16.6	17.1
그렇지 않다	6.9	7.7	6.6	8.0	5.0
전혀 그렇지 않다	0.4	0.9	0.3	0.3	0.3
건강식품 섭취 여부					
섭취함	59.8	59.9	59.7	60.0	59.5
섭취하지 않음	40.2	40.1	40.3	40.0	4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응답자는 80%대의 건강검진 수검율을 보이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하여 전후세대의 수검율이 약간 높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건강하기 때문(24.1%), 질병발견이 두려워서(12.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상의 제약이 건강검진을 못 받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므로 이러한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하기 때문이라던가 질병발견이 두려워서와 같이 응답한 사람은 건강검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므로 건강검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건강검진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은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20.3%로 23.8%에 비하여 약간 낮은 편이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만성질환이 발견된 경우 90%대가 치료를 하였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세대와 상관없이 약 10%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데 미수진 이유 역시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이다.

〈표 4-5〉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진여부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건강검진 수진여부					
받은 적 있음	81.6	84.0	80.8	81.1	80.5
받은 적 없음	18.4	16.0	19.2	18.9	19.5
건강검진 미수진 이유 ¹⁾					
바쁘고 시간 없어서	40.3	39.1	40.5	40.9	40.3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16.1	19.1	15.3	14.3	16.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4	4.7	5.7	5.2	5.9
건강하기 때문에	24.1	20.6	25.1	24.0	26.4
정보가 부족해서	2.2	2.1	2.3	3.6	0.7
질병 발견이 두려워서	12.0	14.4	11.2	12.0	10.6
기타					
증상(질병) 발견 여부 ²⁾					
됨	20.3	23.8	19.0	20.8	17.1
안 됨	79.7	76.2	81.0	79.2	82.9
치료(관리) 여부 ³⁾					
함	89.8	91.5	89.1	88.5	89.8
안함	10.2	8.5	10.9	11.5	10.2
치료(관리)하지 않는 이유 ⁴⁾					
바쁘고 시간 없어서	11.8	7.8	13.5	18.4	4.8
관심이 없거나 귀찮아서	5.5	0.0	7.7	10.9	1.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9.3	25.1	17.3	16.7	18.6
건강 이상을 못 느껴서	61.9	67.2	59.6	50.9	75.1
정보가 부족해서	0.8	0.0	1.9	1.7	0.0
기타	0.7	0.0	0.9	1.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주: 1)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4) 질병이 발견되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가 3.7%, 좋다가 49.7%로 53.4%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전기 베이비 부머는 51.8%, 후기 베이비 부머 57.4%, 전후 세대의 경우 50.4%로 나이가 많은 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11.7%로 이 또한 전 후세대에게서 13.8%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30.3%가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러한 진단율은 전후세대의 경우 39.9%, 베이비 붐 세대는 27.1%이며,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는 22.9%인 등 노화에 따라 만성질환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편 우울증상의 경우는 전후세대의 경우 9.4%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는 10.2%이다. 그런데 베이비 붐 세대 내부에서도 전기의 경우 12.3%, 후기 베이비 부머는 7.7%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특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애주기상의 차이때문으로 보여진다.

갱년기 증상과 관련해서는 전후세대의 42.5%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경험했으며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는 33.5%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동비율이 26.3%로 비율이 월등히 낮다.

〈표 4-6〉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매우 좋다	3.7	3.0	3.9	3.0	5.0
좋은 편이다	49.7	47.4	50.4	48.8	52.4
보통이다	35.0	35.9	34.7	35.1	34.2
나쁜 편이다	10.6	12.9	9.9	11.9	7.5
매우 나쁘다	1.1	0.9	1.1	1.2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표 4-7〉 응답자의 만성질환 진단여부 및 우울증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만성질환 진단 여부					
있음	30.3	39.9	27.1	30.6	22.9
없음	69.7	60.1	72.9	69.4	77.1
우울증상 여부					
있음	10.0	9.4	10.2	12.3	7.7
없음	90.0	90.6	89.8	87.7	92.3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표 4-8〉 응답자의 갱년기증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불편을 겪은 적 없음	64.2	57.5	66.5	60.2	73.7
과거에는 불편했으나, 현재는 불편하지 않음	12.4	18.7	10.2	13.0	7.0
가끔 불편함	21.1	21.7	20.9	23.5	17.9
매우 불편함	2.3	2.1	2.4	3.3	1.4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이 식이 또는 운동처방, 건강 및 질병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심사는 모든 세대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식이 또는 운동처방과 관련해서는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에게서 관심의 수준이 높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9〉 응답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없음	5.1	4.5	5.2	5.0	5.5
건강및질병상담	13.9	15.7	13.3	14.3	12.2
건강교육	8.8	8.8	8.8	8.9	8.7
식이 또는 운동처방	16.6	14.3	17.4	16.7	18.2
스트레스와 우울증관리	5.5	4.2	5.9	5.7	6.2
약물오용관련 교육상담	0.5	0.5	0.5	0.4	0.6
정기적 건강검진	39.6	43.3	38.4	38.8	37.9
질병관리서비스	4.3	5.2	4.0	4.4	3.6
U-헬스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4.1	2.0	4.8	4.1	5.8
방문간호서비스	1.6	1.5	1.6	1.7	1.4
기타	0.0	0.0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4)

제2절 경제상태

1. 경제상황

경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소득, 자산, 부채를 살펴보았다. 베이비 붐 세대의 월 평균가구소득은 448만 원으로 전후세대의 361만 원 보다 높 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467만 원이다. 반면 자산 규모는 전후세 대가 3억 5,970만 원이며, 베이비 붐 세대는 3억 6,450만 원으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소득수준은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많지만 자산규모는 비슷하다. 부채 규모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4,870만 원이며 전후세대의 경우 3,570만 원이다. 이는 각각 가구소득 대비 10.9% 와 9.9%에 달하는 것이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월 평균 지출액은 306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68%의 규모이고, 전후세대의 경우는 66%의 규모이다. 즉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소득 중 지출의 비중은 비슷한 상황이다. 지출 중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조사된 지출항목별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여행비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평균 월 9만 원으로 전후세대의 8만 1천 원에 비하여 높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전기 베이비 부머는 8만 7천 원이며 후기 베이비 부머는 9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의 본인이나 자신을 위한 교육비가 2만 2천 원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후세대의 8천 원에 비해서는 약 3배 수준이다. 가족 외식비로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월평균 13만 6천 원으로 전후세대의 10만 5천 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또한 저축성 지출과 관련해서는 베이비 붐 세대는 저축, 적금, 저축성 보험료 등으로 월 8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75만 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각각 27.1%와 31.4%로 오히려 낮은 편이다.

〈표 4-10〉 응답자의 경제 상태

(단위: 명, 만원, 백만원)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월 평균 가구 소득(만원)	426.0	360.9	448.0	431.9	466.9
자산(백만원)	363.3	359.7	364.5	360.0	369.7
부채(백만원)	45.4	35.7	48.7	48.5	48.9
월 평균 지출액(만원)	288.3	236.9	305.6	295.8	317.2
소비항목 월 평균 지출액(만원)					
여행비(숙박비 포함)	8.8	8.1	9.0	8.7	9.4
본인/배우자 교육비	1.9	0.8	2.2	1.8	2.7
가족 외식비	12.8	10.5	13.6	12.8	14.4
저축/적금/저축성 보험료	80.8	74.5	82.9	80.7	85.3
계	100.0	100.0	100.0	10.0	100.0
(명) ¹⁾	(4,050)	(1,022)	(3,027)	(1,633)	(1,39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 실태를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건강, 영양위험과 관련된 민간보험 가입률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인 84.1%, 85.2%로 전후세대의 75.7%와 75.9%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 또한 35.9%와 36.5%로 전후세대의 23.3%와 21.4%에 비하여 높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도 24.0%와 24.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16.0%와 16.4%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목돈마련의 경우는 각각 44.1%와 40.3%로 전후세대의 40.8%와 33.1%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항목에 비하여 세대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즉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는 자신이 경험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위험에 대한 준비의 충분성은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이나 영양위험에 대한 준비율에 비하여 노후소득과 관련된 준비가 소홀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약간 본인 명의의 각종 보험가입률이 높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 및 사망위험과 관련된 가입률이 60~70%인데 비하여 건강이나 영양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 비율은 15% 내외의 수준에 불과하다.

〈표 4-11〉 응답자의 저축 및 민간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본인					
건강, 요양위험	81.9	75.7	84.1	82.0	85.3
사망위험	32.7	23.3	35.9	31.8	40.6
노후소득보장	21.9	16.0	24.0	20.2	28.3
목돈마련	43.3	40.8	44.1	43.8	44.5
배우자 ¹⁾					
건강, 요양위험	82.9	75.9	85.2	82.6	88.2
사망위험	32.8	21.4	36.5	33.2	40.4
노후소득보장	22.5	16.4	24.6	21.8	27.8
목돈마련	38.5	33.1	40.3	39.1	41.6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주: 1)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조사되었음.

응답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계층적 위상에 대한 응답내용을 비교해보면, 현재 자신을 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베이비 붐 세대 3%, 전후세대 2.4%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하층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베이비 붐 세대 41.5%, 전후세대 51.1%로 약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 시절의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17.6%가 전후세대의 19.8%가 좋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후세대가 오히려 좋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18.7%가 10년 후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세대의 27.3%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하여 전후세대의 약 1/4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상실의 가능성을 체감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 소비행태 및 트렌드

소비행태와 관련하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후 구매하는가, 그냥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는가, 가격보다는 디자인·색상을 우선시하는가, 타인의 시선보다는 본인의 선호를 우선시하는가 하는 4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베이비 붐 세대가 전후세대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격정보를 수집한 후 구매한다는 응답은 베이비 붐 세대가 52.2%로 전후세대의 42.2%에 비하여 높으며,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베이비 붐 세대가 69.6%로 전후세대의 74.2%에 비하여 낮다. 또한 가격보다는 디자인·색상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은 베이비 붐 세대가 36.6%로 전후세대의 30.6%에 비하여,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한다는 응답은 베이비 붐 세대가 42.2%로 전후세대의 33.8%에 비하여 높은 등 자신의 선호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트렌드를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모바일 기기로 구매한다는 응답이 18.3%로 전후세대의 9.8%에 비하여 약 두 배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동호회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12.2%로 전후세대의 5.3%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이들 세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구매 및 소비 행태에 익숙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소비를 한다는 응답은 베이비 붐 세대가 80.8%로 전후세대의 73.9%보다 높는데, 이는 아직 미혼인 자녀 등이 많아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34.7%로 전후세대의 29.5%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인터넷 동호회 취미활동 뿐만 아니라 40대 이후 새로 시작한 취미·여가 활동이 있다는 응답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27.8%로 전후세대의 22.5%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음식, 예술·문화상품, 여행상품 등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각각 34.2%와 29.6%로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후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붐 세대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노후를

대비하여 새로운 취미·여가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2〉 응답자의 계층 지각/청소년 시절 경제생활 수준/10년 후 경제생활 수준 예측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계층 지각					
상의 상	0.7	0.2	0.8	0.6	1.1
상의 하	2.2	2.2	2.2	1.7	2.7
중의 상	21.9	17.1	23.5	21.5	26.0
중의 하	31.3	29.4	31.9	31.1	32.9
하의 상	25.1	29.3	23.6	25.2	21.8
하의 하	18.9	21.8	17.9	19.9	15.6
청소년 시절 경제생활					
아주 좋았다	4.6	6.4	4.0	4.2	3.8
조금 좋았다	13.5	13.4	13.6	13.3	13.8
평균 수준이었다	33.8	30.3	35.0	33.3	37.1
조금 나빴다	31.3	31.4	31.2	32.0	30.3
아주 나빴다	16.8	18.6	16.2	17.2	15.0
10년 후 경제생활 예측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2.7	1.6	3.1	1.9	4.5
다소 좋아질 것이다	35.9	29.7	37.9	34.6	41.9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40.6	41.4	40.3	42.8	37.3
다소 나빠질 것이다	18.4	23.7	16.6	18.5	14.4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2.5	3.6	2.1	2.3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표 4-13〉 응답자의 소비 행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가격 정보 수집 후 구매					
매우 그렇다	6.7	5.8	7.0	7.4	6.5
그렇다	43.0	36.4	45.2	41.9	49.1
그렇지 않다	41.8	44.4	40.9	43.7	37.6
전혀 그렇지 않다	8.6	13.5	6.9	7.0	6.7
가까운 곳에서 구매					
매우 그렇다	4.4	6.3	3.7	3.8	3.7
그렇다	66.4	67.9	65.9	64.7	67.3
그렇지 않다	25.7	23.3	26.5	27.2	25.6
전혀 그렇지 않다	3.6	2.5	3.9	4.3	3.4
디자인·색상이 좋으면 구매					
매우 그렇다	2.1	2.0	2.1	1.7	2.7
그렇다	33.0	28.6	34.5	34.1	34.8
그렇지 않다	50.2	51.3	49.8	50.9	48.7
전혀 그렇지 않다	14.7	18.2	13.6	13.3	13.8
타인 의식하지 않고 구매					
매우 그렇다	2.3	1.8	2.5	2.3	2.9
그렇다	37.7	32.0	39.7	38.1	41.5
그렇지 않다	44.4	46.7	43.7	45.0	42.1
전혀 그렇지 않다	15.5	19.4	14.2	14.6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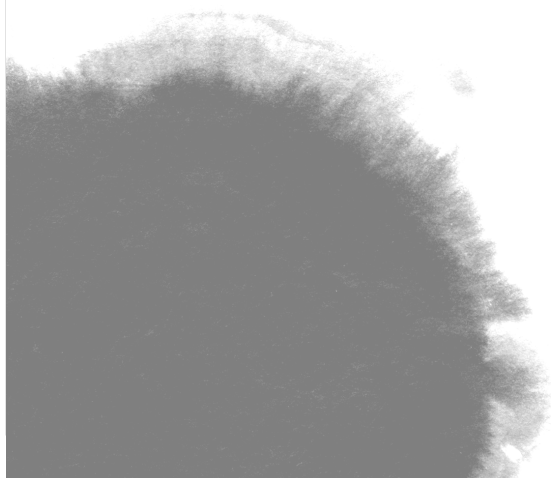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표 4-14〉 응답자의 소비트렌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모바일 기기 구매					
매우 그렇다	1.7	1.1	1.9	1.7	2.2
그렇다	14.5	8.7	16.4	13.7	19.6
그렇지 않다	40.8	37.2	42.0	41.6	42.5
전혀 그렇지 않다	43.1	53.0	39.7	43.0	35.8
가족·자녀를 위한 소비					
매우 그렇다	11.9	9.8	12.6	12.6	12.6
그렇다	67.2	64.1	68.2	65.3	71.5
그렇지 않다	18.2	23.0	16.6	19.4	13.4
전혀 그렇지 않다	2.8	3.1	2.6	2.8	2.5
친환경제품 구매					
매우 그렇다	2.0	1.6	2.1	2.3	2.0
그렇다	31.3	27.9	32.5	29.1	36.4
그렇지 않다	53.3	54.1	53.0	55.3	50.2
전혀 그렇지 않다	13.4	16.3	12.4	13.3	11.3
인터넷동호회 취미활동					
매우 그렇다	1.2	0.4	1.4	1.3	1.6
그렇다	9.3	4.9	10.8	9.3	12.5
그렇지 않다	44.5	40.4	45.9	45.2	46.7
전혀 그렇지 않다	45.0	54.3	41.9	44.2	39.2
40대 이후 취미생활					
매우 그렇다	1.9	1.1	2.1	1.7	2.6
그렇다	24.5	21.4	25.6	24.3	27.0
그렇지 않다	50.1	49.4	50.3	51.6	48.7
전혀 그렇지 않다	23.5	28.1	22.2	22.3	21.6
다른나라 상품에 관심					
매우 그렇다	3.7	3.4	3.9	3.5	4.3
그렇다	29.2	26.2	30.3	28.5	32.3
그렇지 않다	46.0	45.6	46.1	47.0	45.1
전혀 그렇지 않다	21.0	24.8	19.7	21.1	1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05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제5장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본 장에서는 신노년층이 일과 여가활동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둘러싼 행태와 욕구를 세 대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경제활동실태와 40대 이후의 퇴직 현황, 노년기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사회참여와 관련해서는 여가활동과 단체활동의 현황과 노후생활에서의 이들 활동의 위상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의 노인교육과 노후 생활 컨설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이들이 노년기 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을 것이다.

제1 절 경제활동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전세대(전후세대)의 경제활동 경험(과거 포함)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95.4%, 전후세대는 92.8%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경험 여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내에서는 전기(95.0%), 후기(95.9%)로 나타나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후기가 조금 더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일하지 않는다는 응

답이 베이비붐 세대 19.4%, 전후세대 25.0%로 나타나 전후세대(고령자 이전 출생자)보다는 베이비붐 세대가 현업에 더 종사하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는 전기 21.3%, 후기 17.1%의 분포를 나타내, 전기보다는 후기베이비 부머가 더 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직종이 과거에 했던 직종들과 유사한지를 살펴본 결과, 베이비 부머의 경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같다는 응답이 51.7%, 전후세대의 경우 45.8%로 두 그룹 모두 절반 정도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가장 오래한 일을 이어서 해오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후기 55.0%, 전기 48.9%로 나타나, 후기베이비붐세대의 비율이 더 높긴 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40대 이후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는 있음 30.3%, 없음 69.7%였으며, 전후세대는 있음 41.1%, 없음 58.9%의 분포를 나타냈다. 두 그룹 모두 없다는 응답이 높긴 했으나, 전후세대의 경우 그 비율이 약 40%를 넘어서서 베이비 부머보다는 은퇴 경험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내에서는 40대 이후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후기 25.0%, 전기 34.8%로 나타나, 같은 베이비붐 그룹이지만 그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퇴 경험자의 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베이비 부머내에서도 그 비율에서 차이가 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이 약 50대 중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1〉 응답자의 경제활동 경험 여부 및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 40대 이후 일을 그만둔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경제활동 경험					
있음	94.8	92.8	95.4	95.0	95.9
없음	5.2	7.2	4.6	5.0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현재의 업무종사 현황					
가장 오래한 일과 다름	21.1	19.8	20.2	21.1	19.3
가장 오래한 일과 유사	5.1	3.8	5.3	5.1	5.6
가장 오래한 일과 같음	51.5	49.4	54.2	51.5	57.4
현재 일하지 않음	22.4	27.0	20.3	22.4	17.8
40대 이후 그만둔 경험					
있음	33.0	41.1	30.3	34.8	25.0
없음	67.1	58.9	69.7	65.2	7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3,837)	(948)	(2,890)	(1,552)	(1,337)

주: 1)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의 최장종사직종을 살펴본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16.6%), 사무종사자(14.8%), 단순노무종사자(14.4%) 순이었으며, 전후세대는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17.8%), 단순노무 종사자(1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4.5%) 순이었다. 두 그룹간 가장 큰 빈도차이를 보인 직종은 사무종사직과 농림어업 숙련직으로, 베이비 부머는 사무종사직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전후세대는 농림어업 숙련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베이비 부머 내에서 살펴보면, 다른 비율은 서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전기는 후기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전기 7.7%, 후기 4.2%), 후기는 전기에 비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아(전기 6.9%, 후기 12.4%),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농림 관련 직종보다는 사무직 비율이 더 높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나 전후세대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직의 비율이 높으나(베이비붐 세대 41.1%, 전후세대, 29.6%), 베이비 부머의 상용직 종사비율이 더 높다. 전후세대는 베이비 부머와 비교했을 때, 기타 다른 종사상지위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 부머 8.3%, 전후세대 13.0%).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전기와 후기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기보다는 후기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각각 후기 45.9%, 전기 36.9%).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직보다는 기타 직위(무급가족종사자)로 더 많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과 재취업의 유형과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종에서의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이 10년 이상 20년 이하(36.9%)이며 20년 이상 종사한 비율이 32.0%인 반면, 전후세대는 20년 이상이 49.1%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베이비 부머 내에서도 전기 베이비 부머의 37.5%와 후기 베이비 부머의 25.5%가 2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일자리 시장에 머무른 햇수가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응답자의 최장종사 직종 관련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가장 오래 했던 일					
관리자	4.5	4.3	4.6	4.5	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0	7.5	9.4	6.9	12.4
사무 종사자	12.9	7.0	14.8	13.0	17.0
서비스 종사자	11.7	10.4	12.2	13.6	10.5
판매 종사자	14.1	14.3	14.1	14.6	1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2	14.5	6.1	7.7	4.3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6.9	17.8	16.5	16.4	16.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7.2	9.1	6.5	7.4	5.5
단순노무 종사자	14.5	14.6	14.4	15.1	13.7
군인	1.1	0.6	1.2	0.6	1.9
기타	0.1	0.0	0.1	0.1	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38.3	29.6	41.1	36.9	45.9
임시직 임금근로자	10.4	10.0	10.5	9.3	11.7
일용직 임금근로자	12.2	13.5	11.7	13.2	10.0
고용주	8.4	9.1	8.2	8.7	7.7
단독자영업자	21.2	24.8	20.0	21.9	17.8
무급가족종사자	9.5	13.0	8.3	9.9	6.4
기타	0.2	0.0	0.2	0.1	0.4
종사기간					
5년 미만	11.0	8.9	11.7	11.0	12.5
5년~10년 이하	18.0	13.9	19.4	17.3	21.8
10년~20년 이하	34.7	28.0	36.9	34.1	40.2
20년~30년 이하	28.6	30.8	27.9	30.8	24.5
30년 이상	7.6	18.3	4.1	6.7	1.0
계 (명) ¹⁾	100.0 (3,837)	100.0 (948)	100.0 (2,890)	100.0 (1,551)	100.0 (1,338)

주: 1) 경제활동 경험에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 제외.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와 전후 세대 모두 단순노무자가 가장 많고(베이비 붐 세대 17.5%, 전후세대 19.5%)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조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후세대의 경우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6.8%)로 매우 높은 반면 베이비 부머는 6.6%에 불과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 부머 내에서도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차이가 나타나,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직종 차이를 보였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는 상용직 임금근로자(31.9%)가 가장 많았으나, 전후세대는 단독자영업자(28.8%)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퇴직 및 그 이후 개인사업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는 두 그룹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후기 36.1%, 전기 28.1%)로 나타났다.

종사 기간을 살펴보면, 전후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 모두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각각 28.2%,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30년 이상의 경우 전후세대는 20.2%가 차지하는 반면, 베이비 붐 세대는 4.4%만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는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29.7%로 가장 높은 반면, 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28.6%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5-3〉 응답자의 현재 종사 직종 관련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현재 종사 업무 유형					
관리자	7.7	6.3	8.0	6.4	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6	6.4	9.3	6.8	11.9
사무 종사자	6.0	3.3	6.8	5.1	8.6
서비스 종사자	13.2	12.2	13.5	15.6	11.3
판매 종사자	14.0	13.4	14.2	14.4	14.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9	16.8	6.6	8.1	4.9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3.1	11.3	13.6	13.8	13.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9.5	10.6	9.1	10.3	7.8
단순노무 종사자	17.9	19.5	17.5	18.6	16.3
군인	0.9	0.0	1.1	0.6	1.7
기타	0.2	0.1	0.2	0.3	0.1
현재 업무의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29.4	21.2	31.9	28.0	36.2
임시직 임금근로자	13.1	12.1	13.4	12.8	14.0
일용직 임금근로자	15.5	17.3	15.0	16.5	13.4
고용주	8.6	8.2	8.8	9.0	8.6
단독자영업자	24.0	28.8	22.5	24.0	20.9
무급가족종사자	9.3	12.5	8.3	9.6	6.8
기타	0.1	0.0	0.1	0.1	0.1
종사기간					
5년 미만	22.5	21.2	22.9	21.4	24.6
5년~10년 이하	17.2	13.8	18.3	17.4	19.3
10년~20년 이하	24.9	20.6	26.2	24.0	28.6
20년~30년 이하	27.3	24.2	28.2	29.7	26.5
30년 이상	8.1	20.2	4.4	7.5	1.0
계 (명) ¹⁾	100.0 (2,996)	100.0 (693)	100.0 (2,302)	100.0 (1,204)	100.0 (1,099)

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 제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일에 대한 만족도, 일 지속욕구,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베이비 부머와 전후세대 모두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46.1%, 43.3%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그렇다라

는 응답이 후기 45.0%, 전기 47.1%로 나타나 큰 차이 없이,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서는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 모두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67.2%, 70.7%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후기 66.1%, 전기 68.2%로 나타났다. 미세한 빈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의 지속욕구가 높아졌다.

일의 불안정성에 대하여서는 베이비 부머와 전후세대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50.7%, 46.3%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전기 51.3%, 후기 49.9%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 응답자의 현재 일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현재 일에 만족					
매우 그렇다	9.1	7.8	9.6	7.3	12.0
그렇다	45.5	43.3	46.1	47.1	45.0
보통이다	24.8	25.2	24.7	24.5	24.8
그렇지 않다	18.1	19.9	17.6	18.8	16.2
전혀 그렇지 않다	2.5	3.9	2.1	2.2	2.0
건강한 한 계속 할 것					
매우 그렇다	10.0	8.3	10.6	9.8	11.4
그렇다	68.0	70.7	67.2	68.2	66.1
보통이다	8.9	8.5	8.9	9.0	8.8
그렇지 않다	11.3	10.7	11.5	11.2	11.7
전혀 그렇지 않다	1.9	1.8	1.9	1.7	2.0
언제까지 할지 불안함					
매우 그렇다	2.7	3.4	2.6	1.8	3.4
그렇다	26.3	28.4	25.7	25.8	25.6
보통이다	13.6	13.6	13.6	14.1	12.9
그렇지 않다	49.6	46.3	50.7	51.3	49.9
전혀 그렇지 않다	7.7	8.3	7.5	6.9	8.2
계 (명) ¹⁾	100.0 (2,996)	100.0 (693)	100.0 (2,303)	100.0 (1,203)	100.0 (1,100)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 제외.

현재 일을 그만 둘 경우의 대비책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와 전후세대 모두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83.4%, 85.3%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적절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베이비 부머 그룹에서도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후기 81.1%, 전기 85.4%로 높게 나타났다. 단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베이비 부머는 창업준비 아이템 및 자금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6.0%), 전후세대는 취미·여가 개발(7.7%)로 나타나 그 양상이 조금 달랐다. 베이비 부머 내에서도 차이가 있어, 후기는 창업준비 아이템 및 자금(7.7%)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기에서는 취미·여가개발(5.6%)이 높게 나타나 차이가 나타났다.

〈표 5-5〉 응답자의 현재 일을 그만둘 경우 대비책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창업준비(아이템, 자금)	5.7	4.7	6.0	4.5	7.7
직업교육 참여	2.0	0.9	2.3	2.2	2.5
네트워크 관리	1.8	1.2	2.0	1.8	2.1
취미·여가 개발	6.2	7.7	5.7	5.6	5.9
특별한 준비 없음	83.3	85.3	83.4	85.4	81.1
기타	0.5	0.2	0.5	0.5	0.6
계 (명) ¹⁾	100.0 (2,996)	100.0 (693)	100.0 (2,302)	100.0 (1,204)	100.0 (1,098)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퇴직 경험(최장종사직종에서 40대 이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관계(배우자·자녀·부모) 및 생활 만족도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의 관계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베이비 부머나 전후세대나 가장 높게 나타났고(각각 59.6%, 59.3%),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변화가 없다는 가장 높았으나(각각 후기 59.4%, 전기 59.7%),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으로 대부분의 그룹에서 나빠졌다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 이후 배우자의 관계가 변화 없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베이비 부머나 전후세대 모두 변화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70.4%, 78.0%),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변화없다라는 응답이 후기 69.1%, 전기 71.1%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좋아졌다고 나타나, 퇴직이후 자녀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베이비 부머나 전후세대 모두 변화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80.5%, 85.0%),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변화없다라는 응답이 후기 76.7%, 전기 82.8%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좋아졌다고 나타나, 퇴직이후 부모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다른 관계만족도와는 달리 나빠졌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베이비 부머의 39.2%, 전후세대 41.7%로 나타나, 전후세대가 더 삶의 만족도가 나빠졌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는 후기 44.6%, 전기 35.8%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젊은 연령에 퇴직을 경험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응답자의 일을 그만 둔 후의 가족관계 및 생활만족도 변화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배우자와의 관계 ¹⁾					
매우 좋아졌다	0.9	0.0	1.3	1.1	1.8
좋아졌다	15.7	12.6	17.1	18.6	14.2
변화없다	59.5	59.3	59.6	59.6	59.5
나빠졌다	22.0	26.2	20.2	18.6	23.0
매우 나빠졌다	1.8	1.9	1.9	2.1	1.5
자녀와의 관계 ²⁾					
매우 좋아졌다	0.6	0.0	0.9	1.2	0.5
좋아졌다	17.2	14.0	18.7	17.9	20.0
변화없다	72.7	78.0	70.4	71.1	69.1
나빠졌다	8.5	7.7	8.9	8.2	10.1
매우 나빠졌다	0.9	0.4	1.2	1.7	0.4
부모와의 관계 ³⁾					
매우 좋아졌다	0.5	0.2	0.7	0.9	0.4
좋아졌다	10.5	8.0	11.5	9.9	14.1
변화없다	81.7	85.0	80.4	82.7	76.5
나빠졌다	6.5	5.7	6.8	5.7	8.7
매우 나빠졌다	0.8	1.1	0.7	0.9	0.4
전반적인 생활만족 ⁴⁾					
매우 좋아졌다	0.6	0.0	0.8	0.9	0.6
좋아졌다	13.5	11.1	14.5	16.7	11.1
변화없다	36.6	38.7	35.6	35.8	35.3
나빠졌다	39.9	41.7	39.2	35.8	44.6
매우 나빠졌다	9.4	8.6	9.9	10.8	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⁴⁾	(1,264)	(390)	(873)	(539)	(334)

주: 1) 최장종사 직종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최장종사 직종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중 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최장종사 직종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중 생존한 (배우자)부모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4) 최장종사 직종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경제활동 관련 욕구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65세 이후 일을 하고 싶은지,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희망 근로조건과 희망활동유형은 무엇인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베이비 부머의 63.9%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36.1%는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일을 하겠다고 답한 대상자들은 그 이유를 소득을 위해서(58.5%)라고 말했으며, 소득 외에는 건강을 위해서(16.2%), 자기발전을 위해서(14.4%), 여가시간 활용(7.6%), 사회/타인을 돕기 위해서(3.4%) 순으로 응답했다. 이를 통해 약 절반 정도 이상의 응답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 근로조건으로는 주5일 풀타임(31.3%)이 가장 많았으며, 주 5일 파트타임(27.6%), 일수/시간 구애 없이 근무(23.2%)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활동 유형은 이전과 똑같거나(35.3%), 유사한 일(34.7%)이 높았으나, 전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30.0%로 나타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69.3%)를 가장 많이 택해, 노후에 여가를 즐기는 삶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세대의 경우도 비슷한 응답유형을 보이고 있어 세대 간에 노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욕구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응답자중 소득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58.5%로 전후세대의 65.5%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진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어 소득창출을 위해 일을 하려는 사람이 감소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는데 특히 베이비 붐세대의 경우는 69.3%로 전후세대의 60.0%에 비하여 9.3%p가 높아 전 세대에 비하여 여가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7〉 응답자의 노후의 경제활동 관련 욕구 및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65세 이후 일할지 여부					
할 것이다	64.0	64.5	63.9	64.2	63.5
안 할 것이다	36.0	35.5	36.1	35.8	36.5
일을 하려는 이유 ¹⁾					
소득을 위해	60.3	65.5	58.5	59.1	57.7
건강을 위해	16.3	16.7	16.2	16.5	15.8
자기발전을 위해	13.4	10.4	14.4	14.5	14.2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7.0	5.4	7.5	7.2	7.9
사회/타인을 돕기 위해	3.0	2.1	3.4	2.7	4.3
기타					
희망 근로조건 ¹⁾					
주 5일 풀타임	30.1	27.0	31.1	30.6	31.6
주 5일 파트타임	27.8	28.5	27.6	26.5	28.9
주중 2~3일 풀타임	10.4	10.9	10.2	9.9	10.6
주중 2~3일 파트타임	7.0	6.2	7.3	6.8	7.9
주말 근무	0.8	1.6	0.6	0.6	0.6
일수/시간 구매 없이 근무	23.8	25.7	23.2	25.6	20.3
기타					
원하는 활동 유형 ¹⁾					
이전과 똑같은 일	36.5	39.9	35.3	38.4	31.6
이전과 유사한 일	34.2	32.9	34.7	34.0	35.5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	29.3	27.2	30.0	27.7	32.8
기타	0.0	0.0	0.1	0.0	0.1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²⁾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1.1	1.4	1.0	1.2	0.8
일할 필요가 없어서	4.4	5.2	4.1	4.1	4.1
체면이 손상되므로	0.6	1.1	0.5	0.3	0.6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67.0	60.0	69.3	65.9	73.1
가족 내 역할이 있어서	16.6	15.2	17.1	18.8	15.1
기타	10.3	17.1	8.0	9.6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주: 1) 65세 이후에 일을 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65세 이후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노후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베이비붐 세대와 전후세대 모두 중요하다(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가 각각 70.9%, 67.9%로 나타나, 노후의 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 내에도 중요하다(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후기 71.7%, 전기 70.1%로 나타나, 역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응답자의 노후의 일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매우 중요하다	13.1	12.3	13.4	12.3	14.6
중요하다	57.0	55.6	57.5	57.8	57.1
보통이다	21.1	22.6	20.6	20.8	20.3
중요하지 않다	8.3	8.8	8.1	8.5	7.7
전혀 중요하지 않다	0.5	0.7	0.4	0.6	0.3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2)	100.0 (1,393)

제2절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여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가활동 내용, 빈도, 동행인을 살펴보았다. 여가활동 순위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 및 전후세대의 경우 운동, 친목모임 순이었으며,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도 전기와 후기 모두 운동, 친목모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운동, 등산, 친목모임, 책읽기 정도로 응답이 몰려있어, 더 다양한 여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여가활동의 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주 1회 이상인 경우가 60% 이상을 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의 동행인을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약 40% 전후가 혼자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후기 베이비 부머, 전기

베이비 부머 모두 혼자서라는 응답이 각각 43.6%,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친구와 함께(각각 33.0%, 29.0%)로 나타났다. 전후세대 역시 혼자(47.4%), 친구와 함께(32.3%) 순이다.

〈표 5-9〉 응답자의 여가활동 실태(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책읽기	9.6	8.3	10.0	10.0	10.0
글쓰기	0.4	0.6	0.3	0.2	0.4
영화감상	3.6	2.3	4.0	3.5	4.5
전시회 관람	0.2	0.0	0.3	0.2	0.3
뮤지컬 및 연극 감상	0.3	0.2	0.3	0.2	0.4
노래 부르기	1.8	1.4	1.9	1.8	2.0
악기 연주	0.6	0.7	0.6	0.4	0.8
음악듣기	3.3	2.4	3.6	3.8	3.3
춤추기	0.5	1.1	0.3	0.1	0.5
바둑, 장기, 체스	1.5	1.6	1.5	2.1	0.7
화투, 카드	0.8	1.1	0.7	0.6	0.8
여행	1.6	2.0	1.5	1.2	1.9
낚시	2.7	1.8	2.9	2.7	3.1
운동(스포츠)	22.7	23.0	22.6	21.9	23.4
스포츠 관람	1.9	3.2	1.5	1.2	1.9
등산	12.6	10.7	13.2	12.3	14.3
공예	0.3	10.7	0.2	0.3	0.1
다도	0.1	0.0	0.1	0.1	0.0
사진찍기	0.3	0.6	0.2	0.2	0.2
교양강좌 수강	0.5	0.2	0.6	0.6	0.7
그림그리기	0.2	0.1	0.2	0.1	0.3
서예	0.4	0.6	0.4	0.3	0.4
라디오 듣기	3.8	5.3	3.3	3.7	2.8
컴퓨터 및 인터넷	3.4	2.3	3.8	3.6	4.2
게임	0.3	0.4	0.2	0.1	0.3
친목모임	8.7	9.6	8.3	9.0	7.6
화초 가꾸기	3.1	3.3	3.0	3.6	2.1
산책	14.8	16.4	14.2	15.9	12.3
기타	0.3	0.2	0.4	0.2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890)	(977)	(2,913)	(1,564)	(1,349)

〈표 5-10〉 응답자의 여가활동 빈도 및 동행인(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여가활동 빈도					
주 4회 이상	34.6	36.0	34.2	35.8	32.3
주 2~3회	28.5	31.5	27.5	27.8	27.1
주 1회	15.0	11.3	16.2	15.1	17.5
2주 1회	6.5	6.1	6.6	5.6	7.8
월 1회	11.8	10.8	12.1	12.3	12.0
월 1회 미만	3.6	4.3	3.4	3.4	3.4
동행인					
혼자서	46.9	47.4	46.8	43.6	50.0
가족과 함께	15.8	16.5	15.6	16.4	14.8
친구와 함께	31.2	32.3	30.8	33.0	29.0
동호회 활동	5.8	3.7	6.5	6.7	6.4
기타	0.3	0.1	0.3	0.3	0.3
계 (명) ¹⁾	100.0 (3,890)	100.0 (977)	100.0 (2,913)	100.0 (1,562)	100.0 (1,352)

주: 1)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2순위와 3순위에 관한 내용은 <부표 6> 참조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베이비 부머와 전후세대 모두 여행을 선택했으며(37.0%, 34.2%), 베이비 부머 그룹 내 후기와 전기 그룹 모두 여행(37.3%, 36.8%)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즐기고 있는 여가의 1순위로 여행을 답한 비율이 베이비 부머 1.5%, 전후세대 2.0%, 후기베이비 부머 1.9%, 전기베이비 부머 1.1%인 것과 비교해볼 때 분포의 차이가 낮다. 특히 여행쪽에 30% 가까이의 응답이 몰려, 여행과 관련된 다른 여가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등산으로 베이비 부머 13.0%, 전후세대, 10.0%, 후기베이비 부머 12.0%, 전기베이비 부머 13.9%로 나타났다.

〈표 5-11〉 응답자의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1순위)¹⁾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책읽기	3.3	3.3	3.3	2.7	3.9
글쓰기	0.9	1.4	0.7	0.5	1.0
영화감상	1.2	0.7	1.4	1.4	1.4
전시회 관람	0.5	0.1	0.7	0.8	0.5
뮤지컬 및 연극 감상	1.3	0.4	1.6	1.4	1.9
노래 부르기	3.5	4.9	3.0	3.1	2.9
악기 연주	1.7	1.1	1.9	1.4	2.6
음악듣기	1.1	1.9	0.9	1.1	0.6
춤추기	1.3	2.0	1.1	1.2	1.0
바둑, 장기, 체스	1.2	1.1	1.3	1.3	1.3
화투, 카드	0.6	0.7	0.6	0.8	0.3
여행	36.3	34.2	37.0	36.8	37.3
낚시	6.3	7.4	6.0	5.9	6.0
운동(스포츠)	10.1	8.1	10.8	10.3	11.5
스포츠 관람	0.5	0.5	0.5	0.4	0.5
등산	12.3	10.0	13.0	13.9	12.0
공예	0.6	0.6	0.5	0.4	0.7
다도	0.1	0.1	0.2	0.2	0.1
사진찍기	1.0	0.8	1.1	1.1	1.0
교양강좌 수강	1.4	1.4	1.3	1.2	1.5
그림그리기	0.7	0.5	0.7	0.5	0.9
서예	1.2	1.8	1.0	1.1	0.8
라디오 듣기	0.3	0.6	0.3	0.4	0.1
컴퓨터 및 인터넷	1.4	2.6	1.0	1.1	0.9
게임	0.1	0.1	0.1	0.1	0.1
친목모임	3.7	4.9	3.3	3.7	2.8
화초 가꾸기	3.7	4.3	3.4	3.9	2.9
산책	3.7	4.5	3.5	3.5	3.4
기타	0.2	0.3	0.2	0.2	0.2
계 (명)	100.0 (4,046) ²⁾	100.0 (1,022)	100.0 (3,023)	100.0 (1,630)	100.0 (1,393)

주: 1) 2순위와 3순위는 <부표 7> 참조

2) 무응답 4명을 제외한 결과임.

여가활동의 중요도를 현재와 노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현재 삶에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의 경우 중요하다는 응답(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이 69.4%, 전후세대 65.9%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노후 삶에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3.7%, 78.8%로 나타나 노후에서의 여가의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 살펴보면, 중요하다 응답의 비율이 후기 73.4%, 전기 65.9%로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삶에서의 여가의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였으며, 노후에서의 여가 중요도 역시 중요하다는 응답이 후기 87.3%, 전기 80.7%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더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응답자가 생각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현재의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8.0	5.9	8.8	8.0	9.7
중요하다	60.4	60.0	60.6	57.9	63.7
보통이다	23.5	26.0	22.6	24.9	20.0
중요하지 않다	7.4	7.6	7.3	8.3	6.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7	0.4	0.7	0.9	0.5
노후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15.6	13.2	16.4	14.7	18.5
중요하다	66.8	65.6	67.3	66.0	68.8
보통이다	15.2	18.3	14.1	17.0	10.7
중요하지 않다	2.4	2.9	2.2	2.3	2.1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0.0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여부, 활동기간, 활동빈도, 참여경로, 참여 이유, 노후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비참여자가 베이비 부머 92.7%, 전후세대 94.4%였다. 베이비 부머 내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후기 5.9%, 전기 8.6%로 나타나, 전기 그룹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원봉사참여비율이 전후세대보다는 높으며, 베이비 부머 내에서는 연령대가 높은(퇴직 등의 이유로 삶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층) 그룹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 그룹은 1년~5년이 38.3%로 가장 많았으나, 전후세대는 5년~10년이 32.0%로 가장 높았으며, 15년 이상도 30.4%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참여자 중에서는 전후세대가 더 오래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는 1년~5년이 각각 후기 39.0%, 전기 37.9%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빈도는 월 1회가 모든 그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와 전후세대 모두 스스로가 52.3%, 61.2%를 차지해 높게 나타났으나, 주변인의 권유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는 45.0%, 전후세대는 34.1%로 나타나, 베이비 부머그룹의 경우 주변인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 살펴보면, 후기 베이비 부머는 주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것이 54.2%로 가장 높은 반면, 전기 베이비 부머 그룹은 스스로가 57.6%를 차지해, 연령대가 낮은 베이비 부머일수록 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이유로 베이비 부머는 보람있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28.6%)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후세대 역시 같은 이유(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후기 베이비 부머는 사회적 책임감/의무감 31.3%, 전기 베이비 부머는 보람있는 여가 33.3%로 나타나, 전기 베이비 부머는 자원봉사를 여가로써 활용하고 있는 반면, 후기 베이비 부머는 이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로 갈수록 자원봉사를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

는 사회적 문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에 대해 현재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물어보았을 때, 비록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긴 하였으나,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50%정도로 비슷하였다. 이는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90%대인 것에 비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노후자원봉사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5-13〉 응답자의 자원봉사단체 활동 참여 여부, 기간, 빈도, 참여경로 및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자원봉사단체 활동 참여					
참여	6.9	5.6	7.3	8.6	5.9
비참여	93.1	94.4	92.7	91.4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활동 기간 ¹⁾					
1년 이하	7.9	0.8	9.9	11.4	7.3
1년~5년	34.8	21.7	38.3	37.9	39.0
5년~10년	25.5	32.0	23.9	23.6	24.4
10년~15년	15.2	15.1	15.3	12.9	19.5
15년 이상	16.5	30.4	12.6	14.3	9.8
활동 빈도 ¹⁾					
주 4회 이상	3.1	3.8	3.1	2.8	3.7
주 2~3회	7.1	9.2	6.7	7.8	4.9
주 1회	22.5	23.2	22.4	19.9	26.8
2주 1회	16.3	17.1	16.1	15.6	17.1
월 1회	36.8	35.8	36.8	36.9	36.6
월 1회 미만	14.3	11.1	14.8	17.0	11.0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참여 경로 ¹⁾					
스스로	54.0	61.2	52.3	57.6	43.4
주변인의 권유	42.6	34.1	45.0	39.6	54.2
대중매체 및 홍보	2.7	4.7	1.8	2.2	1.2
기타	0.7	0.0	0.9	0.7	1.2
참여 이유 ¹⁾					
보람있는 여가	29.6	32.2	28.6	33.3	20.5
건강을 위해	3.8	2.6	4.0	6.4	0.0
사회적 책임감/의무감	20.4	24.4	19.2	12.1	31.3
나의 능력 활용	13.4	11.4	13.8	16.3	9.6
새로운 경험	8.7	3.1	10.3	12.1	7.2
대인관계 확장	11.4	13.4	11.2	9.2	14.5
나 자신의 성숙	12.7	12.8	12.9	10.6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0)	(57)	(222)	(140)	(82)

주: 1) 자원봉사단체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5-14〉 응답자의 자원봉사단체 활동 노후참여의사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노후에 활동 참여 의지					
참여하고 싶다	41.8	35.4	44.0	43.3	44.7
참여하고 싶지 않다	58.2	64.6	56.0	56.7	5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정치사회단체활동의 경우 참여율이 매우 낮으며 노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응답자도 3.4%에 불과하다.

〈표 5-15〉 응답자의 정치사회단체 활동 참여 실태 및 노후참여의사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정치사회단체 활동 참여	1.8	1.7	1.8	1.9	1.8
비참여	98.2	98.3	98.2	98.1	98.3
노후에 활동 참여 의사	4.6	3.5	5.0	5.0	5.0
참여하고 싶지 않다	95.4	96.6	95.0	95.1	95.0

〈표 5-16〉 응답자의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현재의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3.4	3.3	3.4	2.3	4.7
중요하다	36.8	33.5	37.8	39.3	36.2
보통이다	34.3	34.9	34.0	33.5	34.8
중요하지 않다	23.1	26.5	22.0	22.3	21.6
전혀 중요하지 않다	2.5	1.9	2.7	2.7	2.7
노후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4.6	4.1	4.8	4.4	5.2
중요하다	43.1	38.3	44.7	44.8	44.6
보통이다	31.0	32.2	30.6	30.0	31.5
중요하지 않다	19.6	23.8	18.7	18.9	17.3
전혀 중요하지 않다	1.6	1.6	1.6	1.8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노후에 필요한 노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노년기에 도움이 될 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후기 베이비 부머 61.3%, 전기 베이비 부머 66.5%, 전후세대 69.5%),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리교육(후기 17.3%, 전기 14.1%, 전후세대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응답자가 선호하는 노후교육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1순위					
건강관리교육	65.4	69.5	64.1	66.4	61.3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15.1	13.8	15.5	14.1	17.2
일반교양교육	1.7	1.4	1.9	1.5	2.2
정보화교육	2.4	1.7	2.6	2.9	2.2
자원봉사교육	3.8	2.8	4.1	3.7	4.6
취업 및 직업교육	3.8	4.2	3.7	3.7	3.6
노후준비교육	4.7	4.6	4.8	4.8	4.7
노후경제교육	2.8	1.6	3.3	2.5	4.2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2	0.4	0.2	0.2	0.1
기타	0.0	0.0	0.0	0.1	0.0
2순위					
건강관리교육	16.1	16.5	15.9	16.4	15.4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32.2	31.9	32.3	33.1	31.4
일반교양교육	5.6	4.4	6.0	5.7	6.4
정보화교육	7.2	6.0	7.6	7.2	8.1
자원봉사교육	9.4	8.5	9.7	8.2	11.5
취업 및 직업교육	5.9	5.8	5.9	5.7	6.2
노후준비교육	18.1	21.8	16.8	18.3	15.0
노후경제교육	5.3	4.9	5.4	5.3	5.6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2	0.2	0.2	0.1	0.4
3순위					
건강관리교육	8.2	7.2	8.6	7.1	10.3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19.8	24.6	18.2	18.8	17.4
일반교양교육	10.4	9.7	10.6	10.8	10.3
정보화교육	10.2	10.4	10.1	10.4	9.8
자원봉사교육	11.6	9.5	12.3	13.4	11.0
취업 및 직업교육	4.7	3.8	5.0	4.8	5.1
노후준비교육	24.0	24.9	23.7	23.1	24.4
노후경제교육	10.6	9.5	11.0	10.9	11.1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4	0.4	0.4	0.6	0.2
기타	0.1	0.1	0.1	0.0	0.3
계 (명) ¹⁾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16)	100.0 (1,383)

주: 1) 1,2,3순위별 무응답 제외.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를 받겠는지를 알아본 결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이 50%대를 나타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베이비 부머의 경우 있다는 의견이 43.9%로 전후세대의 응답(36.5%)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그룹 내에서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보다 받겠다는 응답이 높았다(각각 후기 45.5%, 전기 42.6%).

지불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모든 그룹에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응답자의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의향 및 지불가능비용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서비스 이용 의향					
있다	42.1	36.5	43.9	42.6	45.5
없다	58.0	63.5	56.1	57.4	54.5
지불 가능 비용 ¹⁾					
무료라면 이용	65.8	71.6	64.1	67.3	60.7
5만원 미만	24.0	21.3	24.7	23.5	26.2
5~10만원 미만	6.9	4.3	7.6	6.8	8.5
10~15만원 미만	1.3	1.6	1.2	0.7	1.7
15~20만원 미만	1.0	0.8	1.1	0.6	1.6
20만원 이상	1.1	0.5	1.3	1.2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주: 1)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평생교육 실시기관의 조건과 관련하여 접근성, 비용, 강사의 질, 교육기관의 수준 등의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평생교육기관의 접근성, 비용, 강사의 질, 교육수준 모두 베이비 부머와 전후세대, 전기베이비 부머와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80%대로 나타났다.

〈표 5-19〉 평생교육 실시기관의 조건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접근성(거리 등)					
매우 중요함	19.6	19.4	19.7	18.5	21.1
중요함	57.4	58.2	57.2	57.7	56.2
보통	16.2	16.7	16.0	16.7	15.3
별로 중요하지 않음	6.6	5.6	7.0	7.0	7.0
전혀 중요하지 않음	0.1	0.1	0.1	0.2	0.1
비용					
매우 중요함	33.4	36.4	32.4	32.6	32.1
중요함	53.7	51.4	54.5	54.6	54.5
보통	11.3	11.0	11.5	11.1	11.8
별로 중요하지 않음	1.4	1.2	1.5	1.4	1.6
전혀 중요하지 않음	0.1	0.1	0.1	0.2	0.0
강사의 질					
매우 중요함	36.1	33.3	37.0	37.3	36.7
중요함	57.1	58.5	56.6	55.9	57.5
보통	6.3	7.6	5.8	5.9	5.7
별로 중요하지 않음	0.4	0.3	0.5	0.8	0.1
전혀 중요하지 않음	0.1	0.2	0.1	0.1	0.0
교육기관의 수준·질					
매우 중요함	29.0	27.5	29.6	28.5	30.8
중요함	59.6	58.8	59.8	60.5	59.0
보통	10.5	13.0	9.6	9.8	9.4
별로 중요하지 않음	0.8	0.5	1.0	1.1	0.8
전혀 중요하지 않음	0.1	0.2	0.1	0.1	0.0
기타					
매우 중요함	24.4	0.0	26.8	30.3	16.1
중요함	7.7	0.0	8.5	11.3	0.0
보통	33.9	100.0	27.3	15.1	65.1
별로 중요하지 않음	4.2	0.0	4.6	0.0	18.8
전혀 중요하지 않음	29.8	0.0	32.8	43.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2)	(1,393)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베이비 붐 세대는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높았으나, 전후세대는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응답이 49.6%로 나타나,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 간의 컴퓨터/인터넷 활용 정도에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는 후기의 경우 전혀 사용할 줄 모름은 17.6% 정도 였으나, 전기의 경우 31.8%를 차지해, 그룹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용불가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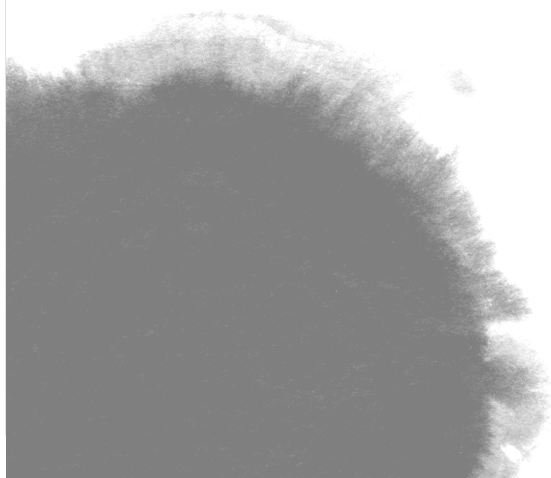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표 5-20〉 응답자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매우 능숙함	11.9	6.9	13.6	8.9	19.1
원하는 정보 검색 가능	29.5	18.8	33.2	30.4	36.4
원하는 정보 검색 어려움	27.1	24.7	28.0	28.9	26.9
전혀 사용할 줄 모름	31.4	49.6	25.3	31.8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4)

06

노후 가치관 및 정책인지도



제6장 노후 가치관 및 정책인지도

본장에서는 신노년층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정책인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과 관련된 가치관, 노후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대한 이들의 인지도와 제도활용 욕구, 장례와 죽음에 대한 태도이다.

제1절 노후 가치관

베이비 붐 세대의 약 절반인 51.7%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부양을 자녀 및 가족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응답률은 전후세대 59.0%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반면, 연금 등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은 19.1%로 전후세대의 12.4%보다 높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약 절반이 본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연금 등 사회보험이라는 응답도 약 30% 수준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기대는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 올 수록 더 커지고 있다.

한편,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으로 신노년층은 농어촌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응답률이 베이비 붐 세대 45.3%, 전후세대 51.5%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다음 선호는 중소도시 24.7%, 대도시 17.2%의 순이다. 전후세대의 경우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노후 주거지 중요조건으로는 베이비 붐 세대는 자연환경(47.3%)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사회적 소통(16.0%),

보건의료시설(15.9%)이다. 그러나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12.5%가 문화여가시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8.8%, 전후세대의 7.9%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표 6-1〉 응답자의 경제적 부양 의무 인식 및 노후 생활비 마련 방식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경제적 부양 의무					
본인	15.3	14.3	15.6	16.7	14.4
배우자	1.7	1.5	1.7	1.7	1.9
자녀 및 가족	53.6	59.0	51.7	50.6	53.0
연금 등 사회보험	17.4	12.4	19.1	18.8	19.5
국가	12.0	12.8	11.8	12.2	11.3
노후 생활비 마련 방식					
본인	49.3	49.9	49.1	47.4	51.2
배우자	9.1	7.7	9.5	10.0	8.9
자녀 및 가족	3.9	5.6	3.3	3.9	2.7
연금 등 사회보험	27.9	25.3	28.7	28.5	29.0
국가	9.9	11.6	9.3	10.2	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4)

〈표 6-2〉 응답자의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 주거지 선택조건, 동거 희망자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					
대도시	16.8	15.6	17.2	17.1	17.4
중소도시	23.6	20.4	24.7	23.9	25.8
농어촌(군지역)	46.9	51.5	45.3	44.5	46.2
자녀와 가까운 지역	8.9	8.8	8.9	9.6	8.1
노인전용 거주지	3.8	3.7	3.8	4.9	2.5
노후 주거지 중요 조건					
보건의료시설	16.3	17.6	15.9	15.1	16.9
문화여가시설	9.8	7.9	10.5	8.8	12.5
자연환경	48.0	49.9	47.3	46.8	48.1
자녀와의 거리	10.3	10.5	10.2	12.2	7.9
사회적 소통	15.5	13.9	16.0	17.2	14.6
기타	0.1	0.2	0.0	0.0	0.1
동거 희망자					
아들	2.9	2.9	2.9	3.2	2.7
딸	0.8	1.0	0.7	0.7	0.8
형편이 되는 자녀	2.5	2.4	2.5	2.7	2.3
부부끼리 혹은 혼자서	93.1	92.8	93.2	92.9	93.5
기타	0.7	1.0	0.6	0.6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4)

부모의 자녀부양시기로는 베이비 붐 세대는 41.5%가 결혼할 때까지, 29.6%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23.9%가 직장이 생길 때까지로 응답하고 있어,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이 전후세대의 19.9%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은 전후세대의 50.6%에 비하여 낮아서, 베이비 붐 세대는 전후세대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의 시기를 하향조정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할 때까지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표 6-3〉 응답자의 부모의 자녀 부양 시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학업을 마칠 때까지	27.1	19.9	29.6	26.6	33.1
성인이 되는 만 20세	3.3	3.6	3.2	2.7	3.7
직장이 생길 때까지	23.6	22.6	23.9	23.4	24.4
결혼할 때까지	43.8	50.6	41.5	44.7	37.7
손자녀 양육시까지	1.3	1.8	1.1	1.3	0.7
주거가 마련될 때까지	0.9	1.4	0.8	1.2	0.3
기타	0.1	0.2	0.1	0.1	0.1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1)	100.0 (1,396)

베이비 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경우 취미생활을 하면서가 압도적으로 1순위(42.3%), 다음이 소득창출(18.8%), 자원봉사(16.8%)인데, 이는 전후세대와 동일한 순위이다. 그러나 전후세대에 비하여 소득창출보다 자원봉사 쪽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의 취업/결혼으로 33.8%이며, 다음으로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자녀의 교육(25.6%), 본인의 건강(18.7%)이다. 이러한 관심사는 전후세대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기와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전기 베이비 부머는 자녀의 취업/결혼이(40.6%)가 가장 큰 관심사인 반면,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는 자녀의 교육(39.0%)이 더 큰 관심사이다.

전후세대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35.0%)과 자녀의 취업/결혼(34.8%)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하다. 생계비 마련이 주요관심사라는 응답은 후기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40.6%로 가장 높다.

〈표 6-4〉 베이비붐 세대가 바라는 노후 생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취미생활을 하면서	42.0	41.2	42.3	39.9	45.1
자기계발 활동을 하면서	7.0	5.8	7.5	6.9	8.2
자원봉사를 하면서	16.2	14.6	16.8	16.1	17.6
종교활동을 하면서	9.6	10.9	9.1	10.5	7.5
소득창출을 하면서	19.2	20.6	18.8	19.7	17.7
가사/손자녀 양육	2.6	2.9	2.5	3.1	1.7
아무 것도 하지 않고	3.3	4.1	3.0	3.9	2.1
기타	0.0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표 6-5〉 응답자의 주요 관심사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자녀 교육	20.3	4.5	25.6	14.1	39.0
자녀의 취업/결혼	34.0	34.8	33.8	40.6	25.8
생계비(가계) 마련	9.2	10.4	8.8	8.6	9.1
주택 구입	2.6	1.6	3.0	2.4	3.6
본인의 건강	22.8	35.0	18.7	23.1	13.5
여가 및 취미활동	2.3	3.1	2.1	2.3	1.9
노부모 부양	1.3	1.1	1.4	1.1	1.7
노후 준비	7.1	9.1	6.4	7.5	5.1
기타	0.3	0.5	0.3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노후생활의 어려움으로 예측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나 전후세대 모두 건강 및 기능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2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는 공통적으로 건강(45.1%)과 경제적 안정과 여유(40.6%)를 언급하고 있는데, 전후세대의 경우 건강이라는 응답률과 경제적 안정과 여유라는 응답률(49.6%와 34.4%)의 차이가 크다. 즉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6-6〉 응답자가 예측하는 노후 생활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배우자와의 관계	1.9	1.7	1.9	1.6	2.4
자녀와의 관계	1.6	0.6	1.9	1.6	2.2
친구와의 관계	0.3	0.1	0.3	0.3	0.3
건강 및 기능 악화	55.3	57.1	54.7	54.0	55.6
경제적 어려움	31.9	32.2	31.8	33.0	30.5
주거 문제	0.9	1.0	0.8	0.7	0.9
소외 및 고독감	4.1	3.5	4.3	4.8	3.7
무료함	4.0	3.7	4.1	4.0	4.2
기타	0.1	0.1	0.1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2)	(1,392)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1순위로 베이비 붐 세대는 45.1%가 건강을, 40.6%가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지적하고 있다. 제2순위에 있어서도 건강(35.5%)이 가장 높고 다음이 경제적 안정과 여유(28.2%)이다. 노후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노년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순위와 2순위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진 다음 3순위로 가족의 화목과 평안(28.8%)과 자녀의 성공(23.8%)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세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노후생활의 성공으로 보는 가치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표 6-7〉 응답자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1순위					
경제적 안정과 여유	39.0	34.4	40.6	39.3	42.1
건강	46.3	49.6	45.1	48.3	41.4
가족의 화목과 평안	4.6	4.7	4.6	4.8	4.4
자녀의 성공	6.5	7.0	6.3	5.4	7.5
친구관계	0.2	0.1	0.3	0.3	0.3
소득활동	2.2	2.7	2.1	1.3	3.0
자기계발 활동	0.5	0.8	0.3	0.1	0.6
지속적 사회참여	0.2	0.1	0.2	0.0	0.4
사회 기여 활동	0.1	0.2	0.1	0.0	0.1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0.4	0.4	0.4	0.4	0.3
2순위					
경제적 안정과 여유	28.3	28.6	28.2	28.3	28.0
건강	34.8	32.6	35.5	34.1	37.3
가족의 화목과 평안	12.6	12.6	12.6	13.2	12.0
자녀의 성공	15.2	15.2	15.1	15.9	14.3
친구관계	2.4	2.8	2.3	2.3	2.2
소득활동	3.8	4.6	3.5	4.2	2.8
자기계발 활동	1.4	1.5	1.4	0.7	2.1
지속적 사회참여	1.0	1.4	0.8	0.7	1.0
사회 기여 활동	0.3	0.1	0.3	0.5	0.2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0.3	0.5	0.3	0.3	0.3
3순위					
경제적 안정과 여유	14.3	17.0	13.4	13.7	13.2
건강	10.1	9.0	10.5	9.4	11.8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가족의 화목과 평안	28.4	27.2	28.8	28.2	29.6
자녀의 성공	23.2	23.8	23.1	24.3	21.6
친구관계	5.4	4.3	5.8	6.1	5.6
소득활동	7.3	6.7	7.5	8.3	6.6
자기계발 활동	3.7	3.7	3.7	3.0	4.6
지속적 사회참여	2.2	2.4	2.2	1.8	2.6
사회 기여 활동	2.0	2.3	1.9	1.3	2.6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3.3	3.8	3.1	4.0	2.0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주: 순위별 무응답 제외.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욕구

신노년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노후소득과 건강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신노년층의 약 절반 정도가 공적 연금에 가입하여 현재 납입중이며 37.0%는 전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입했지만 현재 납입을 하고 있지 못한 층은 11.4%, 연금을 수령중인 경우는 1.5%이다.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전후세대의 경우 4.6%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아직 수급연령에서 거리가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는 0.5%에 불과하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주택연금에 대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85.2%와 전후세대의 80.3%가 알고 있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의 23.0%와 전후세대의 17.9%가 이용할 의사를 갖고 있다.

〈표 6-8〉 응답자의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및 인식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가입 + 납입	50.1	50.1	51.5	48.8	54.5
가입 + 납입 못함	11.4	11.4	12.3	13.0	11.5
가입하지 않음	37.0	37.0	35.8	37.6	33.6
연금 수령 중	1.5	4.6	0.4	0.6	0.3
불입 시 수령 액 인식 ¹⁾					
정확한 액수 알고 있음	12.5	14.0	12.1	11.6	12.7
대강의 액수 알고 있음	55.3	58.5	54.4	55.3	53.4
전혀 모름	32.1	27.5	33.5	33.1	33.9
주택연금(역모지기) 제도					
알고 있음	83.9	80.3	85.2	84.6	85.8
모름	16.1	19.7	14.8	15.4	14.2
주택연금제도 활용 의사					
그렇다	21.8	17.9	23.0	23.5	22.5
아니다	28.9	31.2	28.1	28.8	27.2
생각해 본 적 없음	30.5	33.5	29.5	29.5	29.4
현재 주택이 없음	18.9	17.4	19.4	18.2	2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주: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와 현재 연금을 수령중인 응답자 제외.

한편, 2008년에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다. 베이비 붐 세대의 85.9%와 전후세대의 83.5%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 신노년층은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연령이 아니므로 부모중 어느 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부표 8 참조) 본인의 부와 모, 배우자의 부와 모 각각 약 3% 내외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부모님의 신체적 기능악화로 인하여 수발이 필요해질 경우 베이비 부버의 49.2%는 시설서비스를, 22.4%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는 요양병원 등 병원시설을 이용하겠다

는 응답도 21.7%이다. 공적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하여 공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볼 수 있다. 전후세대 경우에도 비슷한 응답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본인의 경우도 공적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해질 경우 약 60%가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있어 공적서비스 이용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배우자라는 응답으로 베이비 붐 세대 28.9%, 전후세대 28.7%이다. 자녀에게 수발 받고 싶다는 응답은 약 5% 수준이다.

〈표 6-9〉 응답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인지 여부					
알고 있음	85.3	83.5	85.9	86.0	85.7
모름	14.7	16.5	14.1	14.0	14.3
부모를 위한 서비스 이용 의향					
시설서비스 이용	48.5	45.7	49.2	49.8	48.6
재가서비스 이용	22.3	21.8	22.4	24.0	20.7
병원시설 이용	22.1	21.7	22.2	19.9	24.6
이용하지 않음	7.1	10.8	6.2	6.3	6.1
본인 노후에 도움받고 싶은 사람					
배우자	28.8	28.7	28.9	29.4	28.3
아들·며느리	3.0	3.8	2.7	3.6	1.7
딸·사위	1.2	1.5	1.1	0.8	1.4
서비스 이용(재가)	9.7	8.8	10.0	10.7	9.3
복지시설이용	37.3	40.6	36.1	35.5	36.9
의료시설이용	20.0	16.6	21.1	20.0	22.4
기타	0.0	0.1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1)	(1,395)

국민건강보험의 충분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약 절반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건강이나 요양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높은 민간보험 가입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6-10〉 응답자의 국민건강보험의 충분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매우 충분하다	1.0	0.8	1.1	0.6	1.6
충분하다	18.2	19.6	17.7	18.7	16.6
보통이다	31.1	30.9	31.2	32.2	30.0
충분하지 않다	45.5	45.6	46.8	46.0	47.8
전혀 충분하지 않다	3.2	3.1	3.2	2.5	4.0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신노년층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와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이 노후소득소득보장, 고용연장/기회 확대이다. 그러나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는 전기 베이비 부머가,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서는 전후세대에게서 건강보호/장기요양서비스라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표 6-11〉 응답자가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노후 소득보장	33.1	33.7	32.9	32.6	33.2
고용연장/기회 확대	16.5	14.0	17.3	17.1	17.6
건강보호/장기요양 서비스	44.5	47.6	43.5	44.9	41.8
여가문화 지원	4.7	3.7	5.1	4.7	5.6
평생교육	1.1	0.8	1.2	0.7	1.7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제3절 장례 및 죽음에 대한 태도

신노년층은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어 사회변화 속에서 제사에 대한 태도가 양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후세대(39.7%)보다 베이비 붐 세대에서(42.1%)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한 장례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 화장후 산공, 화장후 자연장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으며, 매장이라는 응답은 약 15% 수준이다. 바람직한 장례방법으로 화장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매장에 대한 선호는 적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더 감소해가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존엄사와 장기기증, 죽음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신노년층이 갖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면 존엄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장기기증과 죽음준비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베이비 붐 세대와 전후세대 모두 70%를 넘고 있다. 반면, 장기기증의 경우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각각 40%이다. 또한 죽음준비 교육에 대해서는 약 1/3의 신노년층이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약 절반에 이르고 있다.

〈표 6-12〉 응답자가 생각하는 제사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장례 방법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제사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6.2	7.3	5.7	5.8	5.7
필요하다	36.8	38.9	36.1	35.8	36.5
보통이다	15.5	14.1	16.0	16.6	15.3
필요하지 않다	33.8	30.3	35.0	34.7	35.3
전혀 필요하지 않다	7.7	9.4	7.1	7.2	7.1
바람직한 장례 방법					
매장	14.6	15.4	14.4	15.1	13.6
화장 후 봉안	34.0	32.6	34.5	32.7	36.7
화장 후 자연장	24.8	23.3	25.3	24.3	26.4
화장 후 산골	26.5	28.8	25.7	27.9	23.2
기타	0.1	0.0	0.1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2)	(1,394)

〈표 6-13〉 응답자가 생각하는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장기 기증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존엄사에 대한 태도					
매우 바람직하다	14.7	16.8	13.9	14.2	13.6
바람직하다	58.2	57.1	58.6	59.3	57.6
보통이다	13.9	11.5	14.7	13.8	15.7
바람직하지 않다	11.3	12.4	10.9	11.3	10.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0	2.3	1.9	1.4	2.5
장기기증 의향					
매우 그렇다	5.1	5.7	4.9	4.5	5.4
그렇다	35.8	33.9	36.4	35.8	37.1
보통이다	18.6	15.7	19.6	19.1	20.1
그렇지 않다	32.8	37.4	31.3	31.7	30.7
전혀 그렇지 않다	7.7	7.3	7.9	8.8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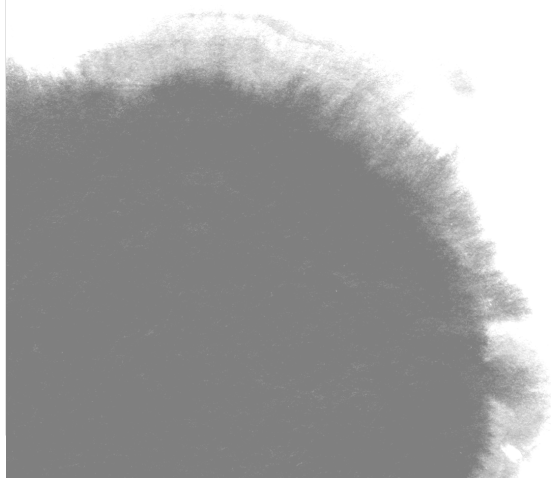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표 6-14〉 응답자의 죽음준비에 관한 교육에 대한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매우 그렇다	4.8	4.0	5.1	4.1	6.3
그렇다	32.1	32.8	31.8	30.1	33.9
보통이다	12.2	11.3	12.5	12.8	12.3
그렇지 않다	39.8	41.2	39.3	42.1	36.2
전혀 그렇지 않다	11.0	10.6	11.2	11.0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2)	(1,394)

0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제7장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제1 절 신노년층의 특징

조사결과 나타난 신노년층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용한(available) 가족의 규모가 감소하였다.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자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다. 60세 이상의 경우 3.7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신노년세대는 2.3명이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핵가족화가 확연히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 부모세대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둔 비율도 증가할 것임을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 60세 이상 세대는 35.9%가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지만 신노년층은 85.3%가 중학교 이상의 학력자이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도 21.8%이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가치관의 변화와 기대하는 욕구수준의 향상, 문화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 노인세대들과는 달리 새로운 취미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노후생활에 있어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와 소비행태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신노년층은 자원봉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의 잠재되어 있는 자원봉사 욕구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노년층은 현세대 노인과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에 있어 경제활동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아직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노후소득의 감소를 염두에 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섯째, 이들은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있어 건강과 소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노후생활에 있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데는 공적인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사적인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 및 요양보호라는 위험에 비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제2절 정책과제

신노년층의 노후생활은 신노년층이 갖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년기를 보내게 될 시기의 우리사회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이 제공되며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 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정책적 변화를 통하여 연령차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양성평등적인 사회로 변화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신노년층의 노년기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의 약화 또한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되는 사회일 것이다. 정보사회로의 변화 또한 급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신노년층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등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해갈 것이다(이동원·정갑영, 2009).

또한 이들이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자녀세대들의 변화 또한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수도 적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무적인 관계보다는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⁶⁾. 이러한 변화는 신노년층에게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과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변화 속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이 대응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응 또한 요구된다. 요구되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⁷⁾.

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현 노인세대와 다른 특징을 갖는 신노년층의 출현이 우리사회의 정책기조의 변화의 계기로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적인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생산성은 화폐적 가치로 측정되는 교환적 가치를 가진 활동만을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한다. 즉,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생산성의 주요개념이며, 한 사회의 생산성은 GNP로 측정된다. 반면 사회적 생산성은 이러한 화폐적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화폐적

6) 이러한 전망은 버킹엄·워드(2009), 샤피로(2010), 손양민(2010), 장경섭(2009), 정경희(2005), 통계청(2010) 등의 논의에 기초하여 정리된 것임.

7) 아래 내용의 일부는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2010. 12. 3)에서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정책과제’(정경희)라는 제목의 기초발표를 통하여 언급된 바 있음.

가치를 갖고 있는 산물도 그 사회의 가치에 바람직하지 않다면 사회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사회구성원이 가족, 사회, 그리고 제도에 기여하는 내용은 단지 화폐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특히 노인들은 아이디어, 보호, 사랑, 정보 등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세대이전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다(Uhlenberg, 2000). 한편, 심리적인 생산성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증대시키는 활동에의 참여로 확대된다(Birren, 2001). 그러므로 생산성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있는 출발점인 것은 확실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사회적·심리적 생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기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은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을 넘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work-life balance policy)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논의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논의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일과 부모 역할의 양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지원 욕구가 큰 유자녀 남녀근로자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홍승아 외, 2010). 그러나 앞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온 서구의 경우 생애주기의 개념을 적용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층만 아니라 노인부양, 본인의 중년 및 노후설계에 맞추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생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노동시간 배분을 새롭게 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Calman, 2005). 이러한 가족생활에 요구되는 시간, 훈련 및 교육의 시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인생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기조는 연령과 무관하게 개인이 욕구와 상황에 따라 일-여가-교육을 유연하게 배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음에 제시하고자 하는 연령통합적 정책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연령통합적 사회는 연령분리적 사회와는 달리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Riley et al., 1994). 연령장벽이 없다고 하는 '유연한 연령기준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하여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연한 삶을 의미한다. 즉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생애동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체계가 평생동안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바뀌고 일터에서의 연령장벽이 유연화되어가는 경향들이 발견될 때, 또한 가족의 경우도 고조부모 등을 포함하는 다세대 친족구조로 변해가면서 한 사회의 연령통합의 정도도 증대되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연령, 코호트 등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연령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경희 2004).

나. 정책 과제

신노년층이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숙제들이 적절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신노년층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요구된다. 신노년층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지만 제조업의 경우 이들의 은퇴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정호성 외, 2010) 숙련단절의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노년층을 비롯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신노년층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신노년층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공공부문과 사무직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노년층의 은퇴를 이미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노력을 해왔으며, 독일의 경우 55세 이상자 또는 고령자의 조기퇴직 감출시킨다는 목표 아래 ‘Initiative 50 Plus’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사회적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잠재된 자원봉사 욕구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요구된다. 신노년층은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욕구가 다양하며 그러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신노년층들 자신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조직되고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한경혜, 2010). 이러한 목적을 갖고 미국에서는 퇴직자를 포함한 미국내 시니어들의 지난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인과 사회를 위해 환원하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씽크탱크로서 Civic Ventures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신노년층의 지역사회에의 통합 정도도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남자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의 적극적 참여 또한 사회적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부부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에게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글로벌고령화대비 지표(GAP)를 발표하면서 20개국의 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Jackson, Howe, and Nakashima, 2010). 이에 따르면 한국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는 12위로, 소득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19위로 평가되었다. 즉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준비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다. 특히 소득의 적절성 수준이 매우 낮는데 이는 바로 신노년층의 적절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60세 미만 연령층의 소득의

81%이며 이 비율은 2020년에는 82%, 2030년에는 79%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신노년층들이 노년기에 향유할 수 있는 소득은 노년기 이전의 약 80% 수준이 될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소비와 생활양식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개국 중 13개국이 노년기 이전 소득과 같거나 많은 것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주요 노후소득원이었던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Jackson, Howe, and Nakahima, 2010). 2020년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신노년층들은 더 이상 현대 노인들이 누렸던 사적이전소득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신 스스로가 노후소득을 적극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예견되는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과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셋째, 신노년층의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잠재되어 있는 사회참여 욕구를 구체적 활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회참여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노후생활에 있어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여가활동이 운동, 등산, 친목모임 등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후에 있어 여행에 대한 선호가 강하므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의 개발 및 향유기회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프랑스의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노인들이 모일 수 있고 상근직원이 문화적 코오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La Maison Ouvert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기 대학도 지역사회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년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이소정 외, 2009).

넷째, 노화로 인하여 예견되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

응이 요구된다. 현재 평균수명은 2008년 기준 평균 80.1세(여자 83.3세, 남자 76.5세)로, 신노년층은 향후 25~30년의 생존기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지속적인 생물학적 노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의 규모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는 2003년의 경우 21.2%에서 2009년 31.4%로 증가하였고, 노인1인당 진료비는 2009년 현재 2,552천 원으로 비노인층의 616천 원에 비하여 4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신영석·남궁은하, 2010). 이러한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출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40~49세군의 소비지출중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이지만 노화에 따른 이러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업의 활성화, 금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적 접근의 강화와 더불어 일차의료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신노년층의 노년기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보건복지부, 2010)

참고 문헌

- 국민연금연구원(각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http://www.nps.or.kr/jsppage/research/panel/panel_main.jsp)
- 국토개발연구원(2009).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 김명중(2006).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3(9).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원·류제복·박진우·홍기학(2000).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종호(1991). **표본조사법**. 서울: 자유아카데미.
- 로버트 J. 사피로(2010). 퓨처캐스트(김하락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원서 2008년 발행)
- 박홍래(1993). **통계조사론**. 서울: 영지문화사.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공청회 자료집**. 2010. 11. 29.
-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손양민(2010). **밥·돈·자유: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북스

신영석·남궁은하(2010). 노인의료비 실태 및 정책 제언. **Issue & Focus, 제53호**

이동원·정갑영(2009).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이소정·정경희·이윤경·한정란·유삼현. (2009).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창비.

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호성·강성원·문외술·박준·손민중·이찬영·이은미·이민훈·박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제인 버킹엄, 티파니 워드(2009). **What's next**(김민주, 송희령 역). 서울: 웅진윙스(원서 2008년 발행)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경혜(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2010 헬스케어심포지엄/노인사회참여활성화포럼 자료집.**

한경혜(2000). 신 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각 년도). **고령화연구패널**

(<http://www.kli.re.kr/klosa/ko/main/main.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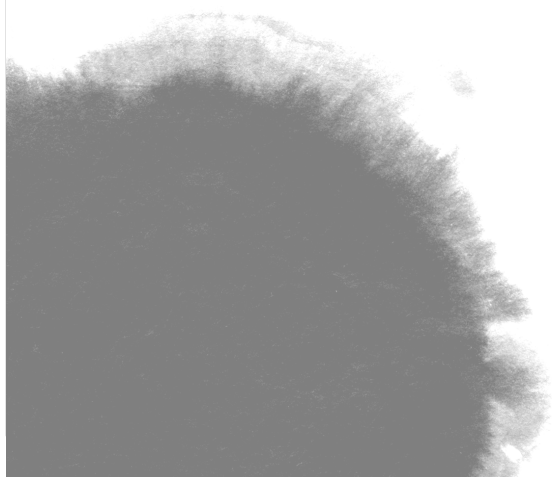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2000). **무응답 오차.** 서울: 자유아카데미.

홍승아(2010). **일·가정양립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 Biemer, P. P., Lyberg, L. E. (200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John & Wiley Sons Inc.
- Birren, J. E. and Warner Schaie, K. (2001).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Fifth Edition*. Academic Press.
- Calman, S. (2005) "Changing the way we work: Towards more flexible form of employmen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Focus. October 2005.
- Chambers, P. L, Skinner, C. J. (2003). *Analysis Of Survey Data*, London, John & Wiley Sons Inc.
- Cochran. W. G. (1977). *Sampling Techniques*. John & Wiley Sons Inc.
- Groves, R. M., et al. (1992). *Nonsampling Error in Surveys*. John & Wiley Sons Inc.
- Groves, R. M., et al. (2002). *Survey Nonresponse*. John & Wiley Sons Inc.
- Lohr, S.L. (199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Duxbury Press.
- Riley et als. (1994) *Age and Structural Lag*. NY: Wiley.
- SasInst (2007). *SAS/STAT User's Guide. Version 8*. SAS Publishing.
- Scheaffer, R. L., Mendenhall, W. & Ott, R.L.(2004). *Elementary Survey Sampling*, 6th Ed. Duxbury Press.
- Thompson, S. K. (2002). *Sampling* 2nd Ed. John & Wiley Inc..
- Tourangean, R. (2004). *Survey Methodology*. John & Wiley Sons Inc.
- Jackson, R., Howe, N., Nakashima, K. (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Jackson.
-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361~308.



부록



부 록

[부록 1]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설문지

[부록 2] 실태조사 조사지역

[부록 3] 실태조사 결과표

부록 1.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설문지



주관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 공표	2010년 12월

답변 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에만 이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내 응답자 번호	조사구내 원련번호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중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 진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은 약 4,000명의 46~59세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 귀하가 조사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귀하가 답변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정책 수립과 예비고령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 조사 주관 및 수행 기관(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관리팀(☎ 02-380-8362),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02-380-8341, 8153)

방문 횟수	방문 일시		방문 결과		지도원 검토 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 ① 완료 ☐ ③ 장기 출타 ☐ ⑤ 기타(____)	☐ ② 외출 ☐ ④ 응답 거절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 ① 완료 ☐ ③ 장기 출타 ☐ ⑤ 기타(____)	☐ ② 외출 ☐ ④ 응답 거절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 ① 완료 ☐ ③ 장기 출타 ☐ ⑤ 기타(____)	☐ ② 외출 ☐ ④ 응답 거절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 - _____
주 소	_____시 _____구 _____동 _____도 _____군 _____면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_____리 _____번지 _____호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원 및 일반사항

I. 가구원 사항

총 가구원 수 조사 대상수 조사 원료 수 가구 형태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 번호

↳ (※ 조사원은 별첨4 참조)

번호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	3. 생년 월 및 만 연령	4. 결혼 상태	5. 교육 수준	6. 경제활동 참여여부	7. 동거 여부	8. 조사대상 확인사항
일련번호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별첨1 참조)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도 가구원으로 추가하십시오)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 분의 주민등록상의 생년 월은 언제입니까? 또한 이 분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조사원 등작성 경우 양적으로 작성하여 생년월을 부호화 할때 기록하여 주십시오. 만연령은 201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만 연령을 00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첨2, 별첨3 참조]	이 분의 사실상 결혼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비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알 수 없음 (14세 이상)	이 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미취학 ② 사립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알 수 없음 (14세 이상)	이 분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 아-무-런 ③ 학생 ④ 미취학 ⑤ 미취학 ⑥ 미취학 (14세 이상)	이 분은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타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① 예(비동거) ② 아니오 (동거)	① 대상자로 조사원료 조사(가)나 조사(가)나 ② 대상자(가)나 조사(가)나 ③ 비대상
1	가주 0 1							
2								
3								
4								
5								
6								
7								
8								

II. 일반사항

1. 가구원 외의 생존자녀가 있습니까?(결혼한 자녀와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① 있다 → (남자: _____명, 여자: _____명, 계: _____명)
(미혼: _____명, 기혼: _____명, 계: _____명)

② 없다 (→ 없으면 모두 '0'으로 기록하고, '질문 2'로 가시오)

남자 여자 계
1

미혼 기혼 계
1

※ 조사원: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과 비가구원 자녀 사항을 참조하여 총자녀수를 기록하십시오.

자녀수	남자	여자	소계
(1) 가구원인 자녀수			(1)1. 미혼 (1)2. 기혼
(2) 비가구원 자녀수			(2)1. 미혼 (2)2. 기혼
(3) 총자녀수			(3)1. 미혼 (3)2. 기혼

2. 귀하는 (외)손자녀를 몇 명 두셨습니까? 가구내 손자녀수: 명 비가구원 손자녀수: 명 총 명
(※ 조사원 '없음'을 '0'으로 기록하십시오.)

3.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교입니까?

-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기타 () 3.
⑦ 종교 없음(→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에 관한 질문으로 가시오)

3-1. 종교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 1회 ⑤ 월 1회 ⑥ 월1회 미만 3-1.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1. 귀하의 형제·자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형제·자매 _____명중 _____째

- ① 장남 ② 의아들 ③ 차남 이하 ④ 장녀 ⑤ 외동딸 ⑥ 차녀 이하 1. 명 째 순위

2. 귀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형제·자매 _____명중 _____째

(※ 조사원: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⑤비해당 처리 하시오.)

- ① 장남 ② 의아들 ③ 차남 이하 ④ 장녀 ⑤ 외동딸 ⑥ 차녀 이하 2. 명 째 순위

※ 조사원: 귀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⑤비해당 처리 하시오.

질 문 내 용	(1) 자신의 부모	(2) 배우자의 부모
3.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부모님의 연세는 몇이십니까? ① 부모 모두 생존 ② 아버지만 생존 ③ 어머니만 생존 ④ 두분 모두 사망 ⑤ 기타() (※ 본인의 부모에 대한 질문 후,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p.3의 '질문12'로 가시오.)	생존여부 부: 만나이 모: 만나이	생존여부 부: 만나이 모: 만나이
4. 현재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모두) 건강 ② 아버지(만)가 건강하지 않음 ③ 어머니(만) 건강하지 않음 ④ 두분 모두 건강하지 않음		
(※ 조사원: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질문12'로 가시오.)		
5.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①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혼자 살고 계심 ② 배우자하고만 살고 계심 ③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 ④ 기타()		
6.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p.3의 【보기1】 참조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7.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에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p.3의 【보기1】 참조		
7-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서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p.3의 【보기1】 참조		

질 문 내 용	(1) 자신의 부모	(2) 배우자의 부모
8.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u>간병이나 수발</u> 등의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보기1】 참조	☐	☐
8-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u>간병이나 수발</u>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기1】 참조	☐	☐
9.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모님에게 어떤 <u>경제적인 도움</u> 을 주셨습니까? 【보기2】 참조 (응답이 ㉔이면 '질문10'으로 가시오)	☐	☐
9-1.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	☐
10.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모님에게서 어떤 <u>경제적인 도움</u> 을 받으셨습니까? 【보기2】 참조	☐	☐
11. 귀하는 부모님에게 <u>경제적인 도움</u> 을 주는 편입니까? 도움을 받는 편입니까? ①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지 않음 ②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편 ③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편 ④ 비슷한 정도로 도움을 주고 받는 편	☐	☐
12. 귀하는 부모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기1】 연락 및 도움을 주고 받는 빈도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연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도움을 준적/받은적 없음) ⑩ 기타()

【보기2】 경제적인 도움 구분

- ①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주지) 않음 ② 비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①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③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은 아니지만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④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부동산 구매시 지원 등은 아니지만 냉장고, TV 등의 생활용품 구매 지원

주요사원: 응답자가 사별, 이혼, 병역, 미혼인 경우, '질문 13' - '질문 15'는 ③(비해당) 처리하고, '질문 16'으로 가시오.

13. 본인의 가족(친가)과 배우자의 가족과의 접촉 빈도를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
①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② 배우자의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③ 비슷하다 13 ☐
14. 본인의 가족(친가)과 배우자의 가족과의 친밀감을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
① 친가와 더 친밀감을 느끼는 편이다 ② 배우자의 가족과 더 친밀감을 느끼는 편이다 ③ 비슷하다 14 ☐
15. 귀하는 부부관계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15 ☐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조사월 '질문 16 ~ 질문 17'은 귀하의 가구월의 아닌 바로 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도 포함하여 질문하시요(해당 응답은 제외) 가구월이 아닐 바로 살고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질문 16'로 가고, 자녀가 전혀 없는 경우 p5의 '질문 20'으로 가시오.

16.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 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보기1】 참조 16

16-1.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중 어떤 자녀와 가장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보기3】 참조 16-1

17.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거나 받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보기1】 ~ 【보기3】을 참조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하시요.

도움의 제공면	(1) 도움빈도 p3의 【보기1】과 【보기2】 참조	(2) 주제공자/ 수혜자 【보기3】 참조	(3) 주제공자/ 수혜자의 결혼상태 ①기혼 ②미혼
17-1.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의 도움을 자녀에게 제공			
17-2.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의 도움을 자녀에게 받음			
17-3. 손자녀 돌보기 도움 제공			
17-4. 경제적 도움 받음			

【보기3】 형제·자매 순위

① 장남 ② 차남 ③ 삼남 ④ 사남 ⑤ 오남 이상 ⑥ 장녀 ⑦ 차녀 ⑧ 삼녀 ⑨ 사녀 ⑩ 오녀 이상

18. 현재 귀하는 학비 외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20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습니까?

▷ 있다 → _____명 (※조사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문하여 기록하시요.
가구월일 경우: (1)-(4)은 가구조사표의 가구월 사항에서 이기하시요.)

18 명

② 없다 (→ 없으면 '0'으로 기록하고, '질문 19'로 가시오)

번호	(1) 성	(2) 연령	(3) 결혼 상태	(4) 교육수준	(5) 경제활동 참여여부	(6) 가구원 및 동거 여부	(7) 형제자매 순위	(8) 경제적 도움의 내용
일련 번호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 자녀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이 자녀의 사실상 결혼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이 자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이상	이 자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만약 비취업이면 ② 학생 ③ 비학생	이 자녀는 현재 가구원 이십니까? ① 동거 가구원 ① 비동거 가구원 ② 비가구원	이 자녀의 형제자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3】 참조	이 자녀에게 어떠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p3의 【보기 2】 참조
1		만 세						
2		만 세						
3		만 세						

18-1.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8-1

19. 귀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9

19-1. 자녀 중 어떤 자녀와 가장 큰 친밀감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보기3】 참조

19-1

※ 다음은 친구 등 사회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는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0'으로 기록하고 '질문 21'로 가시오) ▷ 있다 (→ 명)

20 명

20-1.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신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 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연 1회 이하 ⑨ 기타()

20-1

21.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 지인 중 사적으로 누구와 가장 자주 만나셨습니까?

- ① 동창 ② 직장동료 ③ 자녀관련 학부형 ④ 종교관련 교우
⑤ 지역주민 ⑥ 동호회관련 지인 ⑦ 기타()

21

22. 귀하는 본인의 노후생활(65세 이후)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형제·자매
④ 친구와의 관계 ⑤ 부모와의 관계 ⑥ 기타()

22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1.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또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 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③ 피운다

1

2. 귀하는 술을 드십니까? 또는 과거에 술을 드셨습니까?

- ① 술을 마신 적이 없다 ②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③ 마신다

2

3. 귀하는 평소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3-3'으로 가시오)

3

3-1. 운동을 한다면, 1주에 몇 일 하십니까?(1회 20분 이상)

- ① 1주 1일 미만 ▷ 1주: 일

주 일

3-2.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운동시설은 무엇입니까? (응답 후 '질문4'로 가시오)

- ① 공공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간이야외운동시설 등)
②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③ 민간/상업 스포츠시설(헬스클럽, 사설체육관, 사설스포츠센터, 골프장, 테니스장, 태권도장 등)
④ 민간 비영리/복지시설(YMCA, YWCA, 사회복지관, 교회 등)
⑤ 집 주변(공원, 궁터, 악수터, 등산로, 골목 등)
⑥ 집안
⑦ 기타()

3-2

3-3. 귀하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②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③ 주위에 운동할 장소, 도구, 시설이 없어서 ④ 정보(방법, 장소, 효과 등)가 부족해서
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⑥ 몸이 약해서
⑦ 관심이 없어서 ⑧ 게을러서
⑨ 기타()

3-3

4. 귀하는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5. 귀하는 최근 3개월간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종합비타민, 칼슘제, 보약 등)을 드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6.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6-4'로 가시오)

6

6-1. 그 건강검진을 통해 어떤 증상(질병)을 발견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7'로 가시오)

6-1

6-2. 그 증상(질병)을 치료 또는 관리하셨습니까?

- ① 예 (→ '질문 7'로 가시오) ② 아니오

6-2

6-3. 그 증상(질병)을 치료 또는 관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질문 7'로 가시오)

- 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② 관심이 없어서, 귀찮아서
③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건강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여
⑤ 근처에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없어서 ⑥ 정보(방법, 장소, 효과 등)가 부족해서
⑦ 기타()

6-3

6-4.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가사, 직장 등)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②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③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건강하기 때문에
⑤ 근처에 병의원 등 검진시설이 없어서 ⑥ 정보(방법, 장소, 효과 등)가 부족해서
⑦ 질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⑧ 기타()

6-4

7. 귀하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7

8. 귀하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10. 귀하는 지금까지 갇혀 증상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불편을 겪은 적이 없다 ② 과거 불편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불편하지 않다
③ 가끔 불편함을 느낀다 ④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10

11.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없음 ① 건강 및 질병 상담 ② 건강교육
③ 식이 또는 운동 처방 ④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⑤ 약물오용관련 교육 상담
⑥ 정기적 건강검진 ⑦ 질병 관리서비스 ⑧ u헬스(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⑨ 방문간호서비스 ⑩ 기타()

11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1. 귀댁의 지난 한 해(2009.1.1~2009.12.31)의 월평균 총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 포함 항목: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개인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월평균 총가구 소득: _____만원

1	천	백	십	만
---	---	---	---	---

2. 현재 귀댁이 소유한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자산 포함 항목: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준 것, 현금, 적금, 주식, 펀드, 자동차, 희월권 등)

자산: _____백만원

2	십	백	천	백	만
---	---	---	---	---	---

3. 현재 귀댁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채 포함 항목: 주택용자금, 전세보증금 받은 것, 그 밖의 빌린 돈 등)

부채: _____백만원

3	십	백	천	백	만
---	---	---	---	---	---

4. 귀댁의 지난 한 해(2009.1.1~2009.12.31)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세금, 사회보험료 및 저축, 이자 등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균 지출액: _____만원

4	천	백	십	만
---	---	---	---	---

5. 다음 소비항목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1) 여행비(숙박비 포함): _____만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학원 및 기타 교육비: _____만원

(3) 가족 외식비: _____만원

(4) 저축 및 적금, 저축성 보험료: _____만원

(1)	천	백	십	만
(2)	천	백	십	만
(3)	천	백	십	만
(4)	천	백	십	만

6. 귀댁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구분	내용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건강, 요양위험	질병(암), 실손보험(진료비 본인부담), 교통상해 사고대비, 장기요양, 실버보험 등	①	②	①	②
(2) 사망위험	종신보험, 상조회사 등	①	②	①	②
(3) 노후소득보장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①	②	①	②
(4) 목돈마련 등	적금, 계돈 등	①	②	①	②

	본인	배우자
(1)		
(2)		
(3)		
(4)		

7.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7	
---	--

8. 귀하의 청소년시절(중고등학교시절) 경제생활 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① 아주 좋았다 ② 조금 좋았다 ③ 평균 수준이었다 ④ 조금 나빴다 ⑤ 아주 나빴다

8	
---	--

9. 귀하는 10년 후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9	
---	--

소비행태	동의정도			
(1) 가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실패 서비스를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 가격이 비싸도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면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4)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소비트렌드	동의정도			
(1) 핸드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4)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활동을 통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5) 40대 이후에 새로 시작한 취미·문화활동이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6) 다른 나라의 음식, 예술 문화상품, 여행상품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1. 귀하는 현재(조사시점 기준)까지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가장 오래 했던 일: ()

1-1		
-----	--	--

- 1-2.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1-2 

	보		개월	
1-3				

2. 귀하는 현재(조사시점 기준)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 '질문 2-1'로 가시오)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 '질문 2-1'로 가시오)
 ③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 '질문 2-4'로 가시오)
 ④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질문 3'으로 가시오)

2

※ 조사될 가장 오래 했던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동일한 경우, '질문 1-1' ~ '질문 1-3'의 사항을 '질문 2-1' ~ '질문 2-3'에 이기하십시오.

2-1. 현재 하시는 일의 일자리 유형을 적어주십시오. p.8의 【보기4】 참조

현재 하는 일: ()

2-1

2-2. 현재 하시는 일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
 ⑤ 단독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2-2

2-3. 현재 하시는 일의 종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2-3 년 개월

2-4.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내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1)
 (2)
 (3)

2-5.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둘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창업 준비(아이템, 자금 등) ② 직업교육 참여
 ③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④ 취미·여가 개발
 ⑤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 ⑥ 기타()

2-5

3. 귀하는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40대 이후에 그만 둔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3

3-1.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두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조사될 (1)~(3)의 경우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⑤ 비 해당 처리하십시오.)

질문내용	매우 좋아졌다 ①	좋아졌다 ②	변화없다 ③	나빠졌다 ④	매우 나빠졌다 ⑤
(1) 배우자와의 관계					
(2) 자녀와의 관계					
(3) 부모와의 관계					
(4) 전반적인 생활만족					

(1)
 (2)
 (3)
 (4)

- ## 사회 참여

- 10 -

4. 귀하의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 다음은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여부, 기간, 빈도,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내 용	자원봉사단체	정치사회단체
5. 귀하는 자원봉사단체나 정치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만) ① 참여 ② 비참여(→ ‘질문 6’으로 가시오)		
※ 조사항: ‘질문 5-1번’ ~ ‘질문 5-4번’까지는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활동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오.		
5-1. 이 단체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다? ____ 년 ____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5-2. 이 단체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 1회 ⑤ 월 1회 ⑥ 월 1회 미만		
5-3. 이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스스로 ② 주변인의 권유 ③ 대중매체 및 홍보 ④ 기타(_____)		
5-4. 이 단체활동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하여 ② 건강을 위하여 ③ 사회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④ 나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⑤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하여 ⑥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⑦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⑧ 기타 (_____)		
6. 귀하는 <u>노후</u> 에 자원봉사단체나 정치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의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8. 귀하의 노후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은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8

※ 다음은 노후교육 및 노후설계 컨설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다음 중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건강관리교육 ②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③ 일반교양교육 ④ 정보화교육
⑤ 자원봉사교육 ⑥ 취업 및 직업교육 ⑦ 노후준비교육 ⑧ 노후경제교육
⑨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⑩ 기타 (_____)

1순위		
2순위		
3순위		

10. 노후에 대비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질문 11’로 가시오)

10

10-1. 노후설계 컨설팅을 위해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② 5만원 미만 ③ 5~10만원 미만
④ 10~15만원 미만 ⑤ 15~20만원 미만 ⑥ 20만원 이상

10-1

11. 노후에 평생교육 실시기관을 선택할 때, 다음 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내용	① 매우 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접근성(거리 등)					
(2) 비용					
(3) 감사의 질					
(4) 교육기관의 수준·질					
(5) 기타 ()					

(1)

(2)

(3)

(4)

(5)

12. 귀하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

- ① 매우 능숙하게 사용 한다
 ②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③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④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12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1. 일반적으로, 노후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부양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및 가족 ④연금 등 사회 보험 ⑤ 국가

1

2. 귀하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및 가족 ④연금 등 사회 보험 ⑤ 국가

2

3. 귀하는 노후에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 ① 대도시(7대 특별·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군지역)
 ④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⑤ 실버타운 등 노인전용 거주지

3

- 3-1. 귀하는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의료시설 ② 문화여가시설 ③ 자연환경(강, 호수 등)
 ④ 자녀와의 거리 ⑤ 사회적 소통(친구집단, 사회참여기반) ⑥ 기타()

3-1

4. 귀하는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 ① 아들과 살고 싶다 ② 딸과 살고 싶다 ③ 형편이 되는 자녀와 살고 싶다
 ④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 ⑤ 기타()

4

5.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업을 마칠 때까지 ②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 ③ 직장이 생길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손자녀 양육시까지 ⑥ 주거가 마련될 때까지
 ⑦ 기타()

5

6. 귀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②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③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④ 종교활동을 하면서
 ⑤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⑥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⑦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 ⑧ 기타()

6.

--	--

7. 귀하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교육 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③ 생계비(가계) 마련
 ④ 주택 구입 ⑤ 본인의 건강 ⑥ 여가 및 취미활동
 ⑦ 노후부양 ⑧ 노후 준비 ⑨ 기타()

7.

--	--

8. 귀하가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배우자와의 관계 ② 자녀와의 관계 ③ 친구와의 관계
 ④ 건강 및 기능 악화 ⑤ 경제적 어려움 ⑥ 주거 문제
 ⑦ 소외 및 고독감 ⑧ 무료함(소외거리 없음) ⑨ 기타()

8.

--	--

9. 다음 중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② 건강 ③ 가족의 화목과 평안
 ④ 자녀의 성공 ⑤ 친구관계 ⑥ 소득활동
 ⑦ 자기 계발 활동 ⑧ 지속적 사회참여 ⑨ 사회 기여 활동
 ⑩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⑪ 기타()

9순위

※ 다음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은 노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

--

10-1. 노후에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④ 현재 주택이 없다

10-1.

--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1.

--

11-1. 귀하나 배우자의 부모님 중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대상 가족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서비스
(1) 본인의 부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2) 본인의 모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3) 배우자의 부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4) 배우자의 모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이용 서비스
 여부 유형

(주조사원: 모든 대상 가족의 서비스 이용 여부가 '비이용'인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는 모두
 ⑤ 비배달 처리하고, '질문 H-2'로 가시오.)

11-2.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요양원과 같은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겠다
 ②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겠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는 요양병원 등의 병원시설을 이용하겠다
 ④ 이용하지 않겠다

11-2 ☐

12. 귀하는 노후에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하다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 ① 배우자
 ② 아들·며느리
 ③ 딸·사위
 ④ 서비스 이용(재가)
 ⑤ 노인요양원 등 복지시설이용
 ⑥ 노인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
 ⑦ 기타 ()

12 ☐

13. 귀하는 노후에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지 않다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13 ☐

14. 귀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에 가입해 있습니까?

- ①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
 ②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③ 가입하지 않았다 (→ '질문 15'로 가시오)
 ④ 현재 연금(조기연금)을 받고 있다 (→ '질문 15'로 가시오)

14 ☐

14-1. 지금과 같이 계속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을 불입했을 경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금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다
 ② 대강의 액수를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르고 있다

14-1 ☐

15. 귀하는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와 사회가 노인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후 소득보장
 ② 노년기 고용연장 및 고용기회 확대
 ③ 노년기 건강보호/장기요양 서비스
 ④ 노년기 여가문화 지원
 ⑤ 노년기 평생 교육
 ⑥ 기타()

15 ☐

※ 다음은 장래와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제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 ☐

17. 귀하는 바람직한 장례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장
 ② 화장 후 봉안시설에 봉안
 ③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밑에 골분매장)
 ④ 화장 후 산골(산, 강, 바다 등에 골분을 뿌림)
 ⑤ 기타()

17 ☐

18. 귀하는 존엄사(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하지 않다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8 ☐

19. 귀하는 생전 또는 사후에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

20. 귀하는 죽음준비에 관한 교육이 있다면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

삶의 만족도

1.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시오.

질문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 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2)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3)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4) 요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 들이다					
5)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7)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8)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					
9) 남은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10)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1)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을 느낀다					
12) 조금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실태조사 조사지역

시	군구	읍면동	code	ed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4가동	1104062	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2동	1106053	00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1106070	066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1111055	09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12068	05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14063	10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115059	07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2동	1116068	081A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118051	024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1120051	118A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123070	046A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2동	1123074	019A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동	1125057	0151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2102068	12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1동	2105064	0341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민동	2106051	086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2109070	151A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	2111051	04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2111070	075A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2115062	0141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2201069	0301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2204055	094A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2205071	066A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2205079	156A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2206069	047A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2206071	056A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2동	2304058	082A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2305059	0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2305064	059A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	2306064	070A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2306069	038A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2307056	127A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	2308057	001A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2401071	059A

시	군구	읍면동	code	ed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2403063	0351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2403069	128A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2동	2404066	096A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2501065	133A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2502057	0391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1동	2502065	0261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2503052	052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3동	2503068	102A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2601064	027A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2602059	040A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2603056	014A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2631012	118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102159	014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3102357	195A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3103058	057A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3104163	102A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3105353	087A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3109155	005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3109260	03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110352	068A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113056	0011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3116060	027A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3119351	162A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3121037	023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3127034	046A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3201060	036A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3202068	0091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203056	014A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07051	048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3239011	027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301164	105A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개산·죽림동	3301259	045A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3302063	059A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3337036	0151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3339014	023A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3401058	0431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3402056	0011

시	군구	읍면동	code	ed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3404039	0181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3407032	024A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3437011	14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3501163	090A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3501254	009A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3502071	070A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3503032	0161
전라북도	순창군	금파면	3536036	003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602011	0522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3603060	022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3635011	0111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3635036	016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3645011	07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3701112	077A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2동	3701152	0101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3702055	0971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3705055	1241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3707031	0251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3710036	014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3739012	061A
경상남도	창원시	반송동	3801055	169A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3802033	0171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동	3803071	1261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1동	3805058	0231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3807060	006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3810033	0931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3833042	0111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3901057	0411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3901060	098A
제주도	서귀포시	대륜동	3902059	0101

부록 3. 실태조사 결과표

〈부표 1〉 응답자의 제특성별 본인의 형제·자매 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형제·자매수					
1명	1.4	2.2	1.1	1.4	0.8
2명	3.2	3.7	3.0	2.7	3.3
3명	9.5	9.8	9.4	7.6	11.5
4명	19.5	14.6	21.1	19.3	23.2
5명	23.6	20.2	24.7	24.8	24.6
6명	19.4	20.4	19.1	19.1	19.0
7명 이상	23.5	29.1	21.6	25.0	17.6
(평균)	5.1	5.2	5.1	5.2	5.0
형제·자매 순위					
1째	24.1	27.8	22.8	23.2	22.4
2째	20.3	20.9	20.1	20.1	20.1
3째	20.6	19.7	20.9	19.0	23.0
4째	14.4	14.3	14.4	14.5	14.3
5째	10.2	8.5	10.8	11.7	9.7
6째	5.7	4.4	6.2	6.5	5.8
7째 이상	4.8	4.5	4.9	5.0	4.7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19.8	22.1	19.1	19.5	18.6
차남이하	28.1	28.5	28.0	28.0	28.1
장녀/외동딸	19.4	19.9	19.2	19.9	18.4
차녀 이하	32.6	29.5	33.7	32.6	3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부표 2〉 응답자의 제특성별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형제·자매수					
1명	2.1	4.1	1.5	1.7	1.2
2명	3.6	2.9	3.8	3.6	4.1
3명	9.4	7.8	9.9	9.1	10.9
4명	19.7	16.9	20.7	18.0	23.9
5명	24.4	21.2	25.5	25.6	25.4
6명	19.1	20.6	18.6	19.9	17.0
7명 이상	21.7	26.6	20.0	22.1	17.6
(평균)	5.0	5.2	5.0	5.1	4.9
형제·자매 순위					
1째	26.7	30.7	25.4	26.3	24.2
2째	20.1	19.3	20.3	20.8	19.8
3째	20.4	19.1	20.9	20.1	21.9
4째	13.8	13.9	13.8	13.5	14.1
5째	9.2	8.4	9.5	10.0	8.9
6째	5.2	5.8	5.0	3.8	6.4
7째 이상	4.6	2.9	5.2	5.6	4.7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22.8	25.1	22.0	22.9	20.9
차남이하	28.9	24.0	30.5	29.6	31.5
장녀/외동딸	19.0	19.9	18.7	18.7	18.7
차녀 이하	29.4	31.1	28.8	28.8	2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3,451)	(858)	(2,592)	(1,401)	(1,191)

주: 1)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는 제외

〈부표 3〉 응답자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집안일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1.8	1.8	1.8	2.2	0.9
주 2~3회	2.5	1.2	3.5	3.6	3.1
주 1회	7.5	8.1	7.0	7.9	4.8
2주에 1회	7.7	8.8	6.9	7.6	5.3
월 1회	15.7	15.9	15.6	15.7	15.4
3개월에 1회	10.5	10.8	10.2	10.2	10.2
6개월에 1회	7.5	6.1	8.4	8.3	10.9
연 1회 이하	4.0	3.4	4.4	3.1	7.2
미제공	42.9	43.9	42.3	42.4	42.1
집안일 도움 수여					
주 4회 이상	1.3	1.3	1.4	1.9	0.3
주 2~3회	3.1	3.2	3.0	3.7	1.3
주 1회	6.5	8.0	5.5	6.3	3.6
2주에 1회	7.1	9.2	5.6	5.9	5.0
월 1회	17.2	17.5	17.0	19.6	10.9
3개월에 1회	13.1	14.4	12.1	12.6	10.9
6개월에 1회	7.0	9.3	5.4	5.3	5.5
연 1회 이하	2.9	2.8	2.9	2.3	4.3
미제공	42.1	34.5	47.2	42.6	58.2
손자녀 돌보기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10.3	9.8	10.8	11.7	5.0
주 2~3회	6.9	5.8	8.4	8.1	10.6
주 1회	11.1	11.0	11.2	11.8	7.3
2주에 1회	8.5	9.2	7.5	7.1	10.1
월 1회	15.5	14.6	16.7	18.0	7.7
3개월에 1회	12.5	12.6	12.3	11.4	18.3
6개월에 1회	7.4	8.0	6.5	5.7	12.1
연 1회 이하	3.3	3.5	3.0	3.1	1.9
미제공	24.6	25.4	23.5	23.0	27.0
경제적 도움 수혜 내용					
전혀 도움 받지 않음	23.3	11.5	31.4	23.1	50.7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8.8	11.7	6.7	8.2	3.2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65.7	74.5	59.6	66.1	44.6
주택 등 부동산 구매 시 지원	0.1	0.3	0.0	0.0	0.0
생활물품 구매 지원	2.1	1.9	2.2	2.5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1,794)	(727)	(1,066)	(746)	(321)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경우만 질문. 항목별 무응답 제외

〈부표 4〉 부양 내용별 주 제공자·수혜자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집안일 도움 제공					
기혼장남	21.4	32.7	13.9	17.9	4.7
미혼장남	20.1	8.5	27.9	21.9	41.7
기타 기혼 아들	1.9	2.4	1.5	1.8	0.9
기타 미혼 아들	3.2	1.8	4.1	4.5	3.2
기혼장녀	34.6	39.6	31.4	34.8	23.4
미혼장녀	10.6	4.2	14.8	11.2	23.2
기타 기혼 딸	6.3	8.5	4.8	6.3	1.4
기타 미혼 딸	2.0	2.4	1.7	1.7	1.7
집안일 도움 수혜					
기혼장남	22.7	29.7	16.8	19.5	8.2
미혼장남	9.1	3.7	13.8	10.5	24.4
기타 기혼 아들	2.4	2.7	2.1	2.4	1.2
기타 미혼 아들	1.5	1.2	1.7	1.4	2.6
기혼장녀	40.7	44.9	37.2	38.7	32.2
미혼장녀	12.6	5.5	18.7	16.4	25.9
기타 기혼 딸	8.9	10.8	7.2	8.7	2.6
기타 미혼 딸	2.1	1.6	2.5	2.4	2.9
손자녀 돌보기 제공					
기혼장남	31.8	35.8	24.8	28.9	8.9
미혼장남					
기타 기혼 아들	2.7	2.8	2.7	3.0	0.0
기타 미혼 아들					
기혼장녀	55.5	51.3	83.0	57.3	87.0
미혼장녀					
기타 기혼 딸	10.1	10.1	9.6	10.8	4.1
기타 미혼 딸					
경제적 도움					
기혼장남	26.5	35.7	18.4	21.5	7.1
미혼장남	15.0	10.2	19.1	17.5	25.0
기타 기혼 아들	1.9	2.2	1.6	2.0	0.0
기타 미혼 아들	3.6	3.3	3.9	4.2	2.9
기혼장녀	32.4	33.8	31.2	31.5	30.0
미혼장녀	11.5	4.7	17.6	13.5	32.1
기타 기혼 딸	6.7	7.8	5.7	6.9	1.3
기타 미혼 딸	2.5	2.3	2.6	2.9	1.7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각 도움 내용별 수혜 및 제공을 받은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5〉 응답자의 여가활동(2순위, 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2순위					
책읽기	5.3	4.3	5.7	5.4	6.0
글쓰기	0.9	0.6	1.0	1.0	1.0
영화감상	4.0	2.8	4.4	3.9	4.8
전시회 관람	0.3	0.0	0.3	0.5	0.1
뮤지컬 및 연극 감상	0.4	0.5	0.4	0.6	0.2
노래 부르기	2.5	2.5	2.5	2.8	2.2
악기 연주	0.5	0.3	0.6	0.6	0.7
음악듣기	5.2	5.2	5.1	4.5	5.8
춤추기	0.3	0.1	0.4	0.4	0.4
바둑, 장기, 체스	2.0	2.1	2.0	2.3	1.6
화투, 카드	1.2	1.3	1.2	1.6	0.8
여행	4.1	4.9	3.8	3.6	4.0
낚시	2.3	2.9	2.1	2.5	1.7
운동(스포츠)	9.7	7.2	10.6	9.2	12.1
스포츠 관람	2.3	2.3	2.3	2.0	2.7
등산	10.5	9.3	10.9	10.2	11.7
공예	0.3	0.2	0.3	0.4	0.3
다도	0.1	0.3	0.1	0.1	0.1
사진찍기	0.4	0.2	0.5	3.8	0.7
교양강좌 수강	0.3	0.1	0.3	0.5	0.2
그림그리기	0.2	0.3	0.2	0.0	0.4
서예	0.3	0.4	0.3	0.3	0.2
라디오 듣기	5.8	6.8	5.5	5.7	5.2
컴퓨터 및 인터넷	5.6	3.7	6.2	5.0	7.6
게임	0.9	0.3	1.1	1.2	0.9
친목모임	18.6	20.2	18.1	21.0	14.9
화초 가꾸기	5.4	8.3	4.5	5.1	3.8
산책	10.4	13.1	9.5	9.1	9.9
기타	0.2	0.0	0.2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3,477)	(868)	(2,609)	(1,372)	(1,234)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3순위					
책읽기	4.1	3.7	4.2	4.4	4.0
글쓰기	0.4	0.2	0.5	0.2	0.8
영화감상	5.0	5.0	5.0	4.5	5.6
전시회 관람	0.3	0.4	0.2	0.3	0.1
뮤지컬 및 연극 감상	0.5	0.2	0.6	0.4	0.7
노래 부르기	3.1	0.6	3.1	3.4	0.3
악기 연주	0.5	0.6	0.5	0.6	0.3
음악듣기	6.0	6.5	5.9	6.0	5.8
춤추기	0.4	0.2	0.5	0.7	0.3
바둑, 장기, 체스	1.5	2.0	1.3	1.9	0.7
화투, 카드	1.7	2.0	1.7	1.9	1.4
여행	3.9	4.0	3.8	3.7	4.0
낚시	1.8	2.1	1.7	1.3	2.0
운동(스포츠)	5.5	4.3	5.9	6.0	5.8
스포츠 관람	1.6	1.3	1.7	1.6	1.9
등산	6.7	6.2	6.8	6.1	7.5
공예	0.2	0.3	0.2	0.1	0.3
다도	0.4	1.0	0.2	0.3	0.2
사진찍기	0.6	0.1	0.8	0.4	1.2
교양강좌 수강	0.8	0.7	0.9	0.6	1.1
그림그리기	0.1	0.0	0.1	0.3	0.0
서예	0.1	0.1	0.2	0.1	0.2
라디오 듣기	4.5	5.8	4.1	4.9	3.2
컴퓨터 및 인터넷	7.1	4.3	8.0	6.6	9.4
게임	0.7	0.1	0.9	0.9	1.0
친목모임	25.3	25.0	25.5	25.6	25.4
화초 가꾸기	9.3	12.5	8.3	9.2	7.3
산책	7.7	7.9	7.6	7.9	7.3
기타	0.2	0.4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²⁾	(2,673)	(657)	(2,017)	(1,037)	(980)

주: 1) 2순위를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3순위를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6〉 응답자의 여가활동 빈도 및 동행인(2순위, 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여가활동 빈도 2순위					
주 4회 이상	22.8	25.9	21.8	23.3	20.5
주 2~3회	24.9	23.8	25.3	25.8	24.9
주 1회	14.9	14.2	15.1	15.5	14.8
2주 1회	9.9	10.3	9.7	10.3	9.2
월 1회	22.5	20.7	23.2	20.3	25.7
월 1회 미만	5.0	5.2	4.9	4.8	4.9
여가활동 동행인 2순위					
혼자서	40.1	38.9	40.5	38.1	43.2
가족과 함께	19.3	21.0	18.8	17.6	20.1
친구와 함께	36.7	35.6	36.1	40.1	31.6
동호회 활동	3.5	1.6	4.2	3.7	4.7
기타	0.4	0.0	0.5	0.5	0.5
계 (명) ¹⁾	100.0 (3,477)	100.0 (868)	100.0 (2,609)	100.0 (1,373)	100.0 (1,236)
여가활동 빈도 3순위					
주 4회 이상	20.3	21.8	19.8	19.6	20.0
주 2~3회	20.7	20.9	20.6	19.9	21.2
주 1회	14.7	14.7	14.7	14.8	14.7
2주 1회	9.4	11.1	8.8	9.5	8.1
월 1회	28.0	24.6	29.1	28.8	29.4
월 1회 미만	7.0	6.9	7.0	7.5	6.5
여가활동 동행인 3순위					
혼자서	39.8	41.1	39.3	38.5	40.2
가족과 함께	18.1	18.5	18.0	18.4	17.5
친구와 함께	38.3	35.9	39.1	38.6	39.5
동호회 활동	3.4	4.0	3.2	3.8	2.5
기타	0.5	0.5	0.5	0.7	0.3
계 (명) ²⁾	100.0 (2,673)	100.0 (657)	100.0 (2,017)	100.0 (1,037)	100.0 (980)

주: 1) 2순위를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3순위를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7〉 응답자의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2순위, 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2순위					
책읽기	2.4	2.6	2.3	2.0	2.6
글쓰기	1.0	0.8	1.1	1.3	0.9
영화감상	2.9	2.0	3.2	3.1	3.4
전시회 관람	0.9	0.9	0.9	0.8	0.9
뮤지컬 및 연극 감상	1.4	0.9	1.6	1.4	1.9
노래 부르기	3.5	3.5	3.6	4.1	3.0
악기 연주	1.0	0.7	1.1	1.1	1.2
음악듣기	2.2	2.6	2.0	2.4	1.6
춤추기	1.6	2.2	1.5	1.5	1.5
바둑, 장기, 체스	1.5	1.7	1.4	1.9	0.8
화투, 카드	0.7	1.2	0.5	0.5	0.4
여행	19.1	18.8	19.2	19.0	19.4
낚시	4.4	5.3	4.1	4.4	3.7
운동(스포츠)	10.8	8.6	11.5	11.0	12.2
스포츠 관람	1.2	1.2	1.1	0.9	1.4
등산	15.0	13.3	15.6	14.6	16.7
공예	0.6	0.7	0.6	0.6	0.6
다도	0.5	0.3	0.6	0.5	0.7
사진찍기	1.1	0.9	1.2	1.1	1.3
교양강좌 수강	2.2	1.6	2.4	2.0	2.9
그림그리기	0.9	0.9	0.9	1.0	0.7
서예	1.7	1.4	0.9	1.8	1.9
라디오 듣기	0.9	1.5	0.7	0.9	0.5
컴퓨터 및 인터넷	2.3	2.5	2.3	1.8	2.7
게임	0.1	0.1	0.1	0.1	0.2
친목모임	8.8	11.1	8.1	9.1	6.9
화초 가꾸기	6.1	6.9	5.8	6.0	5.5
산책	5.0	5.8	4.7	4.9	4.5
기타	0.2	0.2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4,022)	(1,017)	(3,005)	(1,614)	(1,391)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3순위					
책읽기	2.7	2.6	2.8	2.9	2.7
글쓰기	0.5	0.5	0.5	0.2	0.7
영화감상	3.8	2.6	4.2	3.9	4.4
전시회 관람	1.1	1.0	1.2	0.9	1.4
뮤지컬 및 연극 감상	1.3	1.5	1.3	0.9	1.8
노래 부르기	3.5	3.5	3.5	3.4	3.6
악기 연주	1.3	1.2	1.4	1.1	1.7
음악듣기	2.9	4.0	2.5	3.0	1.9
춤추기	1.2	1.2	1.1	1.0	1.3
바둑, 장기, 체스	1.6	1.9	1.5	1.5	1.5
화투, 카드	0.7	1.0	0.6	0.5	0.7
여행	12.5	12.4	12.5	12.7	12.3
낚시	3.3	2.7	3.5	3.6	3.4
운동(스포츠)	7.4	6.7	7.6	7.5	7.8
스포츠 관람	1.9	2.3	1.8	1.4	2.3
등산	9.1	9.9	8.8	8.6	9.0
공예	1.1	0.8	1.2	1.6	0.6
다도	0.6	0.5	0.6	0.8	0.4
사진찍기	1.3	0.9	1.5	1.6	1.4
교양강좌 수강	2.8	1.6	3.3	3.3	3.2
그림그리기	0.7	0.5	0.7	0.8	0.7
서예	1.8	1.5	1.9	1.7	2.1
라디오 듣기	0.5	1.3	0.3	0.3	0.3
컴퓨터 및 인터넷	3.4	2.5	3.6	3.8	3.5
게임	0.2	0.2	0.2	0.2	0.1
친목모임	17.9	18.1	17.8	18.1	17.6
화초 가꾸기	8.1	9.0	7.8	8.6	6.8
산책	6.7	7.9	6.3	6.2	6.5
기타	0.2	0.1	0.2	0.1	0.3
계 (명) ²⁾	100.0 (3,716)	100.0 (914)	100.0 (2,8020)	100.0 (1,492)	100.0 (1,310)

주: 1) 2순위를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3순위를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8〉 응답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서비스 종류

(단위: %)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전기 베이비 붐 세대	후기 베이비 붐 세대
본인의 부					
이용	3.8	4.8	3.7	4.3	3.4
미이용	96.2	95.2	96.3	95.7	96.6
본인의 모					
이용	6.3	7.8	6.0	6.6	3.2
미이용	93.7	92.2	94.0	93.4	96.8
배우자의 부					
이용	3.8	3.2	3.8	5.5	2.5
미이용	96.2	96.8	96.2	94.5	97.5
배우자의 모					
이용	5.5	5.5	5.5	7.3	3.8
미이용	94.5	94.5	94.5	92.7	96.2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대상 부/모가 생존해있는 경우만 조사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Research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
연구 2010-02	화귀난치성질환자의 약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키아	5,000
연구 2010-03	해외의료시장 개혁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미정
연구 20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가혜	6,000
연구 20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
연구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
연구 20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
연구 2010-08	간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
연구 20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미정
연구 20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
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자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인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기차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외부)	6,000
연구 2010-30-8	차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
연구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
연구 20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산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2010-30-20	산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
연구 2010-30-21	산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가설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가설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
연구 20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지원태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
연구 20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권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I)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의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과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